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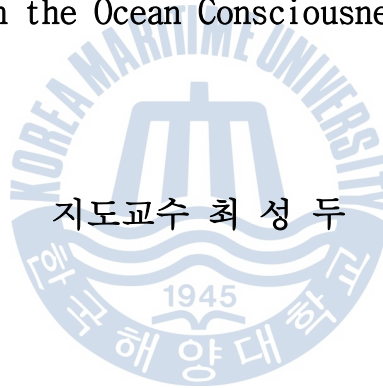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행정학석사 학위논문

해양교육 정책도구가 해양의식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 of Ocean Education Policy Instruments
on the Ocean Consciousness



지도교수 최 성 두

2013년 02월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통상행정학과 행정학전공

이 초 희

행정학석사 학위논문

해양교육 정책도구가 해양의식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 of Ocean Education Policy Instruments
on the Ocean Consciousness



지도교수 최 성 두

2013년 02월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통상행정학과 행정학전공

이 초 희

本 論文을 李招喜의 行政學碩士
學位論文으로 認准함.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2012 년 12 월 12 일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	4
제 2 장 해양의식과 해양교육 정책도구에 관한 이론적 고찰	6
제 1 절 해양의식 의의와 실태	6
1. 해양의식 개념과 영향요인	6
1) 해양의식 개념	6
2) 해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	12
2. 해양의식 실태와 해양의식 수준 저조이유	21
1) 해양의식 현황	21
2) 해양의식수준이 저조한 이유	30
3. 해양의식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33
제 2 절 해양교육 정책도구 개념과 유형	37
1. 해양교육 및 해양교육 정책의 개념	37
2. 해양교육 정책도구 유형	44
3. 해양교육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54
제 3 장 외국의 해양정책 및 해양교육 정책도구 검토	57
제 1 절 미국	57
1. 해양정책	58
2. 해양교육 정책도구	61
제 2 절 일본	63
1. 해양정책	63
2. 해양교육 정책도구	67

제 3 절 중국	69
1. 해양정책	69
2. 해양교육 정책도구	72
제 4 장 해양교육 정책도구가 해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설계 · 73	
제 1 절 설문지의 구성	73
1. 종속변수 (해양의식 수준)	73
2. 독립변수 (해양교육 정책도구)	76
3. 통제변수 (인구학적 특성)	76
제 2 절 연구모형 및 가설의 설정	78
1. 연구모형의 설정	78
2. 연구 가설	79
제 3 절 조사연구방법	80
1. 조사 대상 및 자료 수집	80
2. 분석방법	81
제 5 장 해양교육 정책도구가 해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분석 82	
제 1 절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82
제 2 절 연구결과 및 분석	87
1. 해양의식 영향 및 해양교육 정책도구 일반적 인식 조사	87
2. 해양교육 정책도구가 해양의식에 미치는 영향	91
제 6 장 해양교육 정책도구 발전을 위한 제언	93
제 1 절 제도적 정책도구	93
1. 해양교육 진흥법 제정	93
2. 해양교육센터 기관 근거 조항 마련	94

제 2 절 경제적 정책도구	95
1. 해양교육 프로그램 인증 지원	95
2. 해양교육 담당교사 직무연수 지원	95
3. 정보제공적 정책도구 연계	96
제 3 절 정보제공적 정책도구	97
1. 현장교육에 활용이 가능한 교재개발	97
2. 온라인 해양교육 활성화	98
3. 청소년 해양체험교육 활성화	98
제 4 절 조직적 정책도구	100
1. 해양과학자 및 교사들간의 네트워크 구축	100
2. 해양교육발전협의회 활성화	100
3. 국제 해양교육 네트워크 구축	101
제 7 장 결론	102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102
제 2 절 연구의 한계점	105
참고문헌	106
부록	113

표 목 차

<표 2-1> 해양을 의미하는 영어단어 개념	7
<표 2-2> 해양력의 요소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9
<표 2-3> 해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	12
<표 2-4> 해양레저 유형	15
<표 2-5> 해양경쟁력 설문 결과	22
<표 2-6> 미래 국가 해양전략 시민 의식조사 설문 결과	23
<표 2-7> 국가별 해양의식 조사 개요	23
<표 2-8> 미국 해양의식 조사 설문 항목	24
<표 2-9> 일본 해양의식 조사 설문 항목	25
<표 2-10> 교육대상 및 주체에 따른 해양교육 분류	38
<표 2-11> 해양교육정책 세부 추진과제	40
<표 2-12> 해양교육정책 예산	41
<표 2-13> 정책도구의 개념 정의	42
<표 2-14> 정책도구의 유형 분류	43
<표 2-15> 해양교육 정책도구	43
<표 2-16> 해양교육시범학교 진행절차	46
<표 2-17> 한국 씨그랜트 연도별 예산 현황 및 연혁	48
<표 2-18> 소속기관별 청소년 해양체험 프로그램	51
<표 2-19> 부산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연혁	53
<표 3-1> 미국 해양정책 변천사	59
<표 3-2> 미국의 해양교육 정책도구	62
<표 3-3> 일본 해양기본법의 구성	64
<표 3-4> 일본의 해양교육 관련 규범	65
<표 3-5> 중국 11·5 계획의 해양산업 발전 방향	70
<표 3-6> 중국의 해양분야 6대 중점 사업과 6대 능력향상계획	71
<표 4-1> 해양의식 선행연구 척도	73

<표 4-2> 변수의 설정과 측정지표.....	77
<표 4-3> 설문조사의 표본 현황.....	72
<표 5-1> 해양의식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83
<표 5-2> 해양교육 정책도구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84
<표 5-3> 수정된 가설.....	85
<표 5-4> 해양의식에 미치는 요인 우선순위 빈도 분석 결과.....	87
<표 5-5> 해양의식 저해요인 다중응답 분석 결과.....	88
<표 5-6> 해양의식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다중응답 분석 결과.....	89
<표 5-7> 해양의식 증진에 가장 효과적인 해양교육 정책도구 빈도 분석 결과.....	90
<표 5-8> 해양의식 증진을 위해 추가되어야 할 세부 정책도구 다중응답 분석 결과.....	90
<표 5-9> 해양교육 정책도구가 해양의식수준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결과.....	91

그림 목 차

<그림1-1> 연구의 흐름도.....	5
<그림2-1> 해양관련 직업 소개 책.....	17
<그림2-2> 해양교육정책 기본방향.....	39
<그림2-3> 미국 전역의 SeaGrant 분포도.....	47
<그림2-4> 해양교육 교재.....	49
<그림3-1> 미국 행정부의 해양정책 조정 체계 (해양교육 포함).....	60
<그림3-2> 海の仕事.com 사이트.....	68
<그림4-1> 연구 모형.....	78
<그림5-1> 수정된 연구모형.....	86

A Study on the Effect of Ocean Education Policy Instruments on the Ocean Consciousness

Lee, Cho He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mmerce & Maritime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University*

Abstract

According to the paradigm change from the age of Information Revolution based on knowledge, technology and information to that of Blue Revolution with ocean as key solution due to new waves in the 21st Century, it is necessary to seek ways to activate ocean education to promote ocean consciousness.

Accordingly, this study,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of the times, reviewed meaning and state of ocean consciousness, reviewed definitions and types of policy instrument of ocean education, figured out relations of effects of ocean policy instruments on level of ocean consciousness by analyzing it.

For ocean consciousness, it is defined as concern or knowledge for oceans and its related issues or attitude or standpoint of ocean. And for definition of ocean education policy, it means policy purpose of proper ocean education and its basic principle by authorities to be achieved.

Six factors affecting ocean consciousness are as follows: while natural

condition and history are two fixed factors while recreation and leisure, job,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and culture are considered as changing factors because they could be changed by governmental or personal efforts

There are reasons for low ocean consciousness with the following 4 aspects: geographical aspect as a peninsular nation; policy and cultural aspect such as ocean prohibition policy and Confucianism; external aspect like chancing concern to other fields; and educative aspect in regard of lack of systematic education system on ocean matters.

Through these theoretical studies, the positive research was performed. As the results of general attitude on effects of ocean attitude and policy instruments of ocean education, the most influential factor by respondents was matter of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For responses about reasons for low ocean attitude in Korea showed lack of systematic education system. From these results, ocean education is inevitable for prompting ocean consciousness. And then the respondents chose development of contents and textbooks of ocean education as most best solution to foster ocean conscious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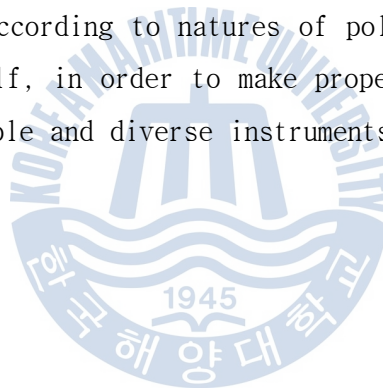
Policy instrument of ocean education can be categorized as follows: regulative(stick) policy instrument, economical and informative(carrot and sermons) instrument and organizational policy instrument. And then as the results of effect relations on ocean attitude by them, except for regulative one, the rest of policy instruments showed their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s.

Based on the results, I made suggestions for developing ocean education policy instrument.

First of all, for systematic policy instruments, it is necessary to enact ocean Education Promotion Act and regulation offering foundation for ocean education center. And then, for economical policy instruments, it is needed to prepare qualification and support system for ocean

education program, training of teachers who take charge of ocean education and to link them with informative policy instruments. Also, about informative policy instruments, it needs to develop textbooks for ocean education, to apply forms of online ocean education and experience education for youth. Finally, concerning organizational policy instruments, it is essential to build networks among ocean scientists and teachers, association to develop ocean education and further its international network

However, in fact, most of governments tend to apply various instruments not only one instrument in order to achieve it. And individual policy instrument may be combined into as a whole for applying it simultaneously or gradually. Besides, because one policy instrument may change gradually according to natures of policy-targeted groups and policy instrument itself, in order to make proper policy decisions, not one superior but multiple and diverse instruments should be applied with harmonizing them.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2년, 한국과 일본사이의 해양영토 전쟁이 시작되었다. 사실 독도의 해양영토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슈가 아니다. 1994년 유엔 해양법 발효 이후, 지구 전체적인 문제이며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해양영토의 갈등을 겪고 있다. 실시간 뉴스로 독도의 문제가 앞 다투어 업데이트 되고, 정시 뉴스에서도 일본과 한국의 지도자들의 독도에 대한 견해를 특집으로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해양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에 대한 의식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사랑하고 사랑하는 만큼 지킬 수 있다는 명언처럼, 우리는 과연 해양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사랑하며, 그 사랑을 지킬 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 해양 영토문제, 해양 자원문제에 대하여 국민들의 감정적인 문제로만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가? 해양이 중요한 만큼, 과연 우리 국민들의 해양에 대한 의식 또한 높을까? 라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이 연구의 시발점이 된다.

지구 표면적의 71%를 차지하는 해양에는 지구 생물의 90%인 1,000만 종이 서식하고 있다. 아울러 지구 산소의 75%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의 50%를 흡수한다. 또한 열의 수급과 이동을 통해 지구의 기후를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한편 해양은 거대한 담수 공급원이다. 해양은 425조 톤의 물을 증발시켜 이 중 40조 톤의 물을 육지에 공급한다. 물을 순환시켜 육지의 생명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이밖에도 해양은 인류에게 25%의 생물 상품과 16%이상의 동물성 단백질을 제공하고 있고 막대한 광물자원과 무한대의 에너지자원을 보유하고 있다(Arthur D Little, 2006).

이러한 무한한 가치를 지닌 바다가 3면으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인 측면만 고려한다면 해양국가라고 해도 틀림이 없지만, 과거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바다를 위시한 국가정책 즉, 섬에 사람을 살지 못하게 한 ‘공도정책(空島政策)’과 해상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킨 ‘해금정책(海禁政策)’등을 통해 바다를 멀리하고 천시하는 풍조를 들이게 되고, 모든 문명적 혜택을 육지에서

만 찾게 되었다.¹⁾

이에 따라, 우리는 해양이 우리에게 주는 무한한 가치를 피상적으로나마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 혹은 바닷사람들의 대해서는 이중적인 잣대를 건주고 있다. 바닷사람을 ‘벧놈’, 갯벌을 일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존재도 없는 ‘갯갯’이라고 일컫고, 바다를 깊어지고 사는 사람은 밑바닥 인생의 낙오자라는 생각을 한다. ‘오뉴월에 물가에 가지 말라’는 어머니의 충고 뿐 아니라 심지어는 ‘갯가사람에겐 시집도 보내지 말라’는 말까지 하곤 했다(최영호, 2007:3).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양에 대한 인간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적 접근이 가장 효과적이다. 따라서 해양을 보다 깊이 있게 탐구하여 해양의 외재적 가치와 내재적 가치를 발견하고, 해양환경의 가치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해양교육이 필요하다(양명화·이두곤, 2009).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해양교육을 위해 국토해양부 및 산하기관에서 해양교육 정책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양교육 정책도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은 세부 정책도구가 정책수혜집단(beneficiary group)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연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해양의식과 해양교육에 관련된 선행연구는 대부분 철학적·교육학적으로 다루어져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행정학과 정책학적 관점에서 해양의식의 의의와 실태를 살펴보고 해양교육 정책도구의 개념과 유형을 분류한 후, 해양의식수준과 해양교육 정책도구와의 영향 관계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교육 정책도구의 해양의식수준에 대한 영향관계를 알아보는 것은 어떤 정책도구가 다른 정책도구에 비해 더 우월한 도구인지 그리고 왜 그 정책도구가 다른 정책도구에 비하여 특정 정책문제해결에 더 성공적인지를 체계적으로 설

1) 우리나라의 대륙중심의 정책은 중국에서 전해져 왔는데, 명나라가 태조 주원장 이래 해금정책을 우리나라에게 강요하였다. 해금정책은 대외교역은 물론 연해주민들이 바다에 나가는 것조차 금지하는 정책이다. 중국에서 육지와 달리 해양은 확장의 대상이 아니라 방어의 대상이었고 그에 따라 해상으로의 진출은 제한되었다. 15~17세기는 세계적으로 해양국가 발흥의 시기이고, 해양시대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이 시기 쇠국을 시작하여 시대를 거스르는 해양정책을 펼쳤다. 명대초 해금령을 선포하고 쇠국·해금정책을 펼쳤는데 이는 봉건체제의 강화와 안정에는 상당한 기여를 했지만, 대외교역이 쇠퇴하고 해양의 이용 가능성을 극소화 되었다. 명 중기 이후 중국의 해금정책은 최고조에 달해 조그만 배도 바다로 나가는 것을 금지시키고, 모든 대선박 건조를 금지하고 없애 버렸다(박정현, 2005).

명할 수 있다면, 정부가 해양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큰 도움을 받게 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전영한, 2007:40).

또한 본 연구를 통해 해양교육 정책도구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총체적인 해양교육 정책의 목표인 국민들의 해양의식 증진을 위해 해양교육 정책도구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

본 연구는 해양교육 정책도구의 해양의식수준에 대한 영향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과학적 연구방법으로서 경험적 자료 분석과 통계적 분석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연구에 필요한 자료수집은 지금까지 발간된 각종 서적, 연구논문 등을 통한 자료수집과 설문지를 통한 자료수집, 국내외 해양의식 및 해양교육정책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자료수집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활용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해양의식과 해양교육정책에 대한 일반적 고찰을 한 다음, 외국(미국, 일본, 중국)의 해양의식수준 및 해양교육 정책도구 현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해양교육 정책도구의 해양의식수준에 대한 영향관계를 실증분석 하기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실증분석을 병행할 예정인데,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연구를 실시한다. 해양의식 및 해양교육정책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기 위하여 문헌조사를 실시한다. 문헌연구는 주로 국내·외 해양의식 및 해양교육정책관련 분야의 저서 및 논문, 학술지, 정부기관의 각종 통계자료, 언론 보도자료, 인터넷 자료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둘째, 해양교육 정책도구의 해양의식수준에 대한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실증적 연구를 실시한다. 즉 독립변수인 해양교육 정책도구와 종속변수인 해양의식수준간의 인과관계를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설립하여 검증하기 위해 부산이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설문지를 배포하여 실증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도출된 최종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문항의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통하여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의 관계를 진단한다. 그리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그리고 통제변수간의 가설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은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들에 대한 요약과 해양교육 정책도구 발전을 위한 제언 및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한다.

앞에서 제시한 연구방법에 따라 본 연구의 구성 체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장은 서론으로 문제의 제기, 연구의 목적, 연구의 방법 및 구성체계를 제

시하여 연구의 개략적인 흐름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제 2장은 이론적 고찰로 해양의식 의의와 실태, 해양교육 정책도구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았다.

제 3장은 미국, 일본 그리고 중국의 해양정책 및 해양교육 정책도구를 검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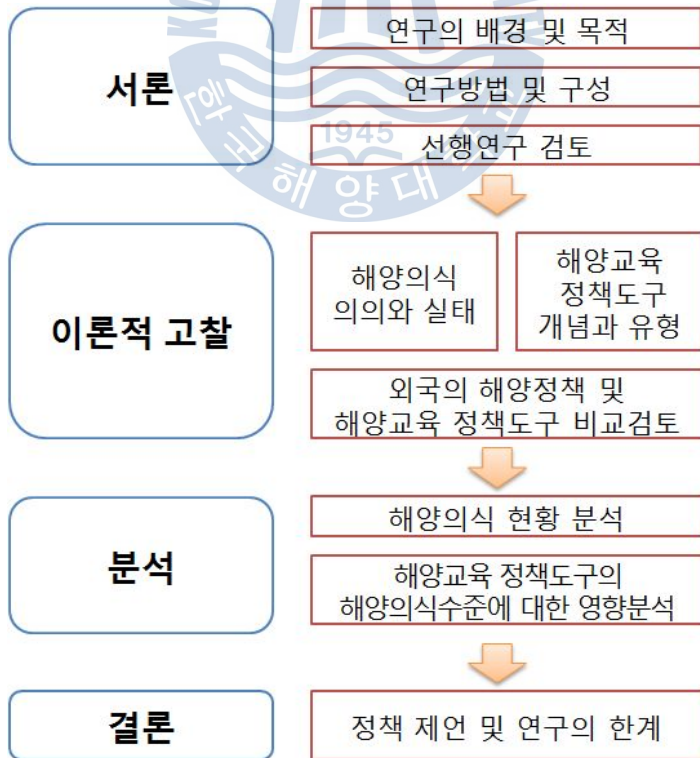
제 4장은 설문지의 구성 및 연구모형의 설계와 연구가설의 도출을 위한 토대와 조사연구방법을 마련하였다.

제 5장은 실증조사 결과의 분석으로 연구변수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 연구가설의 통계적 검증 등을 제시하였다.

제 6장은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해양교육 정책도구 발전을 위한 제언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제 7장에서는 결론으로써 연구의 요약과 본 연구의 한계점등을 제시하였다.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제 2 장 해양의식과 해양교육 정책도구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 1 절 해양의식의 의의와 실태

1. 해양의식의 개념과 영향요인

1) 해양의식의 개념

해양의식은 해양과 의식이라는 단어의 합성어로서, 흔히 해양인식, 해양사상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다. 이는 의식과 사상 그리고 인식이 유사한 단어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해양의식이라는 용어는 각종 해양관련 보고서며 뉴스에서 부단히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양환경 보존의식 향상이나 해양영토 주권의식 제고와 같이 새로운 단어를 접목시켜 활용도 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사용하는 해양의식이란 과연 어떤 뜻을 가지는 것일까?

해양의식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의 견해에 따라 다각도로 이루어 지고 있다.

이동근 외(2003)연구에 따르면 해양의식은 바다에서 보람의 지혜를 찾아내는 정신으로 바다를 좋아하여 바다를 닦으려 하고 바다를 이용하려는 정신으로 본다. 이는 바다가 지닌 웅대하고 활발한 기상을 본받고, 바다의 속성을 시대 정신으로 받아들여 의식과 제도를 바꾸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연구자는 21세기에 가꾸어가야 할 해양의식으로 국제 해양환경의 변화에 따른 해양자원의 개발과 보전의 중요성,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다양성, 진취성, 도전정신, 벤처정신, 정보와 지식지향성, 국제화와 세계화의 심화에 따른 포용성, 개방성, 대담성, 주체성, 국내의 갈등과 대립해소를 위한 광대무변성, 웅대하고 활발한 기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최영호(1998)의 ‘국민 해양 의식 고취와 교육문제 연구’에 따르면 해양과 의식을 분리하여 정의하고, 이를 통해 총체적으로 해양의식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복합적인 사고·종합적인 이해·총체적인 시각을 요하고 있는 해양은 우리와 별개로 존재하는 대상이 아니다. 해양은 우리 삶의 구체적인 현실이자 살아있

는 삶의 경계인 것이다. 한편, 의식은 한 대상에 다가가는 인간의 내재적 삶의 자유로움으로서, 자기 자신·자기 사고·자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라 하겠다. 그것은 행위 주체자들과 그들 각각의 행위들에 대한 도덕적 판단력을 구성하는 능력이다. 해양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로 인해 자기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그리하여 도덕적인 의무까지를 내포한 개념이 바로 여기서의 의식인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의 또다른 연구인 '글로벌 해양교육'에서도 해양의식을 정의하고 있는데 '해양의식은 해양에 대한 우리의 사고와 자각이 미래의 비전을 깊이 생각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기엔 우리의 욕구, 감정, 의지등에 대한 충족 의지와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다. 결국, 해양의식은 깨어있는 주체로서 우리 인간이 자신의 주관과 가치관을 해양을 통해 발현함과 동시에 일관된 사고를 유지하는 지각행위'라고 설명하고 있다.

구모룡의 연구(2007)에서는 해양의식을 대항지향의 의식 혹은 바다와 더불어 일하고 노는 삶의 의식이라고 정의하며 해양에 대하여 친밀감을 느끼고,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해양에 대한 책임감과 개척정신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특별히 해양에 해당하는 다양한 영어 단어 개념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아래 <표 2-1>와 같다.

<표 2-1> 해양을 의미하는 영어단어 개념

단어	개념정의
sea	지표의 3/4를 차지하는 염수로 해양이라고도 함 바다 일반을 가리키는 말로 Land에 상응하는 개념 가까운 연안에서 대양에 이르는 바다 전체를 포괄함
ocean	연안을 벗어난 대양을 지시 대륙에 대응한, 넓고 깊은 수역
maritime	항해기술, 선박, 항만 등 어업 이외의 바다와 관련된 영역을 의미 동아시아에서 대체로 해사로 번역되고 해상교통, 배와 선박 기술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
marine	해안과 해양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다른 단어보다 더 넓은 의미를 함 의함

출처: 구모룡, (2007) 「해양문학의 여러 지평」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양의식에 대한 정의를 내린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인문학적으로 이루어져 다분히 그 정의가 철학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추상적인 해양의식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려고 시도한 것이 해양수산부에서 발간한 미래 국가 해양전략 연구보고서(2006)인데, 이 보고서에서는 해양의식을 ① 바다에 대한 친밀감, ② 바다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 ③ 바다에 대한 책임감, ④ 바다를 개척해 나가는 대양정신으로 구성되며 국가 해양력을 견인하는 정신요소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각 요소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다에 대한 ‘친밀감’은 국민의 해양활동과 관련이 있으며 해양관광산업의 성장과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해양직업군의 선택과 관련이 있고,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지면 국민의 해양정책에 대한 기대수준도가 높아져 국민들의 요구가 정책형성과정에서 다양하게 반영되고 정부의 정책우선순위에 변화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해양에 대한 ‘책임감’은 주로 후세대를 위한 현세대의 책무와 관련이 되는데, 선진국일수록 개발보다는 보존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민과 정부의 해양에 대한 책임감(Stewardship)이 강하게 요구되며, 해양보전을 위한 시민의 책무가 인위적인 홍보수단이 아닌 자연스러운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식되고 있다고 한다. ‘대양정신’은 바다를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활동의 정신적 동인으로 작용을 하는데, 역사적으로 신대륙 발견과 새로운 항로 개척은 대양정신이 없었으면 불가능하였을 것이며, 현대에는 국제 교역을 통한 부의 창출 등 주로 산업적인 측면에서 대양정신이 강조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정의를 토대로 해양의식이란 해양에 대한 관심이나 해양 또는 해양문제에 대한 지식, 친해양적 태도 혹은 해양정책에 대한 입장 등을 나타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또한 해양의식은 국가 해양력을 구성하는 주요 요인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²⁾ 국가 해양력 또한 학자들에 따라 아래 <표 2-2>와 같이 다양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2) 강중희(2005)에 따르면 해양력은 바다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과 이러한 여건을 활용하려는 국민과 정부의 열의로 나타난 갖가지 해양활동 그리고 해양활동에서 얻어지는 국부의 총화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에서는 국민과 정부의 해양의식이 해양력을 구성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해양의식을 고취하는 일이 해양강국이 될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표 2-2> 해양력의 요소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학 자	구 분	요 소
마한 (1889)	해양력의 요소	지리적 위치, 자연조건, 영토의 크기, 인구 수, 국민성, 정부의 성격
	해양력의 고리	생산, 해운업, 식민지
리치몬드 (1946)	해양력의 규범적 요소	국민의 태도, 성향, 진취적 기상
	해양력의 물질적 요소	전투장비와 운용, 기지시설의 질과 양, 지리적 위치, 상선의 규모
포터·니미츠 (1960)	해양력의 요소	전투함, 무기, 훈련된 병사, 해안시설, 양호한 기지, 해운업, 유리한 국제협력
	해양력의 행사능력의 변수	인구 수, 국민의 성격, 정부의 성격, 경제의 건
갬블 (1974)	해양력의 요소	일인당 국민소득, 해안선의 길이, 영토와 해안선의 비율, 대륙붕의 면적, 어획량, 유조선 톤수, 상선 규모, 해상무역 규모, 국민총생산 대비 해상무역량, 유류 수출입량, 근해 유정탐사, 해양 영유권 배타적 어로구역의 크기, 유엔 해저위원회 가입 여부, 유엔해저개발 유예결의에 대한 지지여부, 국제유류오염방지협약의 조인여부, 연근해협약의 조인여부, 대륙붕협약의 조인여부, 외해협약의 조인여부
고르시코프 (1976)	해양력의 요소	상선대, 어선, 탐사선, 해양과학, 해양산업, 해양과학자·공학자·기술자, 해군
무어 (1979)	해양력 획득과 운용의 요소	국가의 목적과 지향점, 동맹의 목적과 지향점, 지리적 이점과 약점, 해양역사, 해양전통, 국가경제기반의 안정도
틸 (1984)	해양력의 원천	해양단체, 자원, 정치체제, 지리적 위치
	해양력의 요소	해운업, 기지, 전투기재

힐(1986)	해양력의 요소	해양무역의 규모, 시장에 대한 접근성, 조선산업의 규모, 자연자원의 개발, 해상군사력
	해양력의 변수	대양무역, 상선단, 조선업, 어획량, 연근해 지역, 국민총생산, 인구 수
키슬리 (1992)	해양력의 물리적 투입요소	지리적 위치, 해역의 크기, 육지와 해양의 연계성, 해양자원
	해양력의 경제적투입요소	국민총생산과 해역의 크기, 일인당 국민총생산, 국내총생산 대비 산업자본, 해운선단의 규모, 조선산업, 항만의 이용, 인구수
	해양력의 정치적 투입요소	해양전통, 정부의 유형, 세력권의 협력, 정치권과 군의 상호작용
김성준 (1998)	해양력의 구성요소	해군력, 해운력, 수산력, 해양개발력, 해양환경보호력
아서더리틀· 해양수산부 (2006)	해양력의 요소	해양자산: 해양자원·지형적 조건, 해양산업: 수산·해운·항만, 해양산업: 조선, 해양관광, 해양환경, 해양안전관리, 해양과학기술, 해양안보, 해양경영: 해양행정체계·해양외교·해양지원산업·해양의식·정부의지

출처: 김성귀외, (2009) 「해양문제 주도권 확대방안 연구」 p.23

해양력의 요소를 규명하려고 처음으로 시도한 미군 해군대령 마한에 의하면 해양력이란 '국민을 해양에서 또는 해양에 의해서 위대한 것으로 만드는 경향을 갖는 전부이며 해양을 활용하여 획득되는 국력과, 해양력 및 해양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국력을 통칭한 것'이라고 정의했다(Alfred Thayer Mahan, 1980). 또한 그는 국가의 해양력에 미치는 중요한 조건으로 ① 바다에 집중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 ②국민들의 해양진출을 자극할 자연환경, ③ 해안선의 길이와 연안에 놓인 항구의 특성을 고려한 영토의 크기, ④ 해양을 활용하는 인구의 수, ⑤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국민성, ⑥ 해양정책을 발전시키려는 정부의 의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한이 해양력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시한 것은 정부의 성격이다. 즉, 정부의 형태와 제도 및 통치자의 성격이 해양력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

력을 미친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정부의 친해양성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양력을 배양하는데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동근·한철환·엄선희, 2003:23).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본 해양력의 정의를 살펴보면 홍승용(2008)은 ‘해양력이란, 한나라의 해양자산 보유규모와 해양을 개발·보존·이용하는 능력의 정도로서 해양산업능력(조선력, 해운력, 수산생산력 등), 해양환경 제어 능력, 해양과학 기술력을 의미하며, 이를 둘러싼 정부의 해양행정력, 해양교육력, 해양문화력 및 해양 NGO 능력을 내포하는 것’ 이라고 말하고 있다(홍승용, 2008:534).

이러한 정의를 미루어 볼 때, 우리 국가와 국민의 올바른 해양의식과 평가를 하는일이 해양대국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2) 해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

미래 국가 해양전략 연구보고서(2006)에 따르면 해양의식을 형성하고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7가지로 분류하였다.³⁾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류를 수렴 및 수정 보완하여 첫째, 자연조건, 둘째, 역사, 셋째, 휴양·레저, 넷째, 직업, 다섯째, 교육·홍보 여섯째, 문화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6가지 요인 중, <표 2-3>와 같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고정요인과, 정부 및 국민의 노력에 의해 변화가 가능한 변동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2-3> 해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

고정요인	변동요인
자연조건, 역사	휴양·레저, 직업, 교육·홍보, 문화

(1) 자연조건

알프레드 마한(1980)에 따르면 ‘자연조건은 국가가 육지에서 자국을 방어할 필요도 없고 또한 육상을 통하여 자국의 영토 확장을 모색할 유혹에 빠질수도 없는 위치에 있으면 그 국가는 국경의 일부를 대륙에 접하고 있는 국가에 비해 국가 목표를 일관성 있게 해양으로 지향할 수 있어서 유리하다’ 라고 말했다.

국가의 목표가 해양으로 지향하면 그 속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의식도 해양을 향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자연조건에 우리나라는 충분히 해양으로 나아가기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조선시대 최남선은 ‘지도를 펴고 보면 조선반도에는 남방과 서방의 두 해안에 길고 짧은 무수한 팔뚝이 불쑥불쑥 내밀고 그 좌우에 깊은 후미가 졌다. 서해안의 장산곶·태안반도, 남해안의 고흥반도·고성반도처럼 이러한 지형을 지리학자들은 ‘리아스식’이라고 부른다. 조선반도의 남·서 두 해안은 리아스식 해안의 세계상에 있는 전형적인 것으로 스페인반도에 비하여도 훨씬 현저하기 때문에 학자의 중에는 이 특징을 명백히 하기 위해 새로 ‘조선식’해안이라는 명사를 만

3) 보고서에서는 ① 자연조건, ② 역사, ③ 생활, ④ 휴양레저, ⑤ 직업, ⑥ 교육, ⑦ 홍보 등 7가지 요인에 의해 해양의식이 형성된다고 보고 있다. (Arthur D Little, 2006)

들어 쓰는이가 있다' 라고 말하며, “지정확적으로 훌륭한 자연적 조건을 하늘이 주었는데 받지 않으면 도리어 그 재앙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며 우리나라의 자연조건이 해양국가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주장한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남한면적의 4.5배에 달하는 44.3km²의 배타적경제수역(EEZ)과 약 11,542km²에 달하는 해안선, 3,200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조화를 이루고 서남해의 갯벌면적은 2,393km²로 남한면적의 2.4%로서 세계 5대 갯벌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서남해와 한·난류가 교차하는 동해는 세계적 황금어장을 형성하고 남해안은 굴곡이 심한 리아스식해안으로 곳곳에 천연항구의 조건을 갖추었으며, 아름다운 다도해 풍경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은 국민들에게 해양진출의욕을 자극하고, 해양을 통해 편안함과 행복함을 주는 현실적인 조건으로 해양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영향으로 미칠 수 있다. 그러나 4계절이 뚜렷한 계절적 특성과 남북이 대치되고 있는 안보상의 제약으로 국민이 바다를 사계절 접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도 존재한다 (Arthur D Little, 2006:354).

(2) 역사

역사학자 E.H.Carr는 '역사란 과거를 연구하는 학문이지만, 그 과거에 대한 연구는 어디까지나 현재의 문제를 제대로 해명하고, 동시에 미래에 대한 전망을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라고 했다(김택현, 2007:271).

과거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감히 해양력에 의해 세계강국이 흥하고 망한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즉 역사 속의 주요 국가들은 국가 해양력 장악에 따라 국가 전성기를 이루고 동시에 국제질서를 주도함으로써 강대국으로 출현하였다.

우리나라의 해양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면 선사시대때부터 김해 패총과 동삼동 패총, 영도 영선도 패총등을 통해서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생활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4국시대(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에서는 고구려와 백제 연합군이 낙랑과 대방 등 중국세력을 축출하고 서해교역로를 장악했다. 4국 중 특히 백제는 해양활동 능력이 아주 뛰어 났는데, 백제의 나라 명칭 또한 해양과 깊은 관계가 있다. 「수서」에 따르면 백제는 '백가제해(百家濟海)라는 말의 줄임말로서, 100가(家)가 바다를 건너온 뜻이라고 하였다. 백제의 근초고왕은 북

진정책을 취하면서 평양성을 공격함으로써 남진해 오는 고국원왕을 전사시켰다(윤명철, 2003:80).

이후 828년 장보고 대사는 청해진을 설치하여 해적을 소탕하고 동아시아 해상권을 장악하여 당, 신라, 일본 간의 국제무역과 아라비아인과의 중계무역을 주도하며 우리 역사상 유래가 없는 해상활동의 전성기를 보내었다. 장보고의 해상활동이 ‘국가의 흥망성쇠’라는 역사적 관점에서 남겨준 시사점은 해양활동이 번창하면 국가번영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이다. 최남선의 평가대로 삼국시대 이래 동아시아 각 지역으로 뻗어나갔던 해상활동의 결정체로서의 ‘장보고 해상활동’은 그 당시 기준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성과를 이룩하였다(임종관, 1998:91).

그러나, 고려 말부터 극심하게 노략질을 거듭하였던 왜구의 출몰로 고려 말과 조선왕조는 ‘해방정책’ 대신 ‘해금정책’과 ‘공도정책’을 구사하였고, 이에 따라 해양력은 극도로 약화되고 나라는 문약화되었다. 그런 와중에도 이순신 제독의 임진왜란(1592년~1598년) 중 일본군에 대한 23전 23승의 멋진 승리는 세계 해전사에 길이 남을 업적이다. 러일전쟁 당시 일본 연합함대 사령관 도고 헤이하치로 제독은 대한해협 해전(1905년 5월 27일)에서 러시아 함대를 상대로 대승을 거둔 후 승리 축하 만찬자리에서 “그대야말로 영국의 넬슨보다 조선의 이순신보다 더 위대한 전략가이며, 만고의 충신”이라는 찬사를 듣자 “이사람을 영국의 넬슨에게 견주는 것도 과찬인데, 하물며 조선의 이순신 제독에게 비할 수는 없습니다. 이 도고가 열 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 해도 이순신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렵도 없는 일입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일본의 대표 작가 시바 료타로는 <언덕위의 구름>이라는 작품에서 이순신을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바다의 영웅’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김용삼, 2008:506).

이후, 숙종 때 실학파인 안용복 장군도 독도와 울릉도는 물론 대마도까지 ‘해방정책’을 적극 추진했으나, 문약한 조정은 ‘공도정책’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정책은 19세기 말 쇠국정책으로 이어졌으며, 이것은 결국 일본에 의한 36년간 나라 피탈로 연계되었다(홍승용, 2008:538).

조선의 해금정책 및 쇠국정책을 두고 최남선은 ‘한가지 바다에서 떠났다는 사실이 어떻게 많은 불행을 우리에게 가져왔는지를 모른다. 바다를 알고 지낼 시기의 영광이 어떠했음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바다를 잃어버린 뒤의 우리

의 환난이 어떻게 큰 것은 우리가 분명히 체험하고 또 지방도 그 시련의 중에 있다 할것이다'라고 말하며 조선겨레를 바다를 잊어버린 나라로써 안타까워 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으로 인해 우리의 깊은 내면에 해양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이 표출되기에는 역사적으로 큰 장애물들이 있었다.

(3) 휴양·레저

해양레저활동과 레저기술을 습득함으로써 국민들은 친해양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해양의식을 터득할 수 있다(양명환, 2002). 뿐만 아니라 해양스포츠 활동은 청소년들에게 모험과 도전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자신감과 친 해양정서를 함양하는데 가치가 크다.

해양레저 활동이라 함은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이루어지는 레저활동 중에서 공간적으로는 해역과 연안에 접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활동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양공간에 의존하거나 연관되어 이루어지는 모든 레저활동을 말한다. 해양레저는 해양의존형과 해양연관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해양의존형은 일반적으로 그 활동 유형에 따라 스포츠형, 휴식형, 관광형(탐방형)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이종열, 김수열, 2010).

<표 2-4> 해양레저 유형

해양 의존형	스포츠형	- 보딩(서핑, 워드서핑) - 요트, 보트(세일링 요트, 카누, 제트스키, 모터보트 등) - 다이빙(스노클링, 스쿠버다이빙 등) - 고무보트, 패러세일링, 수상스키, 수상오토바이 등
	휴식형	- 해수욕 (바다수영, 물놀이, 일광욕 등) - 조간대 수렵(조개잡이 등 해변 동식물 채취)
	관광형	- 바다낚시(해안낚시, 암벽낚시 등) - 해상유람(관광유람선, 여객선 등) - 해중경관관람(관광잠수정, 해중전망대 등)
해양연관형	- 비치스포츠, 모래놀이, 해변레크리에이션 활동 등 - 해안경관조망, 산책, 조깅 등 - 해양문화탐방(해양생물관찰, 문화재 답사 등)	

출처: 이수호, (2001) 「우리나라 해양레저산업의 현황과 전망」

우리나라의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다른 여가활동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대부분이 하계계절에 편중되어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윤이중·배성완·윤기운, 1999).

일본은 관광개발 전략의 일환으로 관광객의 욕구와 관련하여 종래의 관광 또는 탐방과 같은 비활동성 관광정책보다는 수영, 윈드서핑, 요트, 스킨스쿠버, 카약, 수상스키, 바다낚시 등의 해양레포츠를 통한 활동성 관광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윤이중·배성완·윤기운, 1999). 이는 해양레저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해양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해양레저를 통해 긍정적인 정서와 정서의 순화(증화)를 얻을 수 있다. 바다에 오면 사람은 본성적으로 정서를 순화시키고, 바다의 시각적인 정보는 긍정적인 정보를 주고(수평선의 푸른 해수면과 파란하늘이 이루는 경계선이 울타리처럼 느껴져 안도감, 이완, 편안함, 행복감을 느낌), 바다의 청각적인 정보는 긍정적인 정서를 주며(바다를 연상시키는 파도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인조음인 뱃고동소리 등을 통해 부정적 정서의 제거), 바다의 정서를 시각적, 청각적으로 조절하여 긍정적인 정서로 변화시킬 수 있다(윤순동, 2008).

해양스포츠의 참여는 선진국의 경우, 어릴 적 학교시절부터 참여하여 청년기까지 지속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청·장년층에서 많이 참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올바른 형태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이를 바로 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어릴 적 학생시절부터 스킨다이빙, 해양카누, 해양카약, 해양조정, 해양래프팅 등을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적극 도입해 실행해야 한다(김옥주, 2008).

(4) 직업

세계적인 여론조사들은 유능한 인력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직업에 대한 만족도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유능한 인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양활동은 가치가 있고 살아가는데 있어 필요하다고 분명하게 설득할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해양에 대한 직업의 국민들의 시각이 긍정적인지, 혹은 부정적인지에 따라 해양에 대한 의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대로 해양에 대한 의식이 해양에 대한 직업의 시각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예로부터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을 ‘뱃놈’ 갯벌을 일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존

제도 없는 ‘갯갯’이라고 일컫고, 바다를 훑어지고 사는 사람은 밑바닥 인생의 낙오자라는 생각하는것은 해양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임을 볼 수 있다.

해양·수산계 학교 학생들의 진로실태 조사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해양 및 수산업의 미래에 대해서는 중요함을 느끼고 있으나, 수·해양계 대학보다는 일반계 대학을 훨씬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김미향, 2002). 이는 우리 사회에서 해양 및 수산분야의 직업보다 기타 다른 학문의 직업을 더욱더 선호하고 가치있게 생각하는 시각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해양에 대한 다양한 직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관련 직업은 3D업종으로 지목되어 젊은이들이 해양관련 업종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발생한다. 이는 해양이 날로 중요해진다는 세계의 기조에 역행하는 행위이다.

해양직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국가 및 기관에서 아래 <그림 2-1>와 같이 교재 발간 등과 같은 몇가지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좀더 적극적이고 우선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해양관련 기관 및 직원들이 산학협동이 되어 수·해양분야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을 가지고 지도하고, 직업에 만족하는 긍정적인 의식구조로 개선되어야 한다(이길래, 2010).

<그림 2-1> 해양관련 직업 소개 책



(5) 교육·홍보

해양교육은 해양 및 해양문제에 관한 인식,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하고, 해양의 발전 및 보존을 위해 능동적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체계는 해양과 관련된 교과내용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 지식과 암기위주의 고학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다. 흥미를 유발하기보다 시험을 위한 교육내용은 어린이들의 바다에 대한 자연스러운 접근을 차단한다(Arthur D Little, 2006:360). 우리나라 교과서를 통해 본 해양교육의 문제점은 첫째, 미래 자원으로서의 바다가 다채롭게 소개되고 있지 않고, 바다가 단지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말해진다. 둘째, 바다 관련 항목과 직결된 질문 내용이 부족하고, 그 내용을 알려줄 지문이 적다. 셋째, 우리 선조들이 보여주는 해양으로의 진출은 소개하지만 그 미래적 가능성과 해양에 대한 각종 상상력을 불러낼 만한 장치가 부족하다. 넷째, 생활 공간으로서의 바다를 총체적으로 그려내지 못하고, 해양스포츠와 관련하여 그림으로 해수욕 장면만 제시될 뿐 바다가 인간에게 주는 즐거움을 놀이를 통해 다양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밖에도 바다와 관련된 직종의 종류를 골고루 보여주지 못해, '바다=선원'이란 도식만 환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다 관련 그림들이 보다 생동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바다에 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제거하고, 다른것과 상대적으로 균형감을 가질 수 있도록, 기존의 교과 내용을 재구성해야한다. 또한, 상투적인 바다 그림을 지양하고, 역사 의식이 결핍된 해양활동사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차원을 극복하고, 보다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진취적이고도 생동감 있는 바다를 실제로 들려줘야 할 것이다(최영호, 1998).

해양홍보는 해양관련 사항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해양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식토록 하고, 태도 변화를 일으켜 해양보전 역량을 배양할 뿐만 아니라, 이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게 하는 지속적이며 적극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해양홍보는 넓은 의미에서 해양교육의 한 분야라고 볼 수 있겠으나, 교육주체와 대상 및 교육의 장(場)이 다르다. 즉, 해양홍보는 대체로 주체와 대상 및 방법 등이 특정화되거나 제약을 받지 않으며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해양홍보는 크게 해양축제와 해양미디어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해양축제는 전통적으로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풍어제 및 뱃놀이 등이 있

고, 정부주도의 바다의날 축제 및 지자체에서 행해지는 바다 축제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축제들은 그 지역의 특산물이나 관광을 위주로 한 홍보행사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해양의식을 함양 할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를 제공하지 못하고, 일회성에 그치는 행사가 많다.

해양미디어는 국민들의 정서나 의식에 직접적이고 강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양관련 방송은 형태나 시간 등에 따라 국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해양의식 함양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이동근·한철환·엄선희, 2003:124).

미국에서 'Love Boat'라는 드라마를 통해 미국 국민들의 크루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영향으로 크루즈산업을 일으켰듯이 해양을 주제로 한 드라마, 영화 등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는 의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해양을 주제로 한 드라마나 영화는 찾아보기 힘들다. 몇 안 되는 프로그램 중 2004년 11월부터 2005년 5월에 방영된 해신은 시청률 30%를 돌파할 정도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다.⁴⁾ 해신은 해상왕장보고의 일대기를 다룬 최인호의 동명소설 '海神'의 원작을 재구성하여 장보고의 파란만장한 삶을 극적으로 묘사함으로써 21세기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의 주역이 될 젊은 세대에게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도전의식과 희망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이처럼 해양홍보를 통해 해양에 대한 국민의 의식변화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6) 문화

우리나라의 해양문화는 정부 및 국민의 해양의식을 반영한다. 해양문화가 해양의식을 낳고 그 해양의식이 다시 해양문화를 규정한다는 주장은 해양문화를 규정함에 있어 해양의식의 중요성을 그대로 반영한다(이동근·한철환·엄선희, 2003:78).

해양문화에 대한 객관적인 정의를 내리기는 힘들다. '해양'의 범위가 너무 넓고, '문화'의 외연 또한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이는 넓은 개념만큼 해양 문화의 영역을 확정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열린 공간으로서의 바다가 지니는 특성에 맞게 그만큼 다양한 분야를 포용할 수 있는 장점 또한 갖고 있다(이정

4) 동아일보 2005.05.26 기사 [막 내린 KBS 드라마 '해신' 인기비결은 …….]

환·최재선·김민수, 2010:91).

굳이 해양문화를 정의하고자 한다면, 해양문화는 바다와 해안, 섬, 항만이라는 공간적 현장에서 어떤 지역의 사람들이 오래 동안 살며, 일하며, 쉬는 동안에 축적되고 삶 속에 배어 있는 가치관과 삶의 양태이며,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적 범주 속에서 지향하는 가치로서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의 질을 결정하기도 하며, 결과적으로 창출되어 온 삶과 일과 놀이의 형태라 할 수 있다(김홍섭, 2010).

역사적으로 우리의 해양문화는 시대에 따라 꽃피기도 하고 암흑기를 맞이하기도 했다. ‘주고받기 식’의 해양문화 교류는 이미 고조선부터 이뤄지고 있었다. 부산, 울산, 대마도 등에서 약 6,000~7,000년 전의 한일 간 교류 흔적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해양 유적지의 분포로 보아 처음으로 해양 문화를 발전시킨 사람들은 황해에서 거주하고 있던 동이족이다(윤명철, 2004). 이후 고구려, 백제, 신라로 이어진 해양 문화의 교류는 해상교역로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과 어우러지면서 동아시아 해양문화의 큰 흐름이 되었다.

그러나 뉘뉘히 내려오던 우리나라의 해양문화는 조선시대에 들어와 크게 위축되기 시작했다. 이는 유교사상을 숭배하던 당시 시대상에 기인한 바 크다. 충효사상을 강조하고 중용을 추구하는 유교사상의 입장에서는 미지의 대상이며, 도전적이고 거친 바다를 꺼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농공상의 서열에 따라 뱃사람을 멀리하고 바다에 대한 두려움을 억압을 통해 희석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해양문화의 쇠퇴를 가져왔다.

해양 문화 활성화의 전제조건은 우선 우리 민족의 해양 정체성 재확립에 있다. 해양 정체성 재확립은 해양민족의 역사에 내재된 해양의식을 현재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고, 이를 다시 내면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바다에 대한 친밀감과 바다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토대로 시대의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새로운 해양의식을 정립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해양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이동근·한철환·엄선희, 2003:100).

우리나라 해양문화에 잠재되어 있는 해양의식에 대해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해양을 바로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역사적 정체성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해양의식 성장에 밑거름이 될 수 있다.

2. 해양의식의 실태와 해양의식 수준 저조 이유

1) 해양의식 현황

객관적인 해양의식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실증적 연구를 토대로 결과가 도출되어 있는 자료를 분석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해양수산부가 존립 하던 시절에 국민의 해양의식을 조사하기 위해 몇 번의 시도를 하였다. 그 중 2000년도에 ‘해상왕 장보고 재조명·평가사업 장기기본계획’에서 실시한 해양인식 조사와 2006년 ‘미래 국가 해양전략 연구보고서’에서 나타난 해양의식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해양의식 현황을 살펴보고, 더불어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의 해양의식조사 결과를 통해 외국의 해양의식 현황도 살펴보겠다.

(1) 우리나라 해양의식 현황

① 2000년 해양의식 조사

‘해상왕 장보고 재조명·평가사업 장기기본계획’(2000)에서 실시한 해양인식 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전화면접으로 조사시점은 2000년 3월 12일 ~3월 14일 전국 14개지역을 대상으로 비례 할당에 따른 층화무작위 추출과 임의할당 추출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본은 모집단인 전국민 분포를 기초로 한 표본수 1,200명(80%)과 15세 이상 청소년 임의 할당 표본수 300명(20%)로 총 1,500명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표본오차는 $\pm 2.8\%$ 이다.

크게 설문 문항은 바다에 대한 자유연상, 바다에 대한 관심, 국가적 자원으로서의 바다, 해양 주권에 대한 인식, 해양정책별 중요도 평가, 해양에 대한 국민 여론, 한국의 해양경쟁력에 대한 평가를 질문하였다.

바다에서 연상되는 주요 이미지는 ‘시원하다, 드넓다, 탁트인다’등 긍정적인 느낌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외 수산업, 파도 등 사물 장소와 관련된 응답이 비교적 높았다. 바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66.3% 높은편이나 청소년층의 관심도는 50.5%로 상대적으로 낮게 도출되었다. 국민의 80%이상이 바다를 중요한 국가적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청소년층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해양주권에 대해서는 국민들 대부분이 해양을 국토의 중요한 일부분

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향 후 우리나라 발전을 위한 해양정책별 중요도 평가에서는 국민들 대부분이 ‘해양 환경 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해양의 개발보다는 환경 보전, 해양 주권 강화 등에 보다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의 개발 vs 보존에 대한 국민여론에서는 보존해야한다는 의견 (78.8%)가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20.8%)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나타난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데서 출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해양경쟁력에 대한 평가에서는 한반도 주변 국가중 일본의 해양경쟁력이 한국에 비해 월등히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중국에 비해서도 우리의 해양경쟁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2-5> 해양경쟁력 설문 결과

국가	일반 국민	청소년
일본	67.1%	64.7%
중국	12.7%	12.0%
한국	9.0%	10.2%
러시아	9.0%	11.7%
모름/무응답	2.2%	1.4%
합계	100%	100%

출처: 해군사관학교, (2000) 「해상왕 장보고 재조명·평가사업 장기기본계획」

② 2006년 해양의식 조사

‘미래 국가 해양전략 보고서’(2006)에서 나타나는 우리나라 국민의 해양의식 조사는 2006년 6월 전국 6개 도시의 만 20세 이상 남녀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바다에 대한 친밀감을 물어보는 문항인 ‘나는 바다를 보거나 생각하면 기분이 좋다’라는 설문 결과 약 80%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3%만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을 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바다를 좋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과 정부의 바다에 대한 책무의 문항에서는 67%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주위 사람들에게 해양과 관련된 직업 추천의사의 문항에서는 ‘적극 지지해 주겠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20%로 바다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바다를 생활의 터전으로까지는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바다에 대한 책임감을 묻는 ‘나는 후손에게 깨끗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물려주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고 실천에 옮긴다’라는 질문에 38%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표 2-6> 미래 국가 해양전략 시민 의식조사 설문 결과

구분	바다에 대한 친밀감		바다의 중요성과 가치		바다에 대한 책임감
	친밀도	여가대상	정부와 국민의 책무	직업선택	후세를 위한 실천
아니다	3.2%	6.6%	2.1%	15.6%	7.8%
보통이다	17.2%	52.5%	30.8%	64.3%	54.5%
매우 그렇다	79.6%	40.9%	67.1%	20.1%	37.7%

출처: Arthur D Little, (2006) 「미래 국가해양전략 연구보고서」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2) 외국의 해양의식 현황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해양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도 많았다. 나라별 해양의식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같은 시기에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여야 하는게 타당하나,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의 한계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의 해양의식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표 2-7> 국가별 해양의식 조사 개요

국가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기관
미국	1999년 7월 24일 ~8월 8일	18세 이상의 성인 1,500명	Belden Russonello&Stewart and American Viewpoint :Communicating About Oceans
일본	2012년 6월 1일~ 6월 4일	전국남녀 1,000여명	일본해사센터
중국	2010년 ~2011년	18개 도시	중국해양출판사

① 미국

1999년에 Belden Russonello&Stewart and American Viewpoint 연구 조사기관이 18세 이상의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해양에 대한 의식 및 태도에 대해 무작위 전화설문조사방법을 통해 실시하였다.

<표 2-8>와 같이 크게 4분류로 나누어 각각의 설문을 제시하였는데, 미국 국민들은 대부분 바다를 강력하고, 광대하며 휴식과 재미라는 단어와 연관을 지어서 생각한다. 즉, 긍정적인 단어들을 바다와 연결하여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바다를 보호하는 것은 다른 부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시급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해양의 중요성을 피상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바다의 기능에 대한 5가지의 질문중 평균정답이 1.9(5점만점)으로 10명중 4명만 바다에 대한 기능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8> 미국 해양의식 조사 설문 항목

분 류	설문항목
해양건강의 인식 및 해양으로의 연결 (Setting the Context: Awareness of Ocean Health and Connections to the Oceans)	1. 환경 우선순위 (Environment as a priority)
	2. 해양에 대한 느낌 (휴식, 재미, 강한) (Oceans are viewed as powerful, vast, relaxing, and fun)
	3. 해양에 대한 인식 (해양을 보호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가 아니다.) (Protecting the oceans is not an urgent issue. Little awareness of ocean health.)
해양기능에 대한 지식 (Knowledge of Ocean Functions)	1. 대중은 생존을 위한 바다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The public broadly believes we need oceans for our survival)
	2. 해양에 대한 지식 시험은 낙제수준이다. (Public flunks test on knowledge of oceans)
인식증진의 장애물 (Barriers to Increasing Concern)	1.인간은 해양에 피해를 끼친다. (Oceans' size not a barrier. Despite their vastness, oceans are viewed as vulnerable to lasting damage by huma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기술은 해양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 해양은 자정능력을 가지고 있다.
	<p>2. 내인생에 해양의 건강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Public does not see individual actions as having a great impact)</p>
해양보호를 위한 책무 구축 (Building Commitment to Ocean Protection)	<p>1. 해양보호에 있어 개인의 중요성을 낮게 인식 (Currently low level of personal importance placed on protecting oceans)</p>
	<p>2. 가치의 반영으로 해양의 중요성; 자연과의 균형이 중요 -해양을 보호해야하는 이유 1) 자연균형 2)미래세대 3)인간생존 4) 아름다워서 (Importance of Oceans as a Reflection of Values: Balance of nature is key)</p>
	<p>3. 효과적인 메시지: 레크레이션, 책임, 미래 (Effective messages: recreation, responsibility, and future)</p>
	<p>4. 미국인들은 바다를 보호하기 위해 희생할 것이다. (Americans would sacrifice to protect the oceans)</p>

출처: Belden Russonello&Stewart and American Viewpoint(1999) 「Communicating About Oceans 」

② 일본

일본 해사센터에서는 매년 일본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양의식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2년 6월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우편을 통해 바다에 관한 의식의 현상 파악 및 향후 해양사상 보급을 위한 방안모색을 위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바다와의 관계, 바다의 날, 바다 월간에 대한 의식, 해양교육에 대한 의식, 일본의 해운에 대한 인식, 바다의 직업과 시책에 관한 의식으로 분류하여 아래 <표 2-9>와 같은 질문을 통해 조사 하고 있다.

<표 2-9> 일본 해양의식 조사 설문 항목

분류	설문 문항
바다와의 관계	당신은 바다를 좋아합니까?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자유회답)
	일상생활에서 ‘바다’를 듣고 떠올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다 이미지 유명인사라고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자유 회답)

바다의 날, 바다월간에 대한 의식	‘바다의 날’이나 ‘바다의 달’에 열리는 바다 관련 행사와 활동에서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바다의 날’이나 ‘바다의 동안’ 열리는 행사나 활동을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이 중 당신이 앞으로 참여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해양교육에 대한의식	4~5년동안 당신 또는 가족이 겪은 ‘해양에 관한 교육(항해교육)’은 무엇입니까?
	해양에 관한 교육(해사교육)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단체는 어느것입니까?
일본의 해운에 대한 인식	일본에서 ‘해운(해상 운송)’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자유 회답)
	수출입을 합친 일본의 무역량(총중량)의 몇 %정도가 배로 운반되어 있다고 봅니까?
	해운(선박)은 자동차, 비행기에 얼마나 환경친화적이라고 생각합니까?
	해운업의 이미지는 어떤 것입니까?
	아프리카 바다(소말리아)에서 선박이 해적에게 습격당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바다 도적문제를 알고 있습니까?
바다의 직업과 시책에 관한 의식	바다의 직업 업무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원에 관한 이미지는 어떤 것입니까?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이 선원이 되고 싶다고 하면 당신은 찬성합니까?
	무역에 종사하는 일본 상선대의 일본인 선원(외항 선원)은 약 40년 전에는 약 57,000사람이 있었습니다. 현재 몇 명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본의 해운회사가 운항하는 선박은 일본에 국적을 두는 ‘일본 국적선’과 외국 국적에 선박을 두는 ‘외국 선박’이 있습니다. 일본 국적선은 40년전 약 1,500척 이었습니다만, 현재 몇 척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본 국적 선박과 일본인 선원이 감소하여 일상 생활에 어떤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국가의 노력으로 일본 국적 선박과 일본인 선원을 증가시키기 위한 시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바다에 대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출처: 일본해사센터, (2012) 「海に関する国民意識調査2012」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일본시민들중 바다가 좋다 라고 답한 사람은 60.7%로 바다가 싫은 이유에는 바다가 두렵거나, 해일이나 지진의 무서운 영향때문이라고 답하였다. 일본에도 바다의 날이 있는데, 바다의 날이나, 바다월간에 행해지는 바다 이벤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해운에 대한 의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사람은 83.4%이다. 일본시민들이 해운을 중요하게 대답한 이유는 “섬나라 이기 때문에/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해양 국가이기때문에”등과 같은 이유로 대답했다. 해적문제에 대한 인지도는 82.2%로 높게 나타났다, 바다의 직업에 대한 인지도에서는 해상 보안청을 답한 사람이 70.4%, 선원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68.4%등으로 나타났다.

③ 중국⁵⁾

중국은 2010년~2011년 중국해양출판사와 심천호통리서치 및 중국민의리서치와 협력하여 전국 18개 도시에서 중국인의 해양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크게 7가지로 해양에 대한 첫인상, 해양지식, 해양과 생활, 해양환경의식, 해양경제, 권익수호의식, 해양정보획득, 해양관련 수업개설로 구분되어 있다.

가. 해양에 대한 첫인상

해양에 대한 중국사람들의 첫인상과 관련하여, 33.3%는 다양한 해양생물, 28.2%는 아름다운 연안풍경, 26.4%는 풍부한 해양자원, 10.9%는 해양재해를 가장 먼저 떠올렸다. 이 결과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양에 대한 아름다운 첫인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해양지식

해양지식 부분에서는 ‘중국의 관할해역이 약300만km²에 달한다’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10.7%, ‘중국의 해안선 길이가 약18,000km²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13%, ‘중국이 면적 500m²이상의 섬을 6,000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10.5%, ‘지구 표면의 71%가 해양으로 덮여 있

5) 한·중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중국인의 해양의식 조사” 참고하여 작성

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16.7%로 각각 나타났다.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대륙붕 등 해양용어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각각 5.4%, 4.0%, 4.2%로 나타났다. 또한, 설문에 답변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엔해양법협약>을 잘 모른다고 하였다. 이는 해양지식과 해양용어에 대한 중국인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다. 해양과 생활

해양과 생활 부분에서는 ‘해양이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물음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또한, ‘해양오염은 먹이사슬의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43.5%만 동의한다고 답변하여 사람들의 해양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환경 의식 질문인 중국은 해양오염이 심각하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2010년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절반 이상의 사람들은 ‘해양오염의 치유가 시급하다’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그 중 80%는 해양보호를 위하여 1위안을 기부할 수 있다고 하였다. 2011년도 조사에서는 56.3%가 해양환경보호를 위하여 경제발전 속도를 늦추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변하여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라. 해양경제

중국인의 해양경제에 대한 질문에는 중국인의 해양자원에 대한 이해 및 해양경제 의식이 부족하다고 나타났으며, 2010년 조사결과에서는 해양자원의 중요성에 대하여 23.6%가 70점 이상을 표시하였고, 해양자원개발 강화에 대하여 27.1%가 70점 이상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2011년도의 상황은 달라졌다. 57.3%의 사람들은 해양자원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국가자원전략에서 육상자원보다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중국인의 해양경제의식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마. 권익수호의식

권익 수호부분에서는 2010년도에는 ‘중국은 땅이 넓고, 자원이 풍부하므로 이

웃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경제발전에 유리한 외부조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외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개발하기 어려운 섬들과 둘러싼 분쟁을 벌이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라는 조사에서 60%이상이 찬성 또는 중립 태도를 보여 중국인의 해양국토 수호의식이 희박하다는 것을 나타냈다. 그러나, 2011년도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60%이상의 사람들이 해군력은 국력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그들은 이웃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외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개발하기 어려운 섬들을 포기하는 것에 반대하고, 그런 섬들의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중국인의 해양 권익 수호의식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바. 해양정보획득

해양정보획득부분에서는 2010년도 조사에서는 80%의 사람들은 TV를 통하여 해양정보를 획득한다고 대답하였으나, 인터넷과 신문 또한 TV못지 않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보도내용을 보면 '뉴스'는 해양정보 획득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특히, 해양재난과 분쟁 등에 관련된 뉴스는 사람들의 시선을 쉽게 이끌 수 있다. 그러나, 2011년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40%의 사람들만이 해양뉴스 홍보강화가 국민의 해양의식을 향상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답변하였다.

사. 해양관련 수업 개설

해양관련 수업 개설부분에서 2010년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초·중·고교에서 해양지식을 학습시키고, 대학교에서 해양 관련 수업을 개설하는 것에 찬성한 사람은 각각 88.0%, 85.7%로 나타났다. 2011년 조사에서는 66%의 사람들이 초·중·고교 과정에서 해양지식을 학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중국인은 학교의 해양교육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2) 해양의식수준이 저조한 이유

우리나라 국민을 뿌리 깊은 해양민족이라고 일컫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의식수준은 왜 낮게 평가되는 것인가? 해양의식수준이 저조한 요인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하여 반도국가로서의 지리학적 관점, 해금정책 및 유교문화와 같은 정책·문화적 관점, 타분야 관심 이전등과 같은 외부적 관점, 해양에 대한 체계적 교육 시스템 부재와 같은 교육학적 관점으로 살펴 볼 수 있다.⁶⁾

(1) 지리학적 관점

첫째, 지리학적 관점으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해양의식에 긍정적인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반대로 반도국가이기 때문에 해양의식이 낮아지게 된 이유도 찾아 볼 수 있다.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관문에 해당하는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는데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에 특 튀어나온 반도로서 일본열도와 중국대륙이 포위한 듯 감싸고 있어 어딘가 모르게 답답한 형국이다. 이러한 반도는 중국이라는 막강한 세력과 국경선을 접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에 국력을 집중하다 보니 바다로 뻗어가지 못했다. 또한 막강한 대륙세력인 중국과 일면을 접하고 있는 우리는 이들의 끊임 없는 침략과 압력에 대한 처절한 항전과 타협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치명적 고질이 된 북쪽으로 부터의 근심 때문에 3면을 접한 바다를 이용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한반도의 동남방을 방파제처럼 감싸고 있는 일본 열도의 존재도 우리의 해양 진출을 가로막은 또다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이동근·한철환·엄선희, 2003:21).

(2) 정책·문화적 관점

둘째,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유교사상과 해금정책 및 공도정책과 같은 바다를 멀리하는 정책 및 문화풍조로 인해 국민들의 해양의식수준이 낮게 평가되고 있

6) 미래 국가해양전략 보고서(2006)에서는 해양의식 저해 요인으로 ①연중 해양활동을 하기 어려운 기후, ②대륙 지향적 문화의식, ③ 불균형 국토개발, ④ 빈약한 해양휴양레저 인프라, ⑤ 해양직업군에 대한 낮은 매력도, ⑥ 재미있는 해양교육 프로그램 부재, ⑦ 해양 홍보채널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보고 있다.

다고 볼 수 있다. 명(明)나라가 태조(太祖)주원장 이래의 해금정책(海禁政策)을 우리나라에도 강요했던 것이 그 일차적인 이유이다. 뿐만 아니라, 공도정책(空島政策)을 실시하여, 섬에 몰래 입도한 자에 대하여는 반란죄에 준하는 극형을 처한 사례도 있었다. 이는 도서 경영론자들이 섬을 비워두면 왜구의 근거지가 될 우려가 예상된다는 극히 타당한 논리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섬을 ‘해양성을 상실한 섬’으로 남겨놓았다(강봉용, 2008:71). 그러나 보다 결정적인 요인은 우리 내부의 유교 숭상정책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충효사상을 강조하고 중용을 추구하는 유교와, 변화가 심하고 도발적이며 거친 세계인 바다는 본질적으로 조화되기 어렵다. 따라서 유교를 지배 이데올로기로 채택한 조선이 바다를 배척하고, 바닷사람을 천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적어도 지배계층에서는 바다를 향한 민족의 의지마저 스스로 꺾어버린 셈이다. 인간이 역사를 결정한다는 인문주의로적 관점에서조차 조선시대의 우리 민족은 더 이상 친해성(親海性)민족으로 보기 어렵게 된 것이다(이동근·한철환·엄선희, 2003:2).

(3) 외부적 관점

셋째, 일반대중의 해양에 대한 관심이 항공·우주분야로 옮겨간 세계적인 흐름과, 주택문제, 교통문제등 우리가 직접 살고 있는 육지의 문제들에 밀려 해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저조하다고 볼 수 있다.

(4) 교육학적 관점

마지막으로, 해양에 대한 체계적 교육 시스템의 부재이다. 대륙지향적인 역사와 오래된 내륙의식이 요인이 되어 해양 전통과 해양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지 못하다. 가령 그동안 교육되어온 역사나 해양관련 교과조차 내륙편향이거나, 왜곡되거나, 부실한 영역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와 외국의 해양교육현황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의 경우 해양을 독립 단원으로 구성한 예는 거의 없었다. 우리나라의 교육 과정에서도 해양을 독립 단원으로 구분한 경우는 없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들이 교육과정상에 해양관련 단원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나라들이 해양교육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단정해서는 곤란하다. 그들의 경우 세계관

이나 역사관이 해양 지향적이고 해양관련 역사적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일반교육과정에서 이에 대한 내용이 풍부하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해양관련 문화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사회 전반적으로 친해양문화가 조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구모룡·김정하·곽진석, 2008:63).

이러한 요인들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해운, 수산, 어촌등이 점차 퇴조하고 있는 경제·사회적 현상에 따라 국민들의 해양에 대한 관심과 태도가 저해된다고 볼 수도 있다.



3. 해양의식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해양의식을 전문적으로 다룬 선행연구는 드물었다. 간혹 보고서를 통해 나온 결과물이 조금 있을뿐 해양의식의 정의와 해양의식의 구성요소등을 연구한 논문은 찾아 보기 힘들었다. 다만, 해양의식과 유사하게 뜻을 이루는 해양문학이나 해양역사에 관한 연구는 상당부분 진행되었고,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해양의식에 관한 선행연구는 첫째, 국가 및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로 나온 연구와 둘째, 학술지 및 학회지에 나온 짧은 논문들로 분류하여 살펴 볼 수 있다.

1) 국가 및 연구기관 보고서 형태의 선행연구

국가 및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는 1998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하 KMI)에서 발간된 임종관의 ‘장보고 해상활동의 재조명과 21세기 해양사상 고취방향’ 연구와, 2003년 KMI에서 발간된 이동근 외 2인의 ‘역사와 해양의식: 해양의식의 체계적 함양방안연구’와 2003년 해양수산부에서 발간된 구모룡, 김정하, 곽진석의 ‘해양의식 고취를 위한 마스터플랜 구성연구’ 및 2006년 Arthur D Little의 ‘미래 국가 해양전략 연구’가 있다.

임종관(1998)의 연구는 장보고의 해상활동을 재조명 하여 장보고의 성공요인을 규명함으로써 그가 오늘의 후손에게 남겨준 진정한 교훈을 찾고, 장보고 및 해양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실태를 점검하여 향후 해양사상 고취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연구를 통해 해양이 중요한 구체적 이유와 해양의 국민적 효과를 인식시키는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양의 구체적 기능과 효과를 체계적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바다로 나아가 관찰하고, 도전하고, 체험하고, 실험하고, 생활해보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해양친화적인 의식을 자극하기 위해서 ‘장보고의 해양개척 및 경영모델’과 같은 해양성공사례를 인식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해양의식과 해양사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정리가 되고 있지 않다.

이동근·한철환·엄선희(2003)는 해양의식의 본질과 특성 및 21세기의 정신으로 승화시켜야 할 해양의식을 규명하고 그 함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해양의식과 관련된 선행연구가 거의 전무하다고 할수 있는 시점에 본 연구는 해양의식의 기초적인 연구로 여타 여러 연구 논문에서 인용이 되고 있다. 해양의식의 체계적 함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필자는 바다의 속성과 해양의식을 살펴보고, 동서양의 해양활동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해양활동과 문화, 해양의식 관련 정책과 교육수단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해양의식을 일깨울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광대한 문헌자료를 검토하여 해양의 역사와 해양의식의 개념을 도출하고 외국사례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해양교육의 현재를 되짚어 보았다. 하지만 역사를 중심으로 과거를 살펴보다보니 인문학적인 요소가 많았다.

구모룡·김정하·곽진석(2008)은 우리나라 해양의식을 진단하기 위해 한국과 다른나라의 해양의식을 살펴보고 21세기 세계화시대와 해양정책에 대해 검토한다. 그리고 해양의식 고취방안을 신(新)해양문화 창출과 체계적인 해양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해양문화콘텐츠 개발, 해양문화관광과 해양축제와 이벤트,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방안 수립, 해양박물관 등 해양문화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해양의식 제고, 해양교육프로그램 개발, 성인 대상 해양교육 과정개발, 해양의식 고취를 위한 공간창출, 해양의식 고취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구축과 추진체계 형성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Arthur D Little(2006)은 우리나라 해양정책 추진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래 국가 해양전략 연구를 하였다. 주요국가 해양전략을 분석하고 해양트렌드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해양력의 위치를 파악하였다. 또한 2016년 해양비전 및 전략을 제시하고 해양행정체계 개편방안을 제시하여 미래 해양국가로 발돋움 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2) 논문 형태의 선행연구

해양의식과 관련된 학술지 및 학회지에 나온 짧은 논문들은 대부분 역사학자, 민속학자들의 인문전공자들의 관점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었다.

김열규(1998)의 ‘한국인의 해양의식 논문’은 문화로서 또는 기호로서 바다를 읽고, 바다를 대하는 한국인의 의식이며 태도를 거울삼아서 바다의 모습을 비쳐내고 있다. 민속학을 전공으로 하고 있는 연구자는 신화와 문학을 통해서 바다:육지=낮음, 아래, 바깥: 높음, 위, 안 이라는 등식을 유도함으로써 대륙지향적인 우리의 사상을 말하고 있다.

이경엽(2003)의 ‘어부가·표해록·어로요에 나타난 해양 인식 태도 연구’는 고전문학과 해양의 문제가 폭넓게 다루어진 기존의 논의에서는 문학 속에 나타난 해양의 양상을 장르적 특징으로 유형화하거나 종합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여 어부가, 표해록, 어로요에 나타난 해양의 양상과 그의미, 그리고 신분과 처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해양인식과 태도를 살펴보고 있다. 연구자는 문학작품을 통해 그시대의 신분에 따라 달리 느껴지는 해양의 양상과 인식태도를 유형화 하여 정리하고 있다. 그는 바다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어민들은 바다에 대해 세분화된 인지체계를 갖고 있고, 바다를 생명의 근원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존재와의 조화를 회구하고, 더불어 생태적 순환을 고려하여 풍어를 축원하는 반면, 양반 사대부의 경우 삶 자체가 바다와 관계가 멀기 때문에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강봉용(2008)의 ‘해양인식의 확대와 해양사 연구’에서 해양사에 대한 인식의 문제를 나(저자)-우리-세계로 확대하면서 살펴보고 있다. 저자는 한국해양사를 크게 네 시대, 즉 태동기(~삼국시대), 융성기(통일신라~고려시대), 침체기(조선시대), 부흥기(해방 이후)로 구분하고, 각 시대의 타이틀을 ‘연안항로의 시대’, ‘황해 횡단항로의 시대’, ‘공도·해금의 시대’, ‘태평양의 시대’로 명명하고 있다.

해양에 대한 우리의 소극적 태도의 원인을 규명하고, 1990년대 이후에 이루어진 해양사에 대한 관심의 확대와 그배경을 살펴보고 있으며, 끝으로 해양세계와 해양인, 그리고 해양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 역시 역사학 전공자로서 역사서적 및 문헌을 통해 해양을 읽고, 그속에서 해양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세계의 인식체계를 살펴보고 있다.

이경호(2002)의 ‘한국의 해양화와 부산의 전망 연구’는 앞의 논문과는 조금 다른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그는 지금까지 해양에 관한 많은 연구가 산재해 있으나 우리나라의 해양사상과 철학에 관한 연구가 아직도 전문화되어 있지 않고, 우리 국민의 해양에 대한 의식도 많은 오류와 전도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여 해양철학과 한국의 해양화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해양의식과 21세기 부산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해양도시 부산의 미래상과 전망을 도출하고 있다. 저자는 국가의 국력과 국부의 원천인 해양부분에 있어서, 해양에 대한 국민들의 바른 인식과 평가를 하는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국가 해양산업의 미래와 국부에 대한 정확한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해양력과 국민의 해양의식의 함양을 위한 해양철학을 재정립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는 일이 21세기 해양한국 정책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설명한다.



제 2 절 해양교육 정책도구의 개념과 유형

1. 해양교육 및 해양교육정책의 개념

1) 해양교육

해양에서 발생하는 해양문제는 근본적으로 해양에 대한 인간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해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적 접근이 가장 효과적이다. 따라서 해양을 보다 깊이 있게 탐구하여 해양의 외재적 가치와 내재적 가치를 발견하고, 해양환경의 가치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해양교육이 필요하다(양명희·이두곤, 2009).

해양교육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마다 조금씩 달리 해석을 하고 있는데, 김혜민(2010)은 해양교육을 해양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고 해양 관련 문제 해결 능력과 해양에 대한 친화감과 개척의지를 높이는 제반교육활동으로 이는 해양교육을 단순히 관심이나 지식을 부여하는 것을 넘어, 해양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생활 속에서 실천적으로 해양을 배려하는 마음을 지닌 인간 육성을 위한 교육으로 설명하고 있다.

윤옥경(2007)의 연구에서는 해양 교육은 단순히 해양에 대한 교육을 넘어 해양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해양을 통해 인성을 함양하고 영역을 넓히며 각종 자원을 활용할 뿐 아니라 해양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해양교육은 해양에 대한 친밀감, 해양에 대한 기본지식, 해양에 대한 태도등과 같은 전반적인 해양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제반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해양교육은 크게 교육대상 및 교육기관의 성격에 따라 정규해양교육과 사회해양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해양교육은 <표2-10>와 같이 정규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해양교육과 국토해양부를 비롯하여 각종 단체가 수행하는 사회 해양교육으로 구분하고 있다(김성귀·홍장원·이윤정·이슬기, 2010:7).

<표2-10> 교육대상 및 주체에 따른 해양교육 분류

구분	교육주체	교육대상	교육공간	교재 등	재정
정규해양교육	자격 있는 교사	연령, 자격 제한	교실, 실험실, 자연	표준화	교육재정
사회해양교육	인물, 기관에 제한 없음	연령, 자격에 제한 없음	한정되지 않음	비표준화	사적재원, 국토해양부 예산

출처: 김성귀외, (2010) 「해양교육 계획 수립을 위한 기반 연구」

사회해양교육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시 4개의 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국토해양부 소속기관인 각 지방해양항만청을 중심으로 한 여름해양학교, 일일명예교사 등의 프로그램과, 둘째, 해양환경관리공단이나 국립수산물과학원과 같은 연구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셋째, 한국해양대, 부경대 등 대학교 소속의 교육원 및 센터와 각 지방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양소년단연맹과 같은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으로 구분지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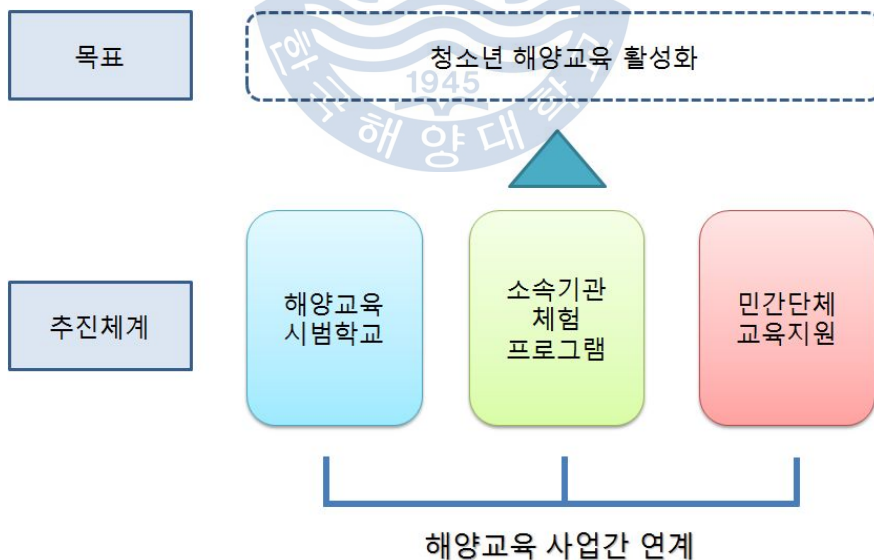
2) 해양교육정책

해양교육정책은 해양과 교육 그리고 정책이라는 독립된 단어들의 조합이다. 해양교육은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해양에 대한 친밀감, 해양에 대한 기본지식, 해양에 대한 태도 등과 같은 전반적인 해양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제반 활동으로서, 즉, 해양교육정책이란 바람직한 해양교육의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해양교육의 정책도구에 대하여 권위있는 정책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이라고 할 수 있다(정정길, 1997).

현재 해양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여 집행하는 국가기관은 국토해양부 및 산하기관으로 볼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직·간접적 교육 채널을 통해 해양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제공함으로써 해양에 대한 개척정신을 함양하고 여타 분야에 비해 인적 자본이 취약한 해양수산 분야에 우수한 인재가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 해양교육정책을 실시하고 있다.⁷⁾

<그림 2-3> 해양교육정책 기본방향



출처: 국토해양부 내부자료 참고하여 작성

7)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참고

기본방향은 크게 학교 및 사회 해양교육프로그램 지속 관리·지원과 개별 학교·단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해양교육기반강화, 그리고 개별 교육사업들을 연계·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하는데 있다.

학교 및 사회 해양교육 프로그램 지속 관리·지원은 시범학교 및 소속기관별 체험학습등 기존 해양교육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 새로운 해양교육 프로그램의 지속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한다. 그리고 개별 학교·단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해양교육 기반강화는 해양교육 포털사이트에서 개발된 콘텐츠의 체계적인 집적·관리로 온라인 기반의 교류 공간을 활성화 하고, 해양교육 교재 및 다양한 콘텐츠의 지속적인 개발과 보급 및 관리강화 와 민간단체 지원 활동을 통해 해양교육 인프라를 구축한다.

개별 교육사업들을 연계·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 구축에서는 체계적인 해양교육을 위해 전문가 그룹, 교사 및 해양교육 관련 관계자의 워크숍을 통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양교육발전협의회와 해양교육관련 정보 교환을 통해서 내실화를 도모 한다.

해양교육정책 목표를 실현하기위해 여러 가지 방안으로 세부 추진과제를 실시 하고 있는데, 이는 아래 <표 2-11>와 같다.

<표 2-11> 해양교육정책 세부 추진과제

구분	세부추진과제	추진주체
학교/사회 해양교육프로그램	해양교육시범학교	지방청/각급학교
	소속기관별 해양체험프로그램 운영	소속기관
	한국해양소년단 연맹활동 지원	한국해양소년단
	해양교육동아리활동지원	한국해양재단
	청소년 해양체험학습	한국해양재단
	장보고 해양학습실 설치	한국해양재단
해양교육 기반강화	해양교육 교재 개발	한국해양재단
	해양교육 포털사이트 운영 및 콘텐츠 개발	한국해양재단
개별교육사업간 연계	해양교육관계자 워크숍 개최	한국해양재단 해양정책과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	소속기관

출처: 국토해양부 내부자료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세부추진 과제별 예산배분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2011년에 비해 2012년 예산이 현저히 증가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한국해양소년단 연맹활동 지원에 900백만원이 증액된 것이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기타 다른 세부 추진과제는 미세히 예산이 줄어든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2-12> 해양교육정책 예산 <단위: 백만원>

세부추진과제	2011	2012	비교
해양교육시범학교	200	200	-
소속기관별 해양체험프로그램 운영	455	455	-
한국해양소년단 연맹활동 지원	300	1,200	▲900
해양교육동아리활동지원	100	50	▼50
청소년 해양체험학습	-	40	신설
장보고 해양학습실 설치	-	100	신설
해양교육 교재 개발	141	145	▲4
해양교육 포털사이트 운영 및 콘텐츠 개발	164	100	▼64
해양교육관계자 워크숍 개최	50	30	▼20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	소속기관 체험PG에 반영추진	소속기관 체험PG에 반영추진	-
합 계	1,416	2,325	▲909

출처: 국토해양부 내부자료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2. 해양교육 정책도구 유형

정책도구는 정책수단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실제로 동원하는 수단과 장치로써, 정부의 개입수단, 변화를 위한 정책설계의 요소, 사회변화기법, 실제의 정책수단과 장치 등으로 설명할수 있는데(정정길, 1997:66~67), 정책도구에 대한 개념은 <표 2-13>과 같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정의되고 있다.

<표 2-13> 정책도구의 개념 정의

학자	정의
Schneider and Ingram(1990)	개인이나 집단들이 공공정책에 부응한 결정을 내리거나 행동을 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사용하는 개입수단 (means of intervention)
Schneider and Ingram(1997)	공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책대상집단의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정책설계의 요소들 (elements in policy design)
Vedung(1998)	정부가 사회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활용하는 기법 (techniques)
Howlett and Ramesh(2003)	정책집행을 위하여 정부가 사용가능한 실제 수단 및 장치 (actual means or devices)
Doern and Phidd(1983)	정책행위자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것
Salamon(2002)	공적 문제를 접근하기 위하여 집합적 행동이 구조화되는 판별가능한 방법 (idenifiable method)
Howlett(2005)	국가권위의 활용 혹은 의도적 제한을 수반하는 거버넌스 (governance)기법

출처: 전영한, (2007) 「정책도구의 다양성, 도구유형분류의 쟁점과 평가」

정책도구를 분류하는 모형도 다각도로 연구되고 있는데, 정책도구를 구분하여 분석하는 기법은 하나의 도구 안에서 공통된 특징을 지녀야 하며, 나머지 도구와는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류숙원·김상운, 2010:115). 이러한 정책도구를 분류하는 모형을 학자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 2-14>와 같다.

<표 2-14 >정책도구의 유형 분류

학자	유형
Hood(1983)	정책수단이 정부의 어떠한 역할을 위해 사용되는가? 정책수단의 사용에 정부의 어떠한 자원이 투입되는가?
McDonnell & Elmore(1987)	명령(mandates), 유인(inducements), 역량구축(capacity building), 체제전환(system changing)
Schneider & Ingram(1990)	권위적 수단(authority tools), 유인적 수단(incentive tools), 역량구축 수단(capacity tools), 상징적 수단 (symbolic or hortatory tools), 학습적수단(learning tools)
Vedung(2005)	규제(sticks), 경제(carrots), 정보제공(sermon)

출처: 류숙원 외,(2010) 「정책도구의 선택이 중소기업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이 중에서 본 연구는 Vedung의 분류에 따라 규제적, 경제적, 정보제공적으로 나누고 여기에 조직적이라는 정책도구를 추가하여 해양교육정책도구를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⁸⁾

<표 2-15> 해양교육 정책도구

정책도구	해양교육 세부 정책도구
규제적 정책도구 Sticks (Regulation)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경제적 정책도구 Carrots (Economic means)	해양교육시범학교
	해양교육동아리지원
	씨그랜트
정보제공적 정책도구 Sermons (Information)	해양포털사이트운영 및 콘텐츠개발
	해양교육 교재개발
	소속기관별 해양체험프로그램운영 및 청소년 해양체험교육
조직적 정책도구 (Organization)	해양교육 관계자 워크샵
	해양교육발전협의회

8) Vedung은 자신의 삼원론이 현존하는 모든 정책도구를 포괄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모형은 조직형태(organizational forms)등을 정책도구의 적용을 위한 전제조건이지 정책도구 그자체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최근 각국의 정부들은 전통적인 정부조직에 의한 위계제적 방식의 거버넌스를 탈피하여 정책수행에 있어서 많은 준정부조직, 민간조직을 개입시키는 네트워크 방식으로 거버넌스를 이행하고 있다(전영환, 2007). 따라서 본 연구는 Vedung의 분류를 수렴하고 더불어 조직적 정책도구를 추가하여 분류를 하고자 한다.

1) 규제적 정책도구

규제적 정책도구는 법률적 속성을 갖는 도구로 행위의 표준화를 목적으로 정부가 국민에게 공식화된 규칙(formulated rules)에 의해서 행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오민수, 2010, p.33).

해양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령은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 관한 법률뿐이다.

한국해양소년단 연맹의 설립목적은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해양에 관한 교육 훈련을 통하여 해양사상을 고취하고 투철한 국가관과 진취적인 기상을 함양하여 해양개발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근거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법률 제 8852호, 2008.2.29 개정)로 1984년 12월 31일에 이 법률을 제정 공포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양소년단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의 주요 기능은 해양 정신에 입각한 청소년육성, 해양소년단 기본 방침의 설정 및 발전책 강구, 각종 해양훈련 및 스포츠 활동과 국내외 청소년 단체와의 협력 활동, 해양사상 고취를 위한 각종 행사지원 및 간행물 발간,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환경보호 및 보전 관련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오충용, 2007).

이러한 해양교육과 관련된 법률이 아주 협소한 반면, 환경교육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제는 비교적 발달되어있다. 환경교육은 환경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 국가수준에서 법적 및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였다. 환경교육진흥에 관한 실질적인 법률은 현재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으로, 지금까지 환경교육 실시에 대해 법적 기반이 없던 것을 그 근거를 제시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의 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소정의 자격을 갖춘 사회환경교육지도사와 검증된 환경교육인증 프로그램 활용 및 일정한 기준을 갖추고 지역별로 지정된 환경교육센터 등을 통해 질적으로 향상된 환경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대학(원)에서 환경 관련 전문 교육을 받은 우수한 환경 전문인력의 제도적 활용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였다(최석진,2010).

이러한 환경교육진흥법도 제정에 있어서 몇 번의 시도와 실패 그리고 또다시 도전하는 역경의 시간을 거쳐 법으로 제정이 되는 결실을 맺었다. 해양교육 역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2) 경제적 정책도구

경제적 도구는 재정적인 유인책을 활용하는데, 규제적 도구보다 강제성의 정도가 낮다. 이는 정부가 시민들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혹은 박탈하여 특정한 행동이 더 많이 일어나기 쉽도록 하거나 더 어렵도록 만드는 것으로 자원배분과 관련이 있다(오민수, 2010: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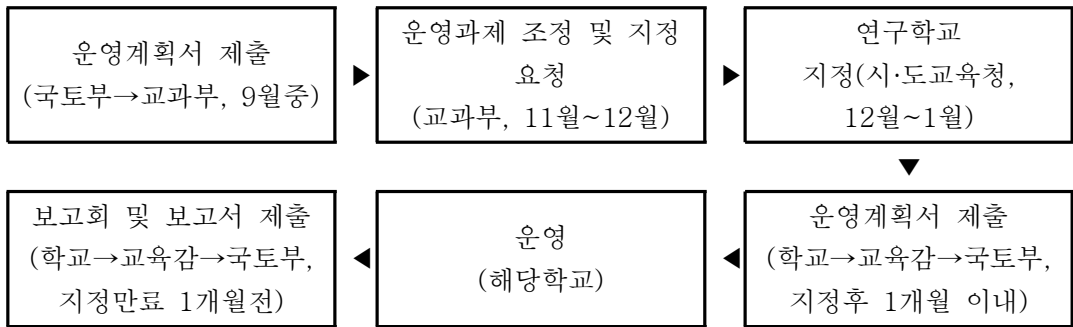
해양교육의 경제적 정책도구로는 해양교육 시범학교, 해양교육 동아리 활동지원, 씨그랜트 프로그램이 있다.

(1) 해양교육 시범학교

해양교육 시범학교는 일선학교에서의 해양교육을 통한 청소년 해양탐구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2002년도부터 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1983년부터 이어온 ‘해양탐구 시범학교’가 이어져 온 것이다. 2002년도에 2개 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해왔으나, 관심부족 및 예산 미확보로 폐지 위기가 있어 산하단체의 지원을 받아 2004년도부터 확대하였다. 해양교육시범학교 선정은 국토해양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운영과제를 조정 및 지정을 요청한다. 이후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연구학교를 공모하여 학교측에서 교육감에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 선정되면 국토해양부에도 운영계획서를 제출한다. 해당학교는 1~2년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지정만료 1개월전 보고회 및 보고서를 제출한다. 2012년 현재 지정된 학교는 부산진여자중학교를 포함하여 20개 학교가 있고 진행 절차는 아래 표와 같다.⁹⁾

9) 2012년 해양교육시범학교는 대전천동초, 계화중, 사계초, 부구초, 정평초 부산진여중, 시흥고, 교동초, 영문중, 대남초, 인천공항고, 대덕초, 마량초, 남해중, 굴화초, 임원초, 원덕중, 동명중, 상대초, 의성초가 있다. (국토부 내부자료 참고)

<표 2-16> 해양교육시범학교 진행절차



출처: 국토해양부 내부자료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2) 해양교육 동아리 지원

해양교육 동아리 활동 지원은 교사 및 학생들에게 해양교육의 학습효과 제고를 위하여 관심 있는 부문에 대한 직접적인 탐구·연구·개발을 통하여 심도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해양을 주제로 활동하는 동아리들의 신청서를 접수 후 선정하여 동아리당 지원금을 교부하고 동아리 활동 후 결과보고서 및 성과물 제출을 필수로 하여 활동내역 등을 검토하여 우수동아리 시상을 한다. 신청자격은 초·중·고등학교 동아리로 학생 10인 내외에 지도교수 1인 내외로 해양관련 단체 동아리가 가능하다. 2010년 20개, 2011년 20개, 2012년 15개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는데 동아리당 최대 250만원 이내 차등지급을 하고 있다.

(3) 씨그랜트 프로그램

씨그랜트 프로그램은 1968년에 미국에 도입된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대학의 우수한 연구능력 등을 해양분야의 발전에 활용하고자, 2000년부터 우리나라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씨그랜트 프로그램은 해양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가교로서 정부, 대학, 산업계 및 과학자와 일반 시민 사이에 해양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데 <그림 2-3>와 같이 현재 연방정부의 NOAA를 중심으로 연안, 해양 및 오대호 부근의 32개 지역에서 300개 이상의 기관, 3,00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지역 해양에 관련된 현안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확고히 자리잡고 있다.

<그림2-3> 미국 전역의 SeaGrant 분포도



출처: www.noaa.gov

한국의 씨그랜트 프로그램은 사업초기에는 개별 연구자를 통한 연구과제 수행에 집중하여 왔으나 2004년부터 지역대학 사업단을 지정하면서 지자체·기업·연구소 등 해양관련 협력주체 간의 네트워킹을 활성화하고, 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6개의 지역대학 센터¹⁰⁾를 지정하여 보다 특성화된 지역 현안문제 발굴 및 해결은 물론 축적된 다양한 해양관련 인프라를 통한 대민·교육활동을 병행하고 있다(김성귀·홍장원·이윤정·이슬기, 2010:19).

10) 6개의 센터는 한국해양대(영남씨그랜트센터), 목포해양대(호남씨그랜트센터), 인하대(경기씨그랜트센터), 포항공대(경북씨그랜트센터), 충남대(충청씨그랜트센터), 제주대(제주씨그랜트센터)가 있다.

<표 2-17> 한국 씨그랜트 연도별 예산 현황 및 연혁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한국 씨그랜트	179억원	45억원	45억원	42억원	49억원	50억원	5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02월: 대통령 주요업무 보고(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 추진) ○ '00.03월: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Korea Sea Grant Program, KSGP) 기본 계획 수립 ○ '00.04월: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 출범 ○ '04.03월: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 중장기 개선방안 수립 ○ '04.12월: 영남씨그랜트사업단 지정 ○ '06.01월: 호남씨그랜트사업단 지정 ○ '04.02월: 경기씨그랜트사업단지정 ○ '08.01월: '지역R&D 역량강화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과 지역 MT특성화 사업 2개 세부기술 추진 ○ '09.07월: 경북/제주/충청 씨그랜트사업단 지정 ○ '09.11월: 제1회 씨그랜트사업 성과발표회 및 국제워크숍 개최 ○ '10.02월: 씨그랜트사업 운영위원회 구성 ○ '12.03월: 씨그랜트사업단에서 씨그랜트센터로 명칭 변경 							

출처: 김성귀외, (2010) 「해양교육 계획 수립을 위한 기반 연구」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3) 정보제공적 정책도구

정보제공적 정책도구는 도덕적 설득 혹은 권면과 관련이 있으며 물적 자원이거나 강제적 의무를 개입시키지 않고 오로지 논증과 정보 및 지식의 전달만을 통해 시민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브로셔, 팜플렛, 경고문, 포스터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방법들이다(오민수, 2010:33).

정보제공적 정책도구에는 해양교육 교재 개발과 해양교육 포털사이트 운영 및 콘텐츠 개발과 소속기관별 청소년 해양교육체험이 있다.

(1) 해양교육 교재개발

해양교육 교재 개발은 해양의 다양한 분야를 쉽게 접할 수 있고, 현장에서 교재 활용도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주로 학습만화 형태의 교육교재를 개발하는데 2008년 해양과학 워크북부터 시작하여, 해양직업, 해양산업, 해양문화등과 같은 주제를 선정하여 발간하고 있다.

<그림 2-4> 해양교육 교재



출처: 국토해양부 내부자료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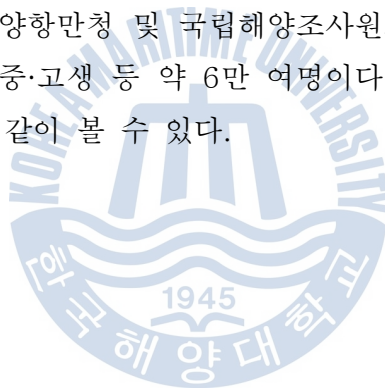
(2) 해양교육 포털사이트운영 및 콘텐츠 개발

해양교육 포털사이트 운영 및 콘텐츠 개발은 포털 사이트에 해양교육프로그램을 집적하여 체계적 관리 및 홍보를 강화하고, 다양한 해양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로 해양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지역별·권역별 해양체험지도 ROM(Regional Ocean Map)제작, 중등교과관련 동영상을 개발한다. 또한 포털사이트(www.ilovesea.co.kr)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해양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었으나, 2012년 9월을 기점으로 포털사이트(www.ilovesea.co.kr)는 다른 홈페이지와 통합되어 접근이 불가능해졌다. 사업의 종료로 인한 예산지원이 불가능하거나, 관리상의 문제로 인해 통합된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일본의 해양교육사이트가 장기적으로 자료 업로드 및 관리가 잘 되고 있는것과 비교가 된다. 해양교육 포털사이트는 현장접근이 어려운 학생이나 학부모 그리고 교사에게 자료의 장(場)이되고 해양에 좀 더 가까이 접근 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이트의 폐쇄는 해양의식 제고에 있어 문제점이 될 수 있다.

(3) 소속기관별 해양체험프로그램운영 및 청소년 해양체험교육

소속기관별 해양체험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바다현장 견학, 해양레포츠체험 등 생생한 학습기회 부여로 체험교육프로그램의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실시한다. 추진기관은 지방해양항만청 및 국립해양조사원으로 약 13개 소속기관이 실시하고 교육대상은 초·중·고생 등 약 6만 여명이다. 기관별 청소년 해양체험 프로그램은 <표2-18>와 같이 볼 수 있다.



<표 2-18> 소속기관별 청소년 해양체험 프로그램

기관명	사업명
국립해양조사원	① 일일해양명예교사
부산 지방해양항만청	①청소년 마리나 아카데미, ②여수엑스포 현장 체험, ③부산항 투어
부산 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①요트운항체험, ②해양레저 학교, ③청소년여름 해양학교
인천 지방해양항만청	①바다퀴즈 대회, ②바다그리기 대회 지원, ③모형배만들기 지원, ④등대체험교실, ⑤갯벌체험교실, ⑥대이작도해양보호구역탐방, ⑦인천왕산요트스쿨, ⑧'개항의 역사'스토리텔링코스견학, ⑨해양교육시범학교 교사초청 세미나 ⑩'인천바다안내지도' DB제공시스템구축
여수 지방해양항만청	①여름해양학교, ②갯벌생태학교, ③해양교육발전협의회, ④해양 스포츠체험, ⑤청소년요트·보트체험행사, ⑥등대체험교실
마산 지방해양항만청	①카약,카누체험행사, ②요트체험행사, ③연안크루즈체험행사, ④어촌마을체험, ⑤여름해양학교, ⑥해양만화/캐릭터 공모전, ⑦바다의 날 그림그리기
울산 지방해양항만청	①열린바다학교, ②해양스포츠 체험교실
동해 지방해양항만청	①가족이 함께하는 해양레포츠 체험, ②초등학생 해양레포츠 체험, ③중고생해양레포츠 체험, ④해양분야 사진공모전, ⑤청소년 바다 사랑 등대해양학교 1945
군산 지방해양항만청	①일일해양학교, ②일일해양명예교사, ③해양레포츠 체험교실, ④바다사랑 문학행사 공모전, ⑤문학기행·섬문화탐방, ⑥청소년 해양체험활동, ⑦푸른바다로 떠나는 해양가족 래프팅, ⑧세계인과 함께 느껴보는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⑨ 꿈을 안고 바다로
목포 지방해양항만청	①어린이 그림그리기대회, ②청소년 해양체험캠프, ③청소년 해양 문화탐방, ④청소년 여름해양학교
포항 지방해양항만청	①청소년 해양레포츠 체험교육
평택 지방해양항만청	①서해바다학교 운영, ②해양레포츠 체험교실, ③해양과학교실, ④찾아가는 해양환경교실
대산 지방해양항만청	①충청바다학교, ② 선박승선체험행사, ③ 여름해양학교

출처: 국토해양부 내부자료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4) 조직적 정책도구

조직적 정책도구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양교육 관계자 워크숍과 해양교육발전협의회가 있다.

(1) 해양교육 관계자 워크숍

해양교육 관계자 워크숍은 2008년부터 시작하였는데, 해양교육 관계자들의 해양에 대한 이해 및 관심을 유도하여 해양교육 강화를 위한 기반 및 지원 그룹을 구축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는 해양교육 최일선에 위치한 교사, 관련기관 관계자들의 해양교육능력을 개발하고 참여자간 자유로운 토론을 통하여 일선학교 현장에 적합한 해양교육 강화를 위한 실현가능 방안을 도출한다.

참가대상은 시·도 교육청 관계자, 해양교육시범학교 교사,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 국토해양부 및 소속기관 관계자 및 해양교육에 관심있는 교사이다. 주요 내용은 해양분야 전문가 특강과 해양체험교육, 해양관련시설 및 현장을 견학하고 해양교육 우수사례 발표 및 운영정보를 공유 및 토론한다. 그리고 교육관계자 세미나 및 해양문화 컨텐츠 시연 및 시상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2011년에는 7월과 11월에 1차와 2차로 2회에 걸쳐 실시하였지만, 2012년도에는 1회만 실시 하였다.

(2) 해양교육발전협의회

해양교육발전협의회는 해양교육관련 정보교환을 통해 교육프로그램 공동개발 등 해양교육 내실화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부산의 해양교육발전협의회 같은 경우, <표 2-19>와 같이 2001년 7월 25일(수)에 시작하여 매년 1~2회 회의를 개최하여 해양관련 유관기관이 한자리에 모인다.¹¹⁾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해양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유관기관간의 협조체제 구축,

11) 부산해양교육발전협의회에 참여하는 기관은 부산광역시 교육청, 부산광역시 과학교육원, 부산광역시 서부, 남부, 북부, 동대, 해운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 해양자연사박물관, 부산광역시 수산진흥과, 국립수산물학원, 수산인력개발센터, 수산과학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경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영남씨그랜트센터, 부산과학기술협의회, 부산아쿠아리움, 해양환경교육개발원으로 총 12개기관이 있다.

체험학습 중심의 전문적인 교원 해양직무연수과정 운영, 해양시범학교 운영 및 해양탐사활동 협조, 기관과 연계한 해양과학체험활동 실시가 있다.

<표 2-19> 부산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연혁

제 목	날짜	참석 대상
해양교육관련 유관기관 담당자 협의회 개최	2001.7.25(수)	과학교육담당장학관 외 6개기관 11명
해양교육발전협의회 개최	2001.8.8(수)	과학기술과장 외 6개 기관 19명
2001년도 하반기 해양교육발전협의회	2002.1.23(수)	과학기술과장 외 6개 기관 17명
2002년도 전반기 해양교육발전협의회	2002.6.18(화)	과학기술과장 외 6개 기관 18명
2002년도 하반기 해양교육발전협의회	2003.1.17(금)	과학기술과장 외 6개 기관 19명
2003년도 해양교육발전협의회	2003.11.7(금)	과학기술과장 외 6개 기관 27명
2004년도 해양교육발전협의회	2004.12.15(수)	과학기술과장 외 6개 기관 28명
2005년도 해양교육발전협의회	2005.12.27(화)	과학기술과장 외 8개 기관 31명
2006년도 해양교육발전협의회	2006.12.14(목)	과학기술과장 외 9개 기관 30명
2007년도 해양교육발전협의회	2007.12.12(수)	과학정보기술과장 외 9개 기관 30명
2008년도 해양교육발전협의회	2008.12.12(금)	과학정보기술과장 외 11개 기관 30명
2009년도 해양교육발전협의회	2009.12.11(금)	과학정보기술과장 외 11개 기관 30명
2010년도 해양교육발전협의회	2010.12.13(금)	과학직업정보과장 외 11개 기관 29명
2011년도 해양교육발전협의회	2011.12.16(금)	과학직업정보과장의 12개기관 29명

출처: 부산 해양교육발전협의회 내부자료(2011) 참고하여 작성

3. 해양교육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해양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교육학적 관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에는 김영수(1998)의 ‘해양탐구교육을 위한 학습지도방안 연구’와 김삼곤(2009)의 ‘수산·해운계 고등학교 해양교육의 목표영역과 내용영역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지리교육안에서의 해양을 살펴본 윤옥경(2006)의 ‘해양교육의 중요성과 지리교육의 역할연구’에서는 현재와 미래의 자원으로써 해양의 중요성과 육지와 해양 중간지,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위치적, 국제정치적 특성을 고려할 때 해양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해양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해양교육의 방향을 해양에 대한 관심과 국민적 소양을 넓히는 것으로 설정하고 해양교육의 틀을 해양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인성교육, 영역(영토)교육, 경제교육, 자원 및 환경교육 요소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해양관련 지식들은 학생과 일반 국민이 해양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외국의 교육과정에서 해양교육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교육학적 관점이 아닌 기타 다른 시각으로 살펴본 해양교육 관련 연구도 많지는 않지만 찾아 볼 수 있었다.

김혜민(2010)의 ‘한국 해양교육의 특징과 발전방안 연구’는 사회학적 관점으로 살펴보고 있다. 한국의 해양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회학자의 시각으로 말하고 있다. 저자는 삶의 터전이고, 생계의 수단으로 해양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기능적 가치 중심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현재의 해양관을 비판하고 앞으로의 해양정책과 일상적인 해양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변화에서 해양교육을 텍스트로 삼았는데, 그 이유는 교육이야말로 현재 해양에 대한 생각들과 미래의 생각이 그리고 현재 해양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가장 적나라하게 밝혀내주는 수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 밝히고 있다. 따라서 해양교육의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중심에 문화적 가치를 창조하고, 해양교육의 내용강화 및 지식적용과 체험축적 교육을 실시하고, 체험학습의 다양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경신(2008)의 ‘일본 초등학교의 해양교육 강화방안과 시사점 연구’에서는 해양교육의 선진국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일본의 해양교육정책과 법 및 제도를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해양교육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최영호(1998)의 ‘국민해양의식 고취와 교육문제연구’에서는 바다의 중요성을 육지와 상반된 입장에서만 강조하는 태도를 청산해야 하고 바다를 자연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 교과서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는 바다에서 알고 찾고 가꾸는 바다로 다시 이해하고 교육의 현장에서 이를 항구적으로 배우는 바다로 재교육 해야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살아 있는 바다를 담은 문화적 담론 개발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핵심인 해양의식과 해양교육을 연계한 연구에 대해서도 살펴 보겠다. 앞서 언급했다 싶이 해양의식과 해양교육을 연계한 교육은 환경교육에서 해양환경교육을 중심으로 실시한 사례가 전부였다.

정화성(2009)의 ‘해양환경교육이 해안지역 초등학생들의 바다환경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는 해안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해양환경교육이 바다환경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을 분류하여 해양환경교육을 투입하여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실험집단(해양환경교육 실시)이 통제집단에 비하여 해양환경의 인식, 해양환경의 관심, 해양환경의 태도, 해양환경의 활용, 해양환경의 보존에서 높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따라서 해양환경교육은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의 해양환경 인식과 관심, 태도, 기능, 활용, 보존을 형성하는데 있어 의미가 있으며, 바다와 함께 하는 교육을 통해 바다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형성해 가는 바람직한 교육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재영(2006)의 ‘해안지역과 내륙지역 중학생들의 해양생물에 대한 인식의 비교연구’에서는 해안지역과 내륙지역간 중학생들의 해양생물에 대한 인식 정도의 차이를 알아봄으로써 해양생물교육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해안지역 3곳(학생 270명), 내륙지역 3곳(학생 270명) 표집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해안과 내륙의 해양생물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몇몇 종에서만 그 차이를 보였으며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해양생물과 수산물로 이용되는 해양생물에 대해서는 두 지역 모두 높게 나타났으나 해안지역

학생들의 빈도수가 더 높게 나왔다. 또한 두 지역의 학생 모두 해양생물의 세부 종류에 대해서는 잘알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해양생물에 대해 인식도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해양생물을 접하는 경로는 TV나 매체로 접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교과서로 접한 경우가 낮게 나왔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는 정책학적 혹은 행정학적 관점을 통해 바라본 해양의식과 해양교육 및 해양교육 정책도구의 연구는 전후무후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양의식의 의의와 실태를 살펴보고 해양교육 정책도구의 개념과 유형을 분류한 후, 해양교육 정책도구의 해양의식 수준에대한 영향 관계를 통해 해양교육 정책도구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의 해양의식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제 3 장 외국의 해양정책 및 해양교육 정책도구 검토

해양력을 구성하는 국민과 정부의 성격이 반영되는 것은 해양정책이다. 외국의 해양정책은 해양보전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를 들어, 일본의 해양정책 목표는 '해양을 알고, 지키고, 이용한다'이고, 미국 또한 지속가능한 관리에 의한 깨끗하고 안전하며 풍요로운 해양과 연안을 목표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고, 중국도 해양의 개발, 통제, 관리능력의 향상에 주력하기 위해 해양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주요 해양국들의 해양정책은 공통적으로 해양 부문의 통합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국가해양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고위급으로 이루어진 해양정책 태스크포스(Ocean Policy Task Force)를 구성하였으며, EU는 2007년 10월 10일에 '통합해양정책(An integrated Maritime policy for the European Union)'을 발표하였다. 일본은 2007년에 '해양기본법'을 제정하고 해양의 종합 관리를 위한 조직으로 수상을 본부장으로 하는 종합해양정책본부를 신설하였으며, 중국은 2008년 7월 국가해양국의 해양업무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다(박광서·황기형, 2009:40).

이하에는 국가별 해양정책 및 해양교육정책과 그 정책의 세부도구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제 1 절 미국

국가전체의 해양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은 국가차원에서 해양교육을 실시한다.

미국이 해양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려는 이유는 해양은 식량과 의약품의 근원이고 기후변화를 조정하며 에너지를 공급하고 일자리를 창출등 국가 경제를 지원하며, 다른 어떤 자원으로도 얻을 수 없는 지구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때문이다. 또한 해양에 대한 탐사는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한 생태계의 시스템과 과학의 깊은 내면을 알 수 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해양이 제공하는 수많은 이익과 미래 발견될 잠재성을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해양에 대해 긍정적인 연관성, 즉 해양의 필수적인 요소들이 인간 생존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이러한 연관성은 해양환경에 대한 관심, 흥미, 책임감 있는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된다. 즉, 이러한 관심은 해양관리 능력개발 향상과, 국가 과학활용능력 강화, 그리고 새로운 세대의 해양리더를 육성하는데 핵심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미국은 지속적인 해양교육을 통해 해양에 대한 긍정적인 연관성을 확대하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U.S commission on Ocean Policy, 2004:85).

1. 해양정책

미국은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에 해양의 역할과 가치가 매우 크다고 인식하여 국가 차원의 해양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해양의 중요성에 비해 해양과 해양 자원에 대한 부적절한 관리로 충분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정책 수립의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2000년 미 의회에서 ‘해양법(Ocean Act of 2000)’을 제정하여, 이 근거를 통해 해양관련 전문가와 각계 대표로 구성된 ‘국가해양정책위원회(US Commission on Ocean Policy)’를 설치하여, 국가 해양정책을 제시하도록 결의한 이후, 이 기관을 중심으로 해양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2004년 9월, 해양정책위원회는 ‘21세기 해양청사진(An Ocean Blueprint for the 21st Century)’이라는 국가 해양정책에 관한 최종연구보고서를 제출하였고, 2004년 12월 부시 정부는 해양법(Ocean Act of 2000)에 따라 해양정책 실행계획서인 ‘US Ocean Action Plan’을 발표하였다.

<표 3-1> 미국 해양정책 변천사

시기	내용
2000년 8월	‘해양법(Ocean Act of 2000)’ 제정
2004년 9월	21세기 해양 청사진 보고서 발표 (An Ocean Blueprint for the 21st Century)
2004년 12월	U.S. Ocean Action Plan 발표
2009년 6월	해양정책테스크포스 설치
2009년 9월	해양테스크포스 중간보고서(Interim report of The interagency ocean Policy Task Force, 2009) 발표
2010년 7월	최종 권고안(Final Recommendations of The Interagency Ocean Policy Task force) 발표 해양과 연안 오대호 관리 대통령령(Executive Order 13547 --Stewardship of the Ocean, Our Coasts, and the Great Lakes) 공포

2000년 기준 미국 해양의 경제적 가치는 1,170억달러였으며, 해양과 관련된 직업은 200만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중 해양의 경제적 가치의 50% 이상, 해양관련 직업의 75% 이상이 레저와 관광부문에서 창출되고 있다. 바다에 인접한 모든 지역에서 창출하는 부는 2000년 기준 4.5조 달러, 미국 GDP의 50%이상을 기여하고 있으며, 미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해안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미국도 예외 없이 연안지역이 각종 오염으로 파괴되고 있으며, 대부분 육상기인 오염으로 연안해역의 부영양화, 중금속 오염으로 수산자원 고갈 및 습지파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해양파괴 행위는 생태적 균형과 인간의 건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까지 파괴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인애, 2006:96~97).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미국 정부 당국은 해양에 대한 관리를 위해 해양의식 및 해양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데 21세기 해양청사진 보고서에는 특별히 해양교육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파트(Ocean Stewardship: The Importance of Education and public Awareness)가 있을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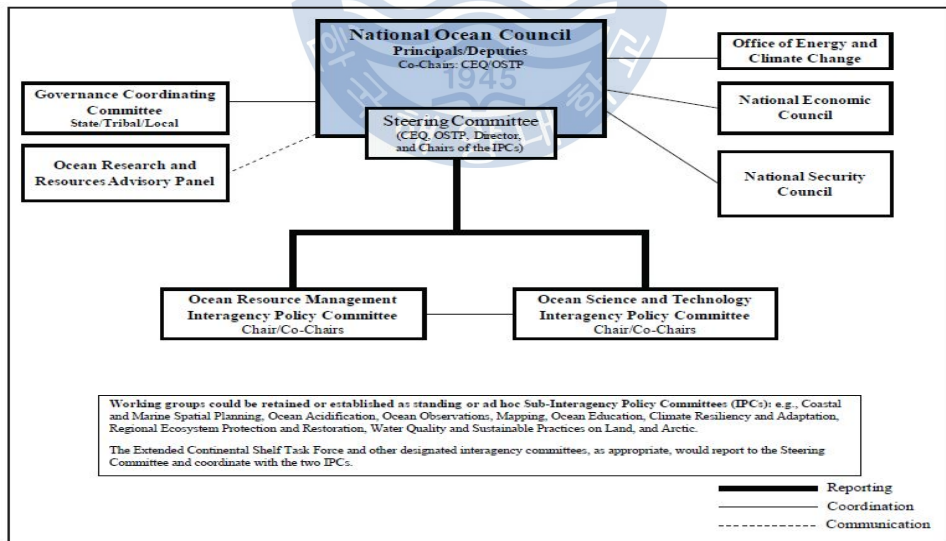
그 후, 2010년 7월 19일 오바마 정부에 의해 발표된 ‘해양정책 테스크포스 최종 권고안(Final Recommendations of The Interagency Ocean Policy

Task force) 에서는 별도로 해양교육부분을 다루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해양관리를 위한 대중의 인식과 교육의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 권고안에는 미국이 추구해야할 9개의 우선목표를 확인하고 있는 이행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중 세 번째에는 ‘정보의 결정과 이해의 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양과 연안 그리고 5 대호에 관해 대중에게 더 나은 교육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었다.

또한, <그림 3-1>와 같이 해양정책 조정 프레임워크에서 국가해양위원회(NOC) 산하에 해양교육(Ocean education)을 담당하는 작업반(working group)이나 정부통합해양정책소위원회(Sub-interagency Policy Committee)에서 해양교육관련 활동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를 살펴 미루어 짐작하건대, 미국의 해양교육은 미국 해양정책의 이행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어 오고 있으며, 국가차원에서 해양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을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3-1> 미국 행정부의 해양정책 조정 체계 (해양교육 포함)



출처: The White house 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2010) 「Final Recommendations of the interagency ocean policy task force」

2. 해양교육 정책도구

미국은 1929년부터 국가연구위원회(National research Council)에서 해양지식의 진보는 많은 해양관련 교육기회를 가진 풍부하고 능력있는 해양관련 인력에 달려있음을 강조해 왔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지식기반의 경쟁사회, 기술기반의 경쟁에 있어서, 그리고 해양 및 연안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있어서 해양에 대한 지식과 다양한 기술경험이 많은 인재에 대한 필요성은 시급히 요구되고 있었다.

미국은 해양교육의 강화를 위하여 해양의식을 강화하고 해양교육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국가해양협력법’의 제정을 하였고 「국가해양교육청」에 대해 설립을 권고하였으며 NOC(National ocean Service)의 관리 하에 해양교육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해양교육의 교류를 확대하고 교사의 역량 개발 및 온라인, 체험학습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Arthur D Little, 2006:111).

또한, 미국은 우수해양과학교육센터(COSEE)를 설립하여 매년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해양교육프로그램과 해양교육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우수해양과학교육센터는 해양교육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를 ‘Ocean Literacy (해양의 이해)’로 설정하여 해양교육에 필요한 7가지 기본원리를 제시함으로써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유치원생부터 12학년까지 학년별로 필요한 세부적인 교육프로그램과 교육방향을 개발하여 해양교육을 시스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COSEE가 설립된 2002년 이후, 현재 12개의 지역별 COSEE센터¹²⁾가 미국 전역에 설립되어 있으며, 각 지역별 센터는 해양연구기관, 정규 교육기관과 비공식 교육기관 사이에서 파트너를 형성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¹³⁾

이러한 COSEE는 ‘해양이 개인의 삶의 질과 국가 번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깊

12) 2012년 7월 30일 COSEE홈페이지 검색 결과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하와이, 보스턴대학교 등 12개의 지역별 센터가 있었고, 이전에 제정을 지원한 센터가 5개(오대호, 뉴잉글랜드등) 있었다.

13) COSEE센터는 해양연구를 실시하는 연구자들과 기관들 사이의 연결 고리를 확립하고, 다양한 공동체에 교육 및 외부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교육에 관련된 연구자들에게 전문지식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교육기관 및 교사들이 정규교육 커리큘럼에 해양과학교육을 포함하도록 인센티브 및 협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양연구 결과를 교육자료에 반영하여 사용하도록 교육자료 개발 및 배포를 증진하고 있다. (COSEE 홈페이지 참고)

은 이해의 촉진을 구현하기위해 연구하는 과학자와 교육자의 협력을 장려하고 증진하는 것' 을 목표로 설정하여 실현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해양교육 정책도구는 아래 <표 3-2>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표 3-2> 미국의 해양교육 정책도구

정책도구	세부정책도구
제도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해양협력법 ▪ 국가해양교육청 설립 권고
경제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대기청(NOAA)예산의 연장선상에서 해양교육청사업과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기금 제공 ▪ 해양대기청은 해양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연방 및 비연방 기관들에게 해양교육청 기금을 분배 ▪ 해양대기청, 국립과학재단, 해군연구실, 항공우주국등에서 해양관련 교육을 지원 ▪ 우수해양과학교육센터(COSEE) 및 SeaGrant Program 예산 지원
정보제공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교육 표준에 부합하는 해양 관련자료와 사례를 선정하고 개발하는 작업 ▪ 국가해양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인턴제, 해양실습등 교육 제공, 해양대기청과 관련된 업무를 익힐 수 있는 훈련프로그램 운영) ▪ 해양과학 분야의 주목할만한 성과에 사람들이 즉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비공식적인 교육시설들과 협력해서 새로운 과학 기반 자료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시민들과 언론에게 전달
조직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및 연구 전문가들간의 효과적인 관계 수립을 위한 커뮤니티 형성 ▪ 해양교육과 해양주인의식 프로그램에 기업분야와 언론의 참여 독려

출처: US commission on Ocean Policy, (2004) 「An Ocean Blueprint for the 21st century」 참고하여 재구성

제 2 절 일본

일본은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가이면서 전형적인 도서국으로 영해 및 배타적경제 수역(EEZ)의 면적은 국토면적의 약 12배에 해당하는 약 447만km² (그중 영해는 43만km²)이고, 해안선의 연장은 약 35,000km에 달한다. 일본인은 오랜 옛날부터 인간이나 문화의 왕래, 물자의 수송, 산업, 생활 등의 분야에서 바다와 밀접한 관계에 있어, 매년 7월 제3월요일을 바다의 은혜에 감사함과 동시에 해양국가, 일본의 번영을 바라는 국민축일 「바다의 날」을 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이 해양과 특별히 관련이 많은 국가라는 표시이기도 하다(구모 룡·김정하·곽진석, 2008).

하지만 일본의 해양교육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교과서 내용에 해양과 관련된 내용이 적고, 안전상의 이유로 바다와 가까운 학교조차도 해양체험교육을 기피하는 등, 해양에 대한 실습의 기회가 많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일본 국민들의 해양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낮은 것을 인지한 정부는 2007년부터 해양기본법과 해양기본계획등을 수립하여 해양교육 강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1. 해양정책

일본은 해양정책에 대한 거시적이고 효과적 대응체계 구축을 의미하는 해양기본법을 2007년 7월 20일에 시행하였다. 이로써 과거 국토교통성, 경제산업성 등의 부서가 분담하던 일본의 해양정책은 일원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일본의 해양정책 전반에 대한 첫 기본법이기도 한 해양기본법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내각에 ‘종합해양정책본부’를 설치하고, 총리가 해당 본부의 본부장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해양정책담당대신’이라는 직책 역시 신설되었다. 기본법의 추진목표는 해양에 있어 전 인류적 과제에 대한 선도적 도전과 국민생활의 안정 향상, 그리고 해양과 인류의 공생에 대한 공헌이다. 이를 위한 기본이념으로 해양개발 및 이용과 환경보전과의 조화, 해양안전 확보, 해양에 관한 과학적 지식의 충실, 해양산업의 건전한 발전, 해양의 종합적 관리와 국제

적 협조가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 전략으로는 국가, 지방공공단체, 사업자, 국민의 책무를 명시하고 해양기본계획을 수립하려 하고 있으며 해양에 관한 시책의 기본사항 정립과 함께 종합해양정책본부 설치를 통해서 전략을 이루고자 하고 있다.

<표 3-3> 일본 해양기본법의 구성

조항	내용	조항	내용
제1조	(목적) 해양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	제21조	해양 안전 확보
제2조	해양개발 및 이용과 환경 보전과의 조화	제22조	해양조사 추진
제3조	해양 안전 확보 대책 수립	제23조	해양과학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추진 등
제4조	해양에 관한 과학적 지식 도모	제24조	해양산업 진흥 및 국제경쟁력 강화
제5조	해양산업의 건전한 발전	제25조	연안역의 종합적 관리
제6조	해양의 종합적·일체적 관리	제26조	이도(離島) 보전 등
제7조	해양정책에 관한 국제적 협조	제27조	국제적인 연대 확보 및 국제협력 추진
제8조	(국가책무) 종합적·계획적 해양정책 수립 및 시행의무	제28조	해양에 관한 국민의 이해 증진 등
제9조	(지방공공단체책무)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따른 시책수립 및 시행의무	제29조	해양시책의 집중·종합 추진을 위해 내각에 종합해양정책본부 설치
제10조	(사업자책무) 국가와 지방공공단체가 시행하는 해양정책에 협조	제30조	(소장사무) 해양기본계획안 작성 및 실시 추진에 관한일 행정기관이 기본계획에 의거 실시하는 시책의 종합조정 및 기타

출처: 박춘호 외 (2008) 「신해양시대 신 국부론」 p85~86 참고하여 저자재구성

<표 3-3>에서 볼수 있듯이, 일본은 2007년 ‘해양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해양교육의 정책 또한 발전하게된 계기가 된다.

해양기본법 제 28조에서는 ‘해양에 관한 국민의 이해 증진 등’에서 해양교육의 중요성 및 보급을 규정하고 있는데, 28조 1항에서는 국가가 국민의 해양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에서 해양에 관한 교육의 추진,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협약 및 해양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이용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인 제도에 관한 보급 및 계발, 해양에 관한 레크레이션의 보급등을 위해 필요한 조취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리고 2항에서는 해양에 관한 정책과제에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능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대학 등에서 학제적인 교육 및 연구가 추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되어있다.

<표 3-4> 일본의 해양교육 관련 규범

시기	구분	주요 내용
2007년 4월	해양기본법 (제 28조)	해양에 대한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 의무 명문화 해양 정책에 부합되는 인재양성 및 학제적인 교육 및 연구 추진
2008년 3월	해양기본계획 (제2부)	해양에 관한 국민의 이해 증진과 인재 육성 - 해양에 대한 관심 제고 - 차세대를 주역인 청소년 등의 해양에 관한 이해 증진 - 새로운 해양입국을 뒷받침하는 인재 육성
2008년 2월	초등학교 해양교육의 보급추진에 관한 제언	해양교육의 개념 정의 초등학교 해양교육 보급 추진을 위한 5가지 방안
2010년 3월	중학교 해양교육의 보급 추진에 관한 제언	중학교 해양교육의 필요성과 보급추진에 관한 제언 각 학년에 맞는 해양교육 커리큘럼 제시

출처: 김경신, (2008) 「일본 초등학교의 해양교육 강화 방안과 시사점」 p3 참고하여 재구성

2007년 해양기본법 제정후, 기본법에 매 5년 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된바, 2008년에 일본이 5년동안 추진해야할 정책과 세부과제들이 포함된 해양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기본계획중 제 2부에서 해양교육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일본의 해양기본계획은 ‘해양의 지속적인 이용과 보전’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제2부 중점추진 해양정책에서 국민의 해양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조치를 시행해야하고, 청소년 등 해양에 대한 이해 증진을 높이는 제도 마련 및 학제간 교육활성화, 산업계와 연대한 교육 추진 및 일반 시민의 해양 재교육등의 제도를 추진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후, 같은해에 해양기본법과 해양기본계획의 해양교육 강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초등학교에서 해양교육의 보급추진에 관한 제언’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보고서를 발간한 일본의 해양정책연구재단은 7년간에 걸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양과 관련한 다양한 학습지원 활동을하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 교육에서의 해양교육의 보급추진 방향에 대해 교육관련 지식인들과 함께 연구를 한 기관이다. 이기관은 해양의 종합 관리 및 해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해양 관계 사업 및 해양 관계 사업에서 상호 관계를 심화하면서 국제성을 높이고 사회 공헌에 이바지하는 정책 등과 같은 실현을 목표로 각종 사업을 전개하고있는 공익 법인이다.¹⁴⁾ 여기서 발행된 ‘초등학교에서 해양교육의 보급추진에 관한 제언’의 보고서는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양교육의 개념정의와 초등학교 해양교육 보급 추진을 위한 5가지 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5가지 방안에는 첫째, 바다에 관한 교육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교육 내용 및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있고, 둘째, 해양교육을 보급하기 위해 학습환경을 정비하는 것, 셋째, 박물관, 수족관, 대학 및 연구기관등 과 같은 외부 지원체제를 강화하는 것, 넷째, 해양교육의 담당자인 인재육성을 하루 빨리 양성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내용이나 지도방법, 교육의 효과측정을 위한 모델 개발, 커리큘럼의 개발과 같은 해양교육에 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김경신, 2008).

하지만, 보고서에서 첫째로 주장하는 바다에 관한 교육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추상적으로 정책을 제시하는데 머물고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신속하게 명시하기 위해 후속 연구과제로 ‘21세기 해양교육에 관한 그랜드 디자인(Grand Design for Ocean Education in the 21st Century)’을 제시하였다.

‘21세기 해양교육에 관한 그랜드 디자인’은 학교교육에 초점을 맞춘 내용으로 해양기본법의 이념뿐만 아니라, 교육관계 법령이나 국가가 나타내는 교육 과정과의 정합성을 중시하여 제시하고 있다.

14) www.sof.or.jp (일본 해양정책 연구재단)홈페이지 참고

2. 해양교육 정책도구

2010년 일본의 해양교육 현황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해양교육은 다면적·다층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박물관이나 지역단체 및 조직, 특정 비영리 주체와 지자체 및 부처에서도 관여하고 있어 중층적인 형태로 활동하고 있다. 본 조사는 15개의 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에 의한 의견조사와 인터넷 사이트, 문헌 및 자료를 병행하여 해양교육정보를 수집하였다(社団法人 海洋産業研究会, 2010).

일본은 학교 교원의 해양에 대한 전문지식의 부족을 박물관이나 활동법인과 같은 외부기관과 협력 및 연계하여 해양교육을 추진하여 보완하고 있었다. 고등교육은 바다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의 육성에 노력하면서, 초등·중등 교육에 대한 해양교육 프로그램은 해양에 대한 친밀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이 행해지고 있었다.

일본의 정부차원 해양교육프로그램으로는 B&G를 살펴 볼 수 있는데 이 재단은 국토교통성을 주무관청으로 하고 1973년 3월 28일에 설립되었다. 설립목적으로는 일본을 4방향으로 둘러싸여있는 푸른바다와 이에 따르는 녹색국토를 보호하고 발전하기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양 레크레이션 사업을 실시하여 해양사상을 보급함과 동시에 해양국 일본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주요사업은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드웨어적 건축 설비, 해양 리더의 개발, 조직의 창조 및 해양레크레이션 제공이다. 처음에는 모터보트 경주를 통해 제기된 자금을 사용하여 전국 480개 도시와 마을에 B&G 해양스포츠센터를 구축하여 배치하였다. 이들은 수영장, 보트하우스, 체육관 등으로 활용되어 매년 11만 사람들이 사용하는 체육시설로 갖추어지고 있다.¹⁵⁾

2011년 B&G재단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해양교육사업으로 해상에서 해양관찰을 통해 바다와 배의 관계를 학습하는 자연체험활동에 481명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 되어 있다. 또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양체험세미나를 실시했는데 약 240명이 참가했다. 이밖에도 학교교육과 연계한 해양체험 프로그램 보급, 해양사고를 제로로 하는 홍보활동, 고급 아쿠아 강사 교

15) www.bgf.or.jp (B&G홈페이지 참고)

육 세미나 및 국제 교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1년 10월 5일에 내각총리대신에 공익전환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2년 4월 1일 받게 되어 독립적으로 공익재단법인으로 인정받아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밖에도 일본은 해양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단체, 학교와 연계하여 전국 및 지역 레벨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해양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만들어진 해양 종합 포털 사이트인 '海の仕事.com'은 해양단체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홍보는 물론 해양과 관련된 각종 직업을 소개하는 등 청소년에게 해양의식을 심어주고 있다.

<그림 3-2>海の仕事.com 사이트



출처: 海の仕事.com 사이트

'海の仕事.com'은 최근 일본이 강화하고 있는 해양교육의 취지에 맞춰 현장의 교육 관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조선, 해운, 해양 레저 등 3개의 해양 산업과 함께 선원 교육, 해양 안전, 해양 활동 등 해양교육의 3개 콘텐츠는 비주얼한 이미지와 사진을 통해 관련 업무와 단체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특히 '海の仕事.com'은 청소년이 바다의 일에 동경을 가져, 장래의 진로로서 선택하는 계기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이 직접 사이트를 통해 지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초·중학교의 선생님이 학교교육 중 해양과 관련한 산업에 대해 가르칠 때 사용할 수 있는 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학부모들에게 학생들의 진로 결정에 조언할 수 있도록 해양과 관련한 산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김혜민, 2011:76).

제 3 절 중국

중국은 1만 1,840km의 해안선, 6,500백개의 도서, 3백만km²의 관할해역을 보유하고 있다. 명나라 시대에 3,500척의 군함과 콜롬부스가 신대륙을 발견(1492년)하기 87년전 Zheng Ho(鄭和) 제독의 남지나해, 인도양, 홍해, 동아프리카 해까지 대항해를 한 역사가 있다. 그 이후 명 말-청 초까지 약 400년간 해금정책의 결과로 서양열강의 침입이라는 굴욕의 역사를 맞았다.(이인애, 2006)

즉, 역사적으로 전형적 대륙 중심의 국가 정책을 펼쳤던 중국에게 해양은 단순한 안보상의 경계선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79년 표방한 개혁개방정책이 1990년대 본격화되면서 연해 지방을 중심으로 중국 경제발전이 급성장하기 시작하였다.¹⁶⁾ 이에 따라 바다를 활용한 국가경제 성장이라는 새로운 가능성과 해양을 적극 활용한 국토정책으로의 방향 전환 필요성이 내부에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한국해양연구원, 2011:325).

1. 해양정책

2003년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공동으로 ‘전국해양경제발전계획’을 발표했는데, 이계획은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해양 경제 구조를 고도화하고 해양산업을 기간산업으로 발전시킬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추진사업 및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후 수립된 중국의 해양정책에 큰 영향을 주었다(박광서·황기형, 2009:45).

2005년 10월에 발표된 ‘제11차 국가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이하 11·5계획)’에서는 해양산업 분야를 독립된 장으로 편성하였다. 11·5계획에 나타나 있는 해양산업의 발전방향은 아래와 같다.

16) 중국 전체 육지 면적의 약 11%, 인구의 약 36%에 달하는 연해지방정부(9개의 省정부와 3개 직할시)의 중국 GDP 비중은 2001년 55.4%에서 2008년 62.6%까지 상승하고 있다 (한국해양연구원, 2011)

<표 3-5> 중국 11·5 계획의 해양산업 발전 방향

구분	주요 내용
해양의식의 강화	대국민 해양 기본의식 및 교육 보급 각급 지도층에 대한 해양의식 및 지식 재교육
해양권익의 수호	영해 및 EEZ 내에서의 권익 보호 활동 강화 분쟁 도서에 대한 주권 관리 강화 자원에 대한 권익 수호
해양생태의 보호	발해, 장강 입구, 주강 등의 생태 악화 완화
해양자원의 개발	EEZ, 대륙붕, 국제 자원 개발
해양종합관리 실시	해양행정의 통합관리 등

출처: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2007) 「2006~2010년 중국의 해양정책 방향은?」, p1~2

11·5계획에서도 해양의식강화를 위해 대국민 해양기본의식 및 교육보급을 해야한다는 부분과 특별히 각급 지도층에 대해서 해양의식과 해양지식에 대한 재교육을 통해 교육이 전파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다.

2008년 2월 21일에는 국가해양국(SOA)이 ‘국가해양사업 발전계획 요강’을 공포하였다. 이 요강은 중국 최초의 총체적인 국가해양계획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해양강국 건설을 이룩하려는 중국의 해양산업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수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2020년까지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박광서·황기형, 2009:46).

또한, 이 요강에서는 해양인재 육성 및 교육 강화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해양인재 육성 및 교육에 대하여 체계적인 해양교육의 기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해양지식에 대한 보습을 위한 초·중학교 과정 해양교육 전개, 해양직업교육을 강화하여 해양 전문기술 인재양성, 해양 관련 교육 커리큘럼을 조정하고, 해양 관련 대학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해양고등교육의 수준 제고, 해양과학 보급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 관련 도서 출판 및 국가해양박물관 등 해양과학보급관 건설을 신속히 추진 중에 있다.

2011년 6월 8일 세계 바다의 날을 맞이하여 중국 국가해양국(SOA)은 향후 5

년간 해양분야의 중점사업과 추진방향을 밝혔다. 이 계획에서는 해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의 해양산업 발전 촉진을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발전전략을 수립 및 시행하고, 해양의 개발·통제·관리 능력의 향상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이 계획을 통해 발표된 국가해양국(SOA)의 주요 업무는 크게 6대 중점사업과 6대 능력향상 과제로 <표 3-6>와 같다.

<표 3-6> 중국의 해양분야 6대 중점 사업과 6대 능력향상계획

번호	6대 중점사업	6대 능력향상
1	해양발전전략수립 및 해양개발계획과 입법강화	해양재해 예방·예측능력 향상
2	연안통합관리 강화 및 해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촉진	해양권익수호를 위한 집행능력 향상
3	해양환경보호 및 해양생태환경 개선	극지과학 탐사·연구능력 향상
4	해양분야 중점 인프라사업 추진 및 해양발전공간 확장	해양자원의 개발과 보호 및 종합관리능력향상
5	해양권익수호 및 관할해역 관리강화	국제해양사무 교류협력 강화 및 협상능력 향상
6	해양홍보 및 사회해양인식 강화	해양기초기술, 미래기술, 핵심기술에대한 연구능력향상

출처: 박문진(2011) 「해양산업동향」, p6

중국은 또한 이러한 해양법률 개선에 앞선 국민들의 해양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내고 있다. 중국은 해양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해양생물과 바다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바다로 나아가서 체험을 해야 하고, 바다에서 발생하는 동적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바다와 관련된 전국대회등을 개최하여 시민들이 바다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메스미디어를 활용하고 해양과학교육을 실시하여 과학적 합리적 해양교육과 교사중심의 해양교육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해양관련 인원과 종사자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¹⁷⁾

17) 中国海洋在线, 「提高海洋意识 完善海洋法律」(해양의식을 제고하고 해양법률을 개선) 기사(2012.01.21) 참고

2. 해양교육 정책도구

현재 중국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지리학 과목 등을 통해 해양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 좀 더 전문적인 해양관련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대학 학부부터 전공과목을 개설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해양학 관련 대학은 중국해양대학을 들 수 있다. 2006년 교육부와 국가해양국(SOA)이 협력하여 중국해양대학교에 중국해양발전연구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상해해사대학교, 대련해사대학교, 절강성해양학원, 상해수산대학, 대련수산대학, 영파대학, 복주대학, 하문대학, 대련교통대학 등에서도 해양관련 전문인재 배양을 목표로 교과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김성귀·홍장원·이운정·이슬기, 2010:39~40)



제 4 장 해양교육 정책도구가 해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설계

제 1 절 설문지의 구성

1. 종속변수 (해양의식 수준)

해양의식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연구자에 따라 자의적으로 척도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타당성 혹은 신뢰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또한, 해양의식과 관련된 연구는 극소수였고, 일부 해양의식을 다루는 대부분의 연구는 연구자들의 관심분야에서 응용적으로만 적용되고 있을 뿐 해양의식이란 무엇인지, 해양의식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등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표 4-1>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기존의 해양의식을 측정하는 연구는 대부분 학교 교육 및 교육학에서 많이 활용되었다.

<표 4-1> 해양의식 선행연구 척도

연구자	대상	연구에서 사용된 해양의식 척도
여수 남산초등학교 (2006)	학생	해양교육관심도, 직업의 선호도, 해양관련 체험학습 선호도
	교사	해양 교육 수업 운영 여부, 해양교육자료 활용경험 여부
	학부모	여수 앞바다의 오염실태, 해양교육의 필요성 조사
포항 상대초등학교 (2011)	학생	해양에 대한 관심, 해양기초지식, 해양체험 및 교육실태
	교사	해양교육에 대한 관심, 해양교육의 이해 및 필요성 해양교육 지도능력
인천 공향중학교 (2011)	학생	해양에 대한 관심도, 해양에 대한 이해도 해양환경보존에 대한 실천의지
	학부모	해양에 대한 관심도, 해양에 대한 이해도 해양 체험활동에 대한 참여의지
	교사	해양교육에 대한 관심도, 해양교육에 대한 이해도 해양교육에 대한 실천의지
부산 내성초등학교 (2010)	학생	해양에 대한 관심도, 해양에 대한 이해도, 해양에 대한 실천의지
	교사	해양에 대한 관심도, 해양에 대한 이해도, 해양에 대한 지도능력

	학부모	해양에 대한 관심도, 해양에 대한 이해도, 해양에 대한 실천의지
김성귀, 홍장원등 (2010)	교사	해양교육 실천의지, 해양교육 관심도, 해양교육 필요성, 해양교육 효과, 해양교육 효과적인 방법
	학생	해양교육 경험유무, 해양교육 관심도, 해양에 대한 이해도, 해양교육 실천의지, 해양교육 필요성, 해양교육의 효과적인 방법, 해양교육 효과
해양수산부 (2000)	청소년 및 일반	바다에 대한 자유 연상, 바다에 대한 관심 국가적 자원으로서의 바다, 해양주권에 대한 인식 해양정책별 중요도 평가 해양의 개발 및 보존에 대한 국민 여론 한국의 해양경쟁력에 대한 평가
해양수산부 (2006)	20세 남녀	친밀도, 여가대상, 정부와 국민의 책무, 직업선택, 후세를 위한 실천
일본 해사센터	전국 남녀	바다와의 관계, 바다의 날에 대한 의식, 해양교육에 대한 의식, 일본의 해운에 대한 인식, 바다의 직업과 정책에 관한 의식
중국 해양출판사	전국 남녀	해양에 대한 첫인상, 해양지식, 해양과 생활, 해양환경의식, 해양경제, 권익수호의식, 해양정보획득, 해양관련 수업개설
정화성 (2009)	초등학생	해양환경에 대한 인식, 해양환경에 대한 관심, 해양환경에 대한 태도, 해양환경에 대한 기능, 해양환경에 대한 활용, 해양환경에 대한 보존
박귀임 (2005)	일반인	해양이용실태(해양에 대한 정보원과 경험), 환경가치관과 환경교육에 대한 태도, 해양환경교육 수혜 여부, 체험환경교육질문
이한민 (2005)	초등학생	해양환경 지식(해양환경 일반, 해양오염의 원인, 해양오염의 종류, 해양오염의 피해, 해양보존의 중요성), 해양환경 태도(해양환경 보전의 생활화, 해양환경에 대한 흥미와 관심)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해양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설정하는 것이 해양에 대한 관심(혹은 관심도)이다. (김성귀, 여수남산초, 포항상대초, 인천공항중, 해양수산부 연구 등) 환경의식 또한 환경에 대한 관심을 척도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환경에 대한 관심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부터 환경보호를 지지하는 것까지의 현상의 넓은 범위와 관련한 넓은 개념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를 해양에도 적용 시킬 수 있다. 즉, 해양에 대한 관심은 해양 자체에 대한 친근감을 나타내는 의식측면과 해양과 관련된 내용 및 그 내용을 알기위해 노력하는 행동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측정하기위해, 바다에 대한 친근감과 해양관련 내용에 대한관심, 해양관련 책읽기, 해양관련 사이트 방문을 설문문항으로 제시하고, 답변은 리커드 척도 5단계로 구성하여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로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양에 대한 지식은 전반적인 해양과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경험과 기본적 이해를 통한 사실, 개념, 혹은 관념으로 정의 할 수 있다. 해양에 대한 지식을 측정할 때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자의적으로 자신의 지식을 측정하도록 문항을 제시한다. 가령, '바다 자원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까?' 혹은 '해양환경이 오염되는 원인을 알고 있습니까?'라는 문항을 통해, 표면적으로 개인의 의지에 따라 지식이 측정될 뿐, 실질적으로 해양지식을 알고 있는지, 혹은 알고 있는 정보가 정말 옳은 정보인지에 대해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산 내성초등학교 연구에서는 해양이해도 평가지¹⁸⁾를 자체 제작하여 학생들이 알고 있는 해양지식에 대해 지적평가를 실시하였다.

미국의 해양의식 조사에서도 해양의 기능에 관련된 질문 5가지를 제작하여 응답자에게 답을 선택하게 만들어 측정을 하기도 하였다.¹⁹⁾

본 연구는 해양에 대한 전반적인 기능과 세부적인 기능을 질문문항으로 하여 O,X로 답변할 수 있는 7가지 질문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7개를 모두 맞춘 응답자는 5점, 5~6개 맞춘 응답자는 4점, 3~4개를 맞춘 응답자는 3점, 1~2개를 맞춘 응답자는 2점, 모두 틀린 응답자는 1점으로 수치화 하였다. 질문 문항은 미국의 조사연구문항 (Belden Russonello&Stewart and American Viewpoint, 1999)등을 참고하여 작성 후 전문가 검토를 통해 안면타당성을 확보 하였다. 또한, '해양에 관한 지식을 알고 있다'라는 질문과 '해양에 관한 지식을 많이 알고

18) 부산내성초등학교는 해양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하기 위해, 해양이해도 평가지를 개발하였는데, 해양생물·에너지, 조선, 항만, 환경, 직업으로 나누어 학생들이 주관식으로 답변을 적게 하고, 평가 기준표를 별도로 제작하여 지적평가를 실시하였다. <부산내성초등학교 연구보고서, 부록 참고>

19) 1999년 Communicating about oceans의 연구에서는 강수량과 기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지구순환인지 바다인지에 대한 질문과 지구상의 식물과 동물이 땅에서 많이 발견되는지, 해양에서 많이 발견되는지, 혹은 동등하게 발견되는지와 같은 질문을 통해 해양에 대한 지식을 측정했다.

노력한다'라는 설문문항을 추가로 제시하여 해양지식을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의식의 향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꺼이 하는 태도이다 이러한 자발성은 해양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가져오고,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할 수도 있다. 태도는 행동을 결정하는 심리적 요소이며,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예측하려 할 경우에 가장 많이 언급된다. 해양에 대한 의식조사에서 태도에 대한 변수를 활용한 선행연구는 해양환경을 주제로 한 교육학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이를 토대로, 해양환경 보전 캠페인 참여와 해양관련 직업의 인지, 해양관련 직업 추천의향, 해양관련 직업 종사 의향에 대한 설문을 제시하여 5점척도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독립변수 (해양교육 정책도구)

해양교육 정책도구는 이론적 검토에서 살펴본 9개의 세부해양교육 정책도구의 인지여부를 알아보고자 한다. 가장 효과적인 검증방법은 해양교육 정책도구의 수혜를 받은 대상과 받지 않은 대상의 해양의식차이를 검증하는 것이나, 해양교육 정책도구를 수혜받은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을 나누는 것이 불분명하고, 또한 9개의 정책도구의 영향력을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부 해양교육 정책도구를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서은선(2009)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일부 수정하여 세부 해양정책도구를 들어본적이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질문을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3. 통제변수 (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인구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구성하였다. 통제변수는 외재적 변수로 일종의 그 영향을 검토하지 않기로 한 변수를 말한다(남궁 근, 2003). 인구학적 특성에는 성별, 연령, 학력수준을 포함하여, 응답자가 해당되는 부분에 응답 할 수 있도록

록 하였다.

위의 변수를 통해 만들어진 설문지는 아래 <표 4-2>와 같다. 즉, 종속변수는 해양의식이고, 독립변수는 해양교육 정책도구 9개의 인지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해양의식에 미치는 요인의 우선순위와 저해요인, 증진방안과 함께 해양의식에 영향을 주는 정책도구 및 해양의식 증진을 위한 추가 세부 정책도구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목척도를 통해 설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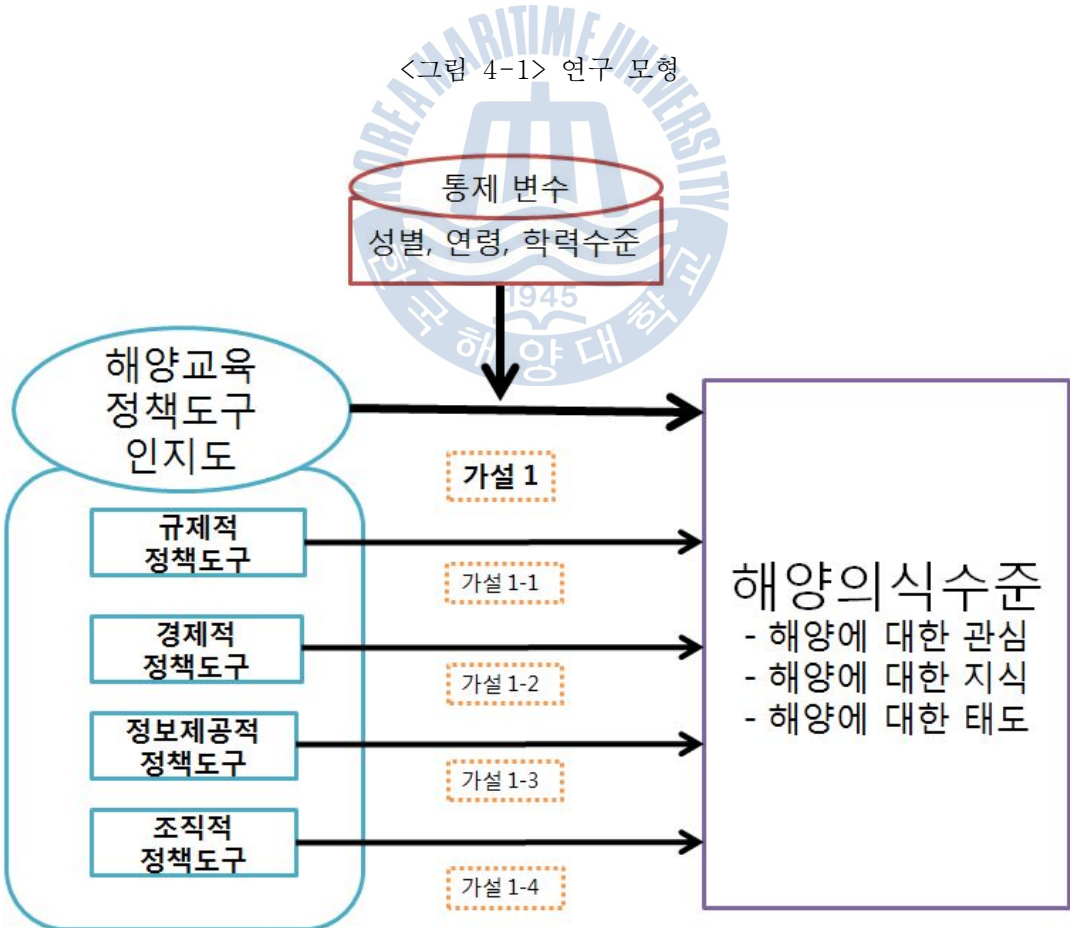
<표 4-2> 변수의 설정과 측정지표

변수	측정지표	문항	척도
해양의식	해양에 대한 관심	II-1	5점 등간척도
	해양관련 내용에 대한 관심	II-2	
	해양관련 책읽기	II-3	
	해양관련 사이트 방문	II-4	
	해양환경 보전 캠페인 참여	II-5	
	해양에 대한 지식	II-6	
	해양에 대한 지식 습득 노력	II-7	
	해양관련 직업 추천 의향	II-8	
	해양관련 직업 종사 의향	II-9	
	해양관련 직업 인지	II-10	
	해양에 대한 기능 및 지식여부	II-11~17	
해양교육 정책도구 인지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인지여부	III-1~2	5점등간 척도
	해양교육시범학교 인지여부	III-6~7	
	해양교육동아리지원프로그램 인지여부	III-11~12	
	씨그랜트프로그램 인지여부	III-16~17	
	해양포털사이트 인지여부	III-21~22	
	해양교육교재 인지여부	III-26~27	
	소속기관별 해양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청소년 해양체험교육 인지 여부	III-31~32	
	해양교육관계자 워크숍 인지 여부	III-36~37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인지여부	III-41~42	
해양의식 영향	해양의식 우선순위	IV-1	명목척도
	해양의식 저해 요인	IV-2	
	해양의식 증진 방안	IV-3	
해양의식 정책도구	해양의식 효과 정책도구	IV-4	
	해양의식 증진을 위한 추가 세부 정책도구	IV-5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연령, 학령, 직업	I	

제 2 절 연구모형 및 가설의 설정

1. 연구모형의 설정

본 연구의 연구 모형은 앞장의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그림 4-1>와 같다. 즉, 최근의 정책 상황과 해석에 적합한 Vedung의 정책도구 유형론(규제, 유인, 정보)에 조직을 추가하여 본 연구의 정책 분류 관점으로 채택하여 4가지 도구별 세부 변수를 구성하고 이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종속변수에는 해양의식이라는 변수를 설정하였다. 또한 통제변수로 성별, 연령과 학력수준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독립변수인 규제적 정책도구, 경제적 정책도구, 정보제공적 정책도구, 조직적 정책도구가 종속변수인 해양의식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 가설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해양교육 정책도구는 해양의식 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규제적 정책도구(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 관한법률)는 해양의식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경제적 정책도구(해양교육시범학교, 해양교육동아리지원, 씨그랜트)는 해양의식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정보제공적 정책도구(해양포털사이트운영, 해양교육교재, 소속기관별 해양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청소년 해양체험교육)는 해양의식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조직적 정책도구(해양교육관계자 워크숍, 해양교육발전협의회)는 해양의식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 3 절 조사연구방법

1. 조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부산에 거주하는 20~60대 시민들로, 이들은 단순무작위 표본추출(simple random sampling)방법으로 비복원 표본추출을 통하여 얻었다. 설문조사기간은 2012년 10월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약 2주간 이루어졌다. 설문방법은 온라인 설문(on-line survey)과 우편설문, 그리고 직접 방문을 병행하여 이루어 졌다. 총 221부의 질문지가 회수되었는데, 결측치가 많아 분석에 부적합한 19부를 제외하고 202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조사의 표본 현황은 <표 4-3>와 같다.

<표 4-3> 설문조사의 표본 현황

특성	구분	빈도수(명)	유효퍼센트(%)
성별	남성	78	38.6
	여성	124	61.4
연령	20대	73	36.1
	30대	40	19.8
	40대	51	25.2
	50대	35	17.3
	60대이상	3	1.5
학력	고졸 및 그 이하	5	2.5
	전문대재학~전문대졸업	10	5.0
	대학교 재학~졸업	122	60.4
	대학원이상	65	32.2
직업	교사	65	32.2
	교수	5	2.5
	공무원	42	20.8
	회사원	45	22.3
	NGO	4	2.0
	연구원	7	3.4
	학생	34	16.8

성별은 여성이 124명(61.4%)으로 남성 78명(38.6%)보다 많이 분포되어 있다. 연령은 20대가 73명(36.1%), 30대가 40명(19.8%), 40대가 51명(25.2%), 50대가 35명(17.3%) 그리고 60대가 3명(1.5%)으로 20대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40대가 많았다.

학력은 고졸 및 그 이하가 5명(2.5%), 전문대재학~전문대졸업이 10명(5.0%), 대학교 재학~졸업이 122명(60.4%), 대학원이상이 65명(32.2%)로 대학이상이 표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직업군별로는 교사가 65명(32.2%), 회사원이 45명(22.3%), 공무원이 42명(20.8%)이 제일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설문조사 방법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다양한 통계기법을 적용하여 가설의 검정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은 분석 자료를 추출하기 위한 사전통계분석과 기초통계분석, 가설검증을 위한 분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한 통계 처리 도구로서 SPSS 19.0을 사용하였다. 먼저, 표본의 특성 정리를 위해서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고, 각 변수들의 측정도구에 대한 내적 일관성(internal reliability)을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성 분석(reliability)을 통한 Cronbach's Alpha 값을 알아보았다.

또한 각 변수들의 측정에 있어서 측정도구의 타당성(validity)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해양교육 정책도구가 해양의식 수준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하였다.

제 5 장 해양교육정책도구가 해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분석

제 1 절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빈도 및 평균 분석과 가설검증을 위한 전 단계로 설문문항에 대한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신뢰성(reliability)이란 동일한 개념(속성)을 독립된 측정방법에 의해 측정하는 경우 결과가 비슷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를 구성하는 모든 변수들은 하나의 개념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여러 항목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을 분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내적 일관성을 토대로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분석하였다. 그 기준으로는 Cronbach's Alpha 계수를 사용하여 판단하였다.

일반적으로 신뢰도 계수는 탐색적 연구(exploratory research)에서는 0.6이상이면 충분하고, 기초연구 분야에서는 0.8, 나아가 중요한 결정이 요구되는 응용연구 분야에서는 0.9이상이면 된다고 주장한다(Nunnally, 1978).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신뢰도 계수는 값이 0.6 이상이면 측정도구의 신뢰성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도구의 신뢰성 분석을 한 결과 대부분의 신뢰도 계수는 0.6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측정도구 자체가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이나 개념을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내용타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연구들에 바탕을 두고 설문내용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의 개념이나 속성을 측정도구가 정확하게 대표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구성개념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타당성이란 측정치가 의도한 것을 실제로 측정하고 있는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서 이론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타당성 검증을 위한 요인분석은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방식을 이용하였으며, 요인행렬의 회전은 직각회전(varimax)방식을 택하였다.

<표 5-1> 해양의식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항목	요인적재량	신뢰도 분석
	해양의식	Cronbach's α
해양에 관심 있음	.901	.943
해양에 대한 지식습득노력을 함	.884	
해양관련 책임기를 함	.871	
해양관련 내용에 대한 관심	.865	
해양에 대한 지식	.848	
해양관련 사이트 방문	.839	
해양환경 보전 캠페인 참여	.802	
해양관련 직업 추천 의향	.721	
해양관련 직업 종사 의향	.713	
해양관련 직업 인지	.698	
해양에 대한 기능 및 지식 여부	.627	
Eigen-value	7.075	
분산설명율(%)	64.315	
누적 분산 설명율(%)	64.315	

해양의식수준에 관한 설문문항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5-1>와 같은 결과가 도출하였다.

위의 <표 5-1>는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해양의식수준에 해당되는 세부 항목 변수들을 요인분석을 통하여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본 것이다. 표를 보면, 측정치들의 요인적재치(factor loadings)가 모두 일반적 수용기준인 0.4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집중타당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내적일관성을 나타내는 Cronbach's α 계수 역시 일반적 수용기준인 0.6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서 신뢰성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에 의하면 고유값(Eigen value)은 1.0이상으로 분산은 64.315%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간주되어 진다. 또한, 요인의 신뢰도(Cronbach's α)값도 0.9이상으로 도출되어 측정문항들이 해양의식수준이라는 동일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독립변수인 해양교육 정책도구에 관한 설문문항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5-2>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표 5-2> 해양교육 정책도구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요 인	항목	요인적재량			신뢰도 분석
					Cronbach' s a
규제적 정책도구	한국해양소년단 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1	.868	.255	.197	.851
	한국해양소년단 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2	.835	.274	.292	
경제적· 정보제공적 정책도구	해양교육시범학교 1	.201	.798	.202	.950
	해양교육시범학교 2	.282	.777	.257	
	해양동아리 지원 1	.372	.742	.341	
	해양동아리 지원 2	.361	.734	.369	
	소속기관체험 및 청소년 체험 2	.298	.705	.412	
	해양교육교재 1	.087	.678	.487	
	소속기관체험 및 청소년 체험 1	.204	.656	.311	
	해양교육교재 2	.094	.649	.538	
	해양포털 사이트 1	.145	.638	.575	
	해양포털 사이트 2	.159	.622	.557	
조직적 정책도구	해양교육발전협의회 2	.321	.279	.828	.954
	해양교육발전협의회 1	.307	.315	.823	
	해양교육관계자 워크숍 1	.184	.402	.811	
	해양교육관계자 워크숍 2	.225	.400	.806	
Eigen-value		2.325	5.587	4.515	
분산설명율(%)		14.532	34.917	28.217	
누적 분산 설명율(%)		14.532	63.135	77.667	

표를 살펴보면, 설문문항을 통해 다 항목으로 구성된 16가지 항목은 3가지 요인으로 나타내어 졌으며 누적 분산은 77.667%로 나타났다. 당초, 연구 가설을 설립할때에는 경제적 정책도구와 정보제공적 정책도구를 분리하였으나, 경제적

정책도구의 세부 항목 (해양교육시범학교, 해양교육동아리 지원)이 정보제공적 정책도구의 역할또한 하고 있어 요인이 서로 통합되어 나타난 것으로 사료 된다. 이는 해양교육시범학교와 해양교육동아리 정책도구가 비록 예산을 지원받아 진행하고 있지만, 정책수혜집단(beneficiary group)의 입장에서는 정보제공적 정책도구의 역할로 비추어 지기에 하나의 요인으로 병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정책도구의 하위요소였던 씨그랜트 기금은 어느요인에도 분류되지 않은 독립된 요인으로 나타나서 이번 연구항목으로는 제외되었다. 씨그랜트기금은 예산을 지원받아 진행하는 경제적 정책도구이나, 프로그램의 역할이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해양관련 사이트를 운영하며 해양교육교재를 발간하는 등의 정보제공적 정책도구의 역할과 함께 해양교육발전협의회의 구성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조직적 정책도구의 역할도 함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사료된다.

각 요인의 신뢰도값은 제도도구는 0.851, 경제·정보도구는 0.950, 조직도구는 0.954로 나타났으며 이들 3가지 하위차원은 해양교육 정책도구의 단일 차원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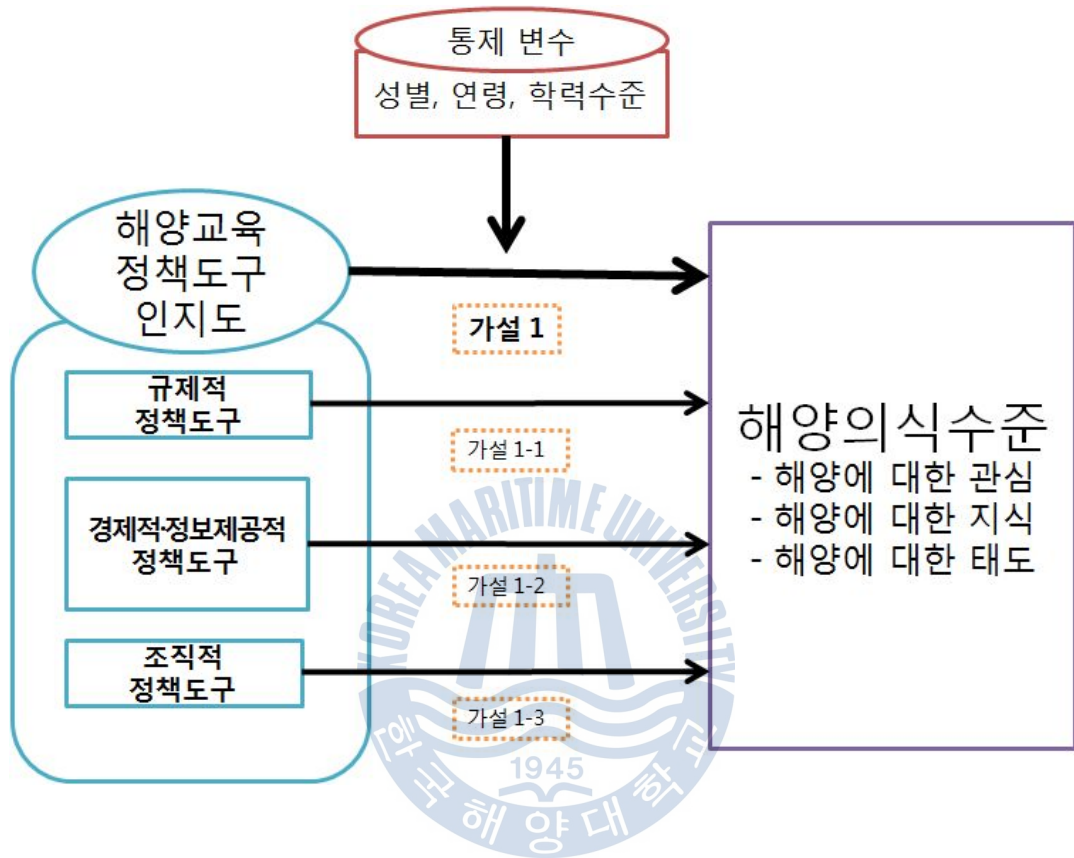
변수들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사한 결과에 따라 요인분석이 적합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요인에 대한 일부 가설을 아래 <표 5-3>와 같이 수정 하고자 한다.

<표 5-3 > 수정된 가설

구분	당초	구분	변경
가설 1-2	경제적 정책도구(해양교육시범학교, 해양교육동아리지원, 씨그랜트)는 해양의식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경제적·정보제공적 정책도구(해양교육시범학교, 해양교육동아리지원, 해양포털사이트운영, 해양교육교재, 소속기관별 해양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청소년 해양체험교육)는 해양의식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정보제공적 정책도구(해양포털사이트운영, 해양교육교재, 소속기관별 해양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청소년 해양체험교육)는 해양의식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이에 따라 연구모형을 그림과 같이 수정하고자 한다.

<그림 5-1> 수정된 연구모형



제 2 절 연구결과 및 분석

1. 해양의식 영향 및 해양교육 정책도구 일반적 인식 조사

해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우선순위와 저해요인 그리고 해양의식을 높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과 해양의식증진에 가장 효과적인 해양교육 정책도구 및 추가되어야 할 세부 해양교육 정책도구를 알아보기 위해서 수집된 자료의 빈도분석, 다중응답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1) 해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우선순위

해양의식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라고 생각되는 영향요인을 우선순위로 묻는 문항은 1위부터 3위까지의 빈도결과를 분석해보았는데, 그 결과, 6개의 요인중 교육·홍보가 해양의식수준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자연도 그 다음으로 빈도수가 높았으나, 교육·홍보의 응답수가 우선순위 1과, 2위에서 확연히 많았다. 이는, 해양교육 및 홍보는 해양에 대한 관심과 지식 그리고 태도를 나타내는 해양의식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4> 해양의식에 미치는 요인 우선순위 빈도 분석 결과

요인	우선순위1	우선순위2	우선순위3
자연	67	27	26
역사	4	20	24
휴양	21	46	49
직업	14	26	46
교육	82	39	29
문화	14	44	28
합계	202	202	202

2) 해양의식수준 저해요인

우리나라의 해양의식이 낮은 이유에 대한 다중응답 문항에는 체계적인 해양교육의 시스템부재로 인한 결과라고 응답한 사람이 49.1%(160명) 가장 많았다. 이는 앞서 살펴본 해양의식에 미치는 요인의 우선순위의 결과와 유사한 형태로 도출이 되었는데, 해양의식에는 해양교육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많은 사람들이 해양교육이 해양의식의 증진을 위한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밖에도, 유교사상으로 인한 바다 천시 문화와 같은 정책·문화적 관점이 24.5% (80명), 일반대중의 관심이 항공·우주와 같은 기타 다른분야로 관심이 이전이 되었다고 보는 외부적 관점이 22.4%(7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기타 의견으로는 정치권에서의 해양에 대한 관심부재, 해양에 대한 직업이 대우를 받지 못하고 공직을 제외한 해양관련 직업에 대한 근무환경의 열악함등으로 인해 해양의식이 저해되었다는 의견이 있다.

<표 5-5> 해양의식수준 저해 요인 다중응답 분석 결과

문항	응답범주	빈도(명)	퍼센트(%)
IV-2 해양의식수준 저해 요인	지리학적관점	8	2.5
	정책·문화적 관점	80	24.5
	외부적 관점	73	22.4
	교육학적 관점	160	49.1
	기타	5	1.5
	합계	326	100

3) 해양의식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해양의식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묻는 응답에는 해양포털 사이트 운영과 콘텐츠 개발 및 해양교육 교재 개발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대국민 홍보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36.1%(123명)으로 가장 빈도가 높았다. 이는 특정 집단 혹은 특정 대상을 선정하여 교육을 하는 제한적인 해양

교육보다는 불특정 다수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 와 콘텐츠 개발 및 교재 개발을 통해 개방적인 해양교육을 원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밖에도 ‘해양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을 현행보다 증액하여 해양교육 시범학교 및 해양교육 동아리등을 확대 지원을 해야한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27.3%(93명)으로 두 번째로 빈도가 높았다. 또한, 해양교육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할 해양교육진흥법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도 17.6%(60명)으로 법 제정의 필요성을 뒷받침 하고 있다. 이밖에도 기타의견으로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졸업 후 진로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교육과 함께 일반 대중들에게 해양의 가치와 중요성의 홍보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5-6> 해양의식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다중응답 분석 결과

문항	응답범주	빈도(명)	퍼센트(%)
IV-3 해양의식 효과적인 방법	법률 정비	60	17.6
	예산 증액	93	27.3
	콘텐츠 및 교재 개발	123	36.1
	워크샵 및 협의회 전국 확대	56	16.4
	기타	9	2.6
	합계	341	100

4) 해양의식 증진에 가장 효과적인 해양교육 정책도구

해양교육을 위해 마련된 법률이나, 현재 실시되고 있는 해양교육 정책도구중 해양의식을 높이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도구를 묻는 응답문항에서, 압도적으로 해양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청소년 해양체험교육이 48%(97명)으로 많았다. 이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이론적인 실내교육도 중요하지만, 직접 해양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해양의식증진에 효과적이라고 보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뒤를 이어 해양포털 사이트 운영 및 콘텐츠 개발이 13.9%(28명)으로 많았다. 이를 통해, 정보제공적 정책도구가 해양의식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표 5-7> 해양의식 증진에 가장 효과적인 해양교육 정책도구 빈도 분석 결과

문항	응답범주	빈도(명)	퍼센트(%)
IV-4 효과적인 해양교육 정책도구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7	3.5
	해양교육시범 학교	14	6.9
	해양교육동아리 지원	22	10.9
	씨그랜트 기금	15	7.4
	해양포털사이트운영 및 콘텐츠 개발	28	13.9
	해양교육 교재 개발	16	7.9
	청소년 해양체험교육	97	48.0
	해양교육 관계자 워크샵	1	0.5
	해양교육발전협의회	2	1.0
	합계	202	100

5) 해양의식 증진을 위해 추가되어야 할 세부 정책도구

해양의식 증진을 위해 추가되어야 할 세부 정책도구를 묻는 다중응답문항에서는 해양교육센터 건립 및 운영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25.4%(85명)으로 많았다. 그리고 해양지도자 양성 사업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도 19.8%(6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기타 응답으로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양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교과목 내 해양과목 개설 뿐만 아니라 해양교육을 할 수 있는 교과시간을 확대 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표 5-8> 해양의식 증진을 위해 추가되어야 할 세부 정책도구 다중응답 분석 결과

문항	응답범주	빈도(명)	퍼센트(%)
IV-5 효과적인 해양교육 정책도구	해양교육진흥법 제정 및 운영	45	13.5
	해양교육센터 건립 및 운영	85	25.4
	해양지도자 양성 사업 실시	66	19.8
	교과목 내 해양과목 개설	73	21.8
	해양교육 인증제 도입	31	9.3
	해양교육 교사 연수 강화	27	8.1
	기타	7	2.1
	합계	334	100

2. 해양교육 정책도구가 해양의식에 미치는 영향

해양교육 정책도구인 규제적 정책도구, 경제적·정보제공적 정책도구 및 조직적 정책도구의 독립변수가 해양의식수준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는데, 그에 따라 <표 5-9>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표 5-9> 해양교육 정책도구가 해양의식수준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결과

변수		β	t값	유의수준	공차한계
독립 변수	상수		7.314	.000	
	규제적 정책도구	-.004	-.059	.953	.546
	경제적· 정보제공적 정책도구	.223	2.145	.033**	.305
	조직적 정책도구	.317	3.354	.001**	.359
통제 변수	성별	.136	2.358	.019**	
	연령	.091	1.346	.180	.696
	학력수준	.113	1.714	.088*	.735
통계량	$R^2=.382$, 수정된 $R^2=.363$, $F=20.066$, $p=.000$, Durbin-Watson=1.406				

참고: ** $p < 0.05$, * $p < 0.1$

규제적 정책도구는 t값이 -0.59으로 유의수준 $p=0.953 > 0.05$ 로 나타나서 가설 1-1은 기각되었다. 하지만, 경제적·정보제공적 정책도구는 t값이 2.145으로 유의수준 $p=0.033 < 0.05$ 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적 정책도구는 t값이 3.354으로 유의수준 $p=0.01 < 0.05$ 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인 성별은 t값이 2.358으로 유의수준 $p=0.019 < 0.05$

으로 유의미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령은 t값이 1.518으로 해양의식수준에 유의미하게 미치지 않았다, 또한 학력수준은 t값이 1.714으로, $p=0.088 < 0.1$ 수준에서는 유의미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에 대한 $R^2=0.382$ 으로 38.2%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고, Durbin-Watson은 1.406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⁰⁾ 또한 다중공선성을 판단하기 위해 공차 한계를 조사한 결과 그 값들이 모두 0.1 이상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제적·정보제공적 정책도구와 조직적 정책도구는 해양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20) Durbin-Watson의 통계량은 잔차에 대한 상관관계(잔차의 독립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분석결과 그 수치가 0또는 4에 가까울 경우 잔차들 간의 상관관계가 있어 회귀모형이 부적합을 나타내고 그 수치가 2와 가까우면, 잔차에 대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 6 장 해양교육 정책도구 발전을 위한 제언

제 1 절 제도적 정책도구

해양의식증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에서의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매우 부족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법 제정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또한 제도적 정책도구가 뒷받침이 되어야지만이 경제적 정책도구와 정보제공적 정책도구 및 조직적 정책도구의 실현에 있어 근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제도적 정책도구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선결 과제로 볼 수 있다.

1. 해양교육진흥법 제정

현재 해양교육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는데, 제 31조는 해양수산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연수·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선원 및 수산전문 인력에 한정하고 있고, 제 34조는 정부가 해양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 및 지식보급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최재선, 2008:74). 따라서, 실질적인 해양교육에 대한 제도적 정책도구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 관한 법률뿐이다.

이는 이전에 서술한 바와 같이, 해양교육이 환경교육과 비교하였을 때, 법적 기반이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다. 환경교육은 환경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 국가 수준에서 법적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환경교육 활성화의 기틀을 세우고 예산확보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해양교육 역시 해양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2. 해양교육센터 기관 근거 조항 마련

문성배(2012)의 연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적 제도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국가 해양교육청 혹은 해양교육센터와 같은 기관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해양교육을 관리하고 교육내용을 안내 및 홍보하며 해양교육 모듈을 개발하는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적 기반을 확립하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기관이 조직적 정책도구로서의 네트워크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법안에 예산이나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나아가 예산확보를 명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해양교육의 발전을 위한 방안이 될 것이다.



제 2 절 경제적 정책도구

1. 해양교육 프로그램 인증 지원

해양교육 프로그램은 지역에 따라 다르고 다른 만큼 융통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적 차이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 그에 따라 김성귀(2010) 연구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해양교육 프로그램의 공공성, 신뢰성, 적합성을 확보하고 해양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 전체 해양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해양교육 프로그램 인증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 국민적 해양교육 수요가 증가할 전망으로 국가가 우수한 프로그램을 인증하여 올바른 해양가치관 형성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해양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를 도입하여 인증된 해양교육에 대한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분야별, 지역별 선정된 대표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병행하여 해양교육을 확산하는 발판을 마련하면 해양의식 증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2. 해양교육 담당교사 직무연수 지원

해양관련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양교육 담당교사 직무연수와 같은 경제적 지원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 대학에 해양학, 해양과학기술, 해사와 해운 등 해양관련 학과들이 있으나 해양 각 분야를 교육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 할 수 있는 체제는 구축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해양계 교사양성체제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비전문가들이 해양관련 분야에서 교육을 맡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 제대로 된 해양교육이 이루어지면 해사 해운, 해양환경, 해양문화, 해양과학, 해양산업 등 해양 모든 분야에 걸쳐 교육전문가가 필요하다(구모룡, 2008). 따라서 기존 교원대상으로 해양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한데, 이는 해양의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된 프로그램을 통해 가능 할 것이다.

3. 정보제공적 정책도구 연계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해양교육 시범학교는 지역사회의 특성을 살린 체험중심의 해양교육을 통한 해양의식 및 해양환경 친화적 생활방식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즉, 현재 해양교육 시범학교는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이해를 중심으로 실시를 하는 학교가 대부분인데(안면고등학교 해양교육시범학교 보고서, 2008) 이를 탈피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제공적 정책도구에서 교구재 및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해양교육 시범학교 및 해양교육 동아리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제 3 절 정보제공적 정책도구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정보제공적 정책도구는 해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의식을 증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묻는 질문에도 ‘컨텐츠 및 교재개발과 같은 정보제공적 정책도구가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답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정보제공적 정책도구에는 해양교육 교재 개발과 해양교육 포털사이트 운영 및 컨텐츠 개발과 소속기관별 청소년 해양교육 체험이 있다.

1. 현장교육에 활용이 가능한 교재개발

해양과 관련된 우리나라 교육 교재를 살펴보면 주로 문자를 통하여 지식을 전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림이나 삽화 등 시각적 방법을 활용하는 정도가 낮고 탐구활동도 실제 야외에서의 활동보다는 자료해석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기본 개발된 해양교육 교재는 종류는 다양하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교육과정에 투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교재의 현장보급에서의 문제도 발생하고, 학교급별 연계성이 부족한 실정이다(해양재단, 2011). 따라서, 교육 활동에서 직접 활동할 수 있는 교재 개발을 통해 이를 일반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동영상과 지도 자료등의 교구재 개발을 통해 흥미를 유발 할 수 있는 형태의 교재제작이 필요하다. 미국 NOS(National ocean Service)에서는 학생과 교사에게 해양, 연안, 해도, 항해에 관한 지식을 가르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여 일선학교에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는데 가능한 전문용어 사용을 자제 하고 시각자료의 비중을 높이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활용하는 탐구교재는 일선 교사들이 교실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배경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퀴즈 또는 과학자들과의 인터뷰 형식을 통해 학생들이 교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지식을 습득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자료를 제공하여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Arthur D Little, 2006).

2. 온라인 해양교육 활성화

온라인 해양교육은 시간 및 장소에 관계없이 누구나 손 쉽게 해양관련 자료 및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교사, 학생들은 해양교육 자료를 얻기 위해 주로 해양관련 단체 및 기관의 홈페이지 이용을 선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해양교육 포털사이트를 제작 및 운영하고 콘텐츠 개발을 꾸준히 해 왔으나, 2012년 9월을 기점으로 해양교육포털사이트(www.ilovesea.co.kr)의 접근이 불가능한 것을 볼수 있었는데 이는 관리상의 문제로 다른 사이트와 통합된 것으로 나타났다.²¹⁾ 세계적인 IT기반 시설을 보유한 우리나라에 해양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습득 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인터넷은 가장 최신자료를 얻을 수 있고 자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해양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집적된, 포털사이트 구축은 절실하다.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 해양교육사이트에 장기적으로 자료 업로드를 하는 등, 관리가 잘되고 있어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시·공간적인 제약 없이 누구나 해양관련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차단한건 위험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포털사이트의 재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3. 청소년 해양체험교육 활성화

해양의식증진에 가장 효과적인 해양교육 세부 정책도구를 묻는 질문에서는 청소년 해양체험교육이 압도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다. 해양교육에 있어 단순암기나 지식 주입식 교육의 한계를 인지하였기 때문에 청소년 체험교육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인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간의 의식은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고, 형성된 의식은 쉽게 바뀌지 않는데 해양의식 또한 마찬가지다. 따라서 해양의식 함양은 의식이 굳어지기 전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에 대한 해양교육이 매우 중요하다(이동건, 2003).

21) 홈페이지를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기관에 유선상으로 문의를 한 결과 이와 같은 답변을 받았다. (통화시점: 2012년 10월 17일 수요일)

하지만, 해양이라는 특수한 공간은 청소년들이 접근하기에는 다소 위험하고 험난하다는 인식 때문에 현장에서 교육을 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어른들의 생각으로 인해, 해양을 가까이 보고, 느껴야 하는 청소년들에게 바다는 공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체험교육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하는데, 우선적으로 교육용 Kit를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용 Kit개발이 부진하고 이를 활용하는 교육도 부족하지만, 영국 및 일본 같은 경우 학교는 물론 박물관 등에서도 이러한 교육용 Kit를 일반화 하여 학생들에게 흥미를 주고 있다(구모룡, 2008). 또한 해양체험교육을 전담하는 해양교육지도사를 양성하여 현장에서 해양교육을 함에 있어 교사의 안전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 또한 필요할 것이다.



제 4 절 조직적 정책도구

조직적 정책도구는 여타 다른 정책도구 보다 해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회귀분석의 값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²²⁾ 이는 조직적 정책도구가 해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도구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를 통해 조직적 정책도구는 최근 전통적인 정부조직에 의한 위계제적 방식의 거버넌스를 탈피하여 정책수행에 있어서 많은 준정부조직, 민간 조직을 개입시키는 네트워크 방식이 이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해양과학자 및 교사들간의 네트워크 구축

미국에서는 조직적 정책도구로서 해양과학자와 교사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조직기틀을 마련하는데, 이는 서로 다른 강점과 자원을 보유하는 두 집단이 해양교육 기회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최신 해양관련 정보와 자료를 소유한 해양과학자와 학생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사들 간의 협력은 해양교육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미국 국가에서는 해양과학자들이 연구 프로젝트에 교육 요소를 포함시키거나, 교사와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들과 협력관계를 맺는 과학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네트워크를 구축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 해양교육발전협의회 활성화

현재 행해지고 있는 해양교육발전협의회와 같은 조직은 다소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탁상공론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첫째, 해양교육발전협의회를 위한 예산이 투입되어 유관기관의 공동사업을 추진하여 실질적인 효과가 도출 될 수 있는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도록 되어야

22) 해양교육 정책도구가 해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본연구 제 5장의 제2절을 참고 하길 바란다.

하고, 둘째, 해양교육관련 유관기관의 긴밀한 정보교환을 통해 중복되는 해양교육 프로그램은 가감이 조정을 하여 교육수혜자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국제 해양교육 네트워크 구축

마지막으로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국제적인 해양교육 네트워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APEC 해양장관회의 등을 통해서도 해양교육 네트워크를 추진해야 한다는 합의사항이 도출된 만큼(김성귀, 2010) 가까운 일본과 중국, 더 나아가 미국의 해양교육 네트워크와 협력을 하여 국제동향을 살피고 글로벌 해양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 7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우리가 바다를 알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들의 생존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위의 문구는 해양을 연구하고 해양에 종사하는 분야에서는 꽤나 유명한 문구로 1960년대 미국의 젊은 대통령 케네디(John. F. Kennedy)가 바다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한 말이다.

21세기의 새로운 물결의 변화로 지식·기술·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지식혁명의 시대와 식량·자원·공간 문제를 해양에서 해결해야 할 청색혁명(Blue Resolution) 시대로의 새로운 해양 분야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해양의식 증진을 위한 해양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흐름에 발맞추어 해양의식의 의의와 실태를 살펴보고 해양교육 정책도구의 개념과 유형을 분류 한 후, 해양의식의 수준을 분석함과 동시에 해양교육 정책도구의 해양의식수준에 대한 영향관계를 알아보았다.

해양의식의 개념은 연구자마다 달리 해석을 하고 있는데, 본 연구는 해양의식을 해양에 대한 관심이나 해양 또는 해양문제에 대한 지식, 친 해양적 태도 혹은 해양정책에 대한 입장 등을 해양의식으로 정의를 하였다. 그리고 해양의식에 미치는 요인을 6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는데, 자연조건과 역사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고정요인으로 보고, 휴양·레저, 직업, 교육·홍보, 문화는 정부 및 국민의 노력에 의해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변동요인으로 보았다.

또한, 해양의식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실증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해양의식 현황을 살펴보고, 더불어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의 해양의식조사 결과를 통해 외국의 해양의식 현황도 살펴보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해양에 대한 호기심과 긍정적인 연관성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으나, 해양에 대한 지식이나 해양과 관련된 직업의 선호도에서는 부정적인 답변으로 응답하고 있었다.

해양의식이 저조한 이유로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는데, 첫째 반도

국가로써의 지리학적 관점, 해금정책 및 유교문화와 같은 정책·문화적 관점, 타 분야 관심 이전 등과 같은 외부적 관점, 해양에 대한 체계적 교육 시스템 부재와 같은 교육학적 관점으로 살펴보았다.

해양교육에 대한 정의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해양에 대한 친밀감, 해양에 대한 기본지식, 해양에 대한 태도등과 같은 전반적인 해양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제반활동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양교육 정책 세부 추진과제를 Vedung의 정책도구 유형에 따라 규제적(Sticks), 경제적(Carrots), 정보제공적(Sermons), 조직적(Organization)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규제적 정책도구에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고, 경제적 정책도구에는 해양교육시범학교, 해양교육동아리지원, 씨그랜트 도구가 있고, 정보제공적 정책도구에는 해양교육 교재개발, 소속기관별 해양체험프로그램운영 및 청소년 해양체험교육이 속하고, 마지막으로 조직적 정책도구에는 해양교육 관계자 워크숍과 해양교육발전협의회가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의 해양정책과 해양교육 정책도구 또한 각각 검토를 통해 선진 해양교육 정책도구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해양교육 정책도구의 해양의식수준에 대한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실증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조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한 결과, 당초 설립한 가설을 일부 수정하여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해양의식에 미치는 요인의 우선순위를 묻는 문항에서는 교육·홍보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라는 응답의 빈도가 가장 많았다.

이는, 해양교육 및 홍보가 해양에 대한 관심과 지식, 그리고 태도를 나타내는 해양의식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양의식을 저해하는 요인을 묻는 설문문항에는 체계적인 해양교육의 시스템부재로 인한 결과라고 응답한 사람이 49.1%로 가장 많았다. 이는 해양의식에 미치는 요인의 우선순위의 결과와 유사한 형태로 도출이 되었는데, 해양의식에는 해양교육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예측할 수 있다. 해양의식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는 해양교육 콘텐츠 및 교재개발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36.1%로 가장 빈도가 높았다. 해양의식 증진에 가장 효과적인 해양교육 정책도구에는 청소년 해양체험교육이 48.0%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이론적인 실내

교육도 중요하지만 직접 해양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해양의식 증진에 효과적이라고 보는 의견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해양의식 증진을 위해 추가되어야 할 세부 정책도구를 묻는 다중응답문항에서는 해양교육센터 건립 및 운영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25.4%(85명)으로 많았다. 그리고 해양지도자 양성 사업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도 19.8%(6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기타 응답으로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양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교과목 내 해양과목 개설 뿐만 아니라 해양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대 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해양교육 정책도구, 즉 규제적 정책도구, 경제적·정보제공적 정책도구와 조직적 정책도구가 해양의식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규제적 정책도구를 제외한 나머지 정책도구는 해양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양교육 정책도구 발전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먼저, 제도적 정책도구에서는 해양교육진흥법 제정 및 해양교육센터 기관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경제적 정책도구에서는 해양교육 프로그램 인증지원, 해양교육 담당 교사 직무 연수 지원 및 정보제공적 정책도구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또한, 정보제공적 정책도구에서는 현장교육에 활용이 가능한 교재개발, 온라인 해양교육 활성화, 청소년 해양체험교육 활성화가 필요하고, 조직적 정책도구에서는 해양과학자 및 교사들간의 네트워크 구축, 해양교육 발전 협의회 활성화 및 국제 해양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마련해야한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정부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하나의 도구만을 사용하기보다 복수의 다양한 도구를 동시에 사용한다. 또한 개별 정책도구들이 도구 결합을 통해 병렬적 혹은 순차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 뿐만아니라, 하나의 정책도구가 정책대상집단과 정책 도구의 성격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정책결정을 하기위해 우월한 하나의 정책도구만을 고집하기보다는 몇 개의 정책도구들을 잘 혼합하여 활용한다면, 정책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점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으며, 향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첫째, 정책도구가 해양의식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정책도구에 대한 응답자의 인지도를 설문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정책도구의 객관적인 활용이 정확히 측정되었는지에 대한 문제는 향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즉, 본 연구는 단일 응답자에 의한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에 관한 것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측정에서 모두 당사자에게 인지적으로 질문하여 측정하였으나 이들의 인과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연구 목적에 적합한 변수들의 차원을 다른 측정원천을 통해 선후관계를 도출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 볼만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되었기 때문에 전국 시민들의 해양교육 정책도구에 대한 해양의식을 파악할 수는 없다. 따라서 연구대상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외국의 해양의식 현황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동일시기에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여야 하는게 타당하나,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의 한계로 인하여 시기시점이 동일하지는 않은 한계가 있다.

참 고 문 헌

I. 국내 문헌

1. 단행본 및 보고서

- 강종희, 《해양강국비전: 21세기 대한민국 선택》 두남(2005)
- 김성귀·윤진숙·백인기·남정호·장원근, 《국제 해양문제 주도권 확대방안 연구1》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9)
- 김성귀·홍장원·이윤정·이슬기, 《해양교육 계획 수립을 위한 기반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0)
- 김재철·박준호·이정환·홍승용외, 《신해양시대 신국부론》 나남(2008)
- 남궁근, 《행정조사방법론》, 법문사(2003)
- 윤명철, 《한국해양사》 학연문화사(2003)
- 윤명철, 《한반도와 바다》 국립민속박물관(2004)
- 이동근·한철환·엄선희, 《역사와 해양의식: 해양의식의 체계적 함양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3)
- 이정환·최재선·김민수, 《해양·정책·미래》 블루앤노트(2010)
- 임종관, 《장보고 해상활동의 재조명과 21세기 해양사상 고취방향》 한국해양수산개발원(1998)
- 박정현, 《근대중국의 해양인식과 영유권 분쟁》 고려대학교 아세아 문제연구소(2005)
- 정정길, 최종원·이시원·정준금·정광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2011)
- 정진술·이민웅·신성재·최영호 《다시보는 한국해양사》 신서원(2008)
- 정충영·최이규, 《SPSSWIN을 이용한 통계분석》, 무역경영사(2009)
- 최남선, 《한국해양사: 서(序)에 대하여》, 해군본부 전산편찬관실(1955)
- 최재선, 《해양 영재교육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8)
- 한국해양대학교, 《해양의식 고취를 위한 마스터플랜 구성》 해양수산부(2008)
-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국립해양박물관 전시물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2006)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 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수립연구》국토해양부(2009)
- 해군사관학교, 《해상왕 장보고 재조명·평가사업 장기기본계획》 해양수산부(2000)
- 해양문화재단, 《해양교육관계자 워크숍 결과보고서》(2011)
- 해양수산부 외 관계 부처 합동,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해양한국(OCEAN KOREA)21 연동계획》해양수산부(2004)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의 국제법과 정치》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도서출판 오름(2011)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2006~2010년 중국의 해양정책 방향은?》 (2007)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2012 중국인의 해양의식조사》 (2012)
 홍승용, 《해양한국21》, 블루앤노트(2009)
 홍승용·김진현, 《해양 21세기》 나남(1998)
 Arthur D Little, 《미래 국가 해양전략 연구보고서》, 해양수산부(2006)
 E.H. Ca 저·김택현 역 《역사란 무엇인가》, 까치글방 (2007)
 Geoffrey till저·배형수 역 《21세기 해양력》 한국해양전략연구소(2011)

2. 논문

강봉용, 「해양인식의 확대와 해양사」, 역사학보 Vol 200, pp.67-97, 역사학회(2008)
 고종훈, 「도서지역 아동의 해양탐구력과 수산자원 보전의식 고취에 관한 연구」 한국교
 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1997)
 구모룡, 「해양문학의 여러 지평: 해양 Literacy 확대와 관련하여」 해양평론, pp.77~95
 해양평론(2007)
 김경신, 「일본 초등학교의 해양교육 강화 방안과 시사점」 해양수산동향 1261호,
 pp.1~8,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8)
 김득환, 「환경 체험학습의 교육 효과에 관한 연구 : 인천해양환경탐구수련원을 중심으
 로」 인천대학교 석사학위 논문(2002)
 김미향 「수산계 고등학교 학생의 의식 및 진로실태에 관한 연구」. 위덕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02)
 김미희, 「중학교 해양환경 교육을 위한 지역의 사례에 대한 연구」 부경대학교 석사학
 위논문(2006)
 김선곤, 「수산 해운계 고등학교의 해양환경 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부경대
 학교 대학원(1998)
 김삼곤, 「수산·해운계고등학교해양교육의목표영역과내용영역에관한연구」, 수산해양교육
 연구 제21호 pp.237-246,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2009)
 김열규, 「한국인의 해양의식」 해양문화연구 제 3호 pp.7~19, 해양문화연구(1998)
 김영규, 「영국의수산·해양교육제도와고찰」 수산해양교육연구 제 1호, pp.17-19, 한국수
 산해양교육학회(1998)
 김영수, 「해양탐구교육을 위한 학습지도 방안 : 중학교 관련 교과서를 중심으로」 조

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1983)

- 김영수·조재홍, 「해양탐구교육을 위한 학습지도 방안: 중학교 관련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육연구 Vol7, pp.63-77, 조선대학교교육연구소(1984)
- 김은정, 「제7차 교육과정 중·고등학교 과학 및 지구과학 교과서 해양분야의 연계성 분석」,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07)
- 김옥주, 「서남권지역의 해양스포츠 특성화 전략」.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2008)
- 김재호, 「자연환경 체험학습의 교육 효과에 관한 연구 : 강화도 해양환경탐구 수련원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01)
- 김혜민, 「한국 해양교육의 특징과 발전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2010),
- 김홍섭, 「우리나라 새로운 해양문화의 도입과 확장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 27집 제 4호, 한국항만경제학회
- 나희진, 「초등학생용 해양환경교육 프로그램 효과 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11)
- 류숙원·김상윤, 「정책도구의 선택이 중소기업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Vol.2010 No 1, pp.111~133,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2010)
- 박귀임, 「한국의 해양환경교육 분석과 활성화 방안」,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2005)
- 박광서, 황기형, 「세계 각국의 해양정책과 Blue Economy에 관한 소고」, 해양정책연구 제 24권 제 2호, pp.27~61,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9)
- 박은실,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국내,외대학 교과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여가학회지 Vol.11 No.2, pp.19-31, 한국여가학회(2010)
- 박영호, 「해양산업교육의 진흥방안」, 수산해양교육연구 제3호, pp.1-8,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1991)
- 박종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한 포괄적 해양교육 포털사이트 구축을 위한 기반 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 제19호 제 2호 통권 제 38호, pp.229-238,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2007)
- 양명희·이두곤 「해양환경교육을위한 탐구중심 환경교육의 관점」, 한국해양환경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9 No11월, pp.137-143, 한국해양환경공학회(2009)
- 양명환, 「제주도민의 해양레저스포츠 의식과 참여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한국체육교육학회지 제 7권 제 3호, pp.156~175, 한국체육교육학회(2002)
- 오강호·고영구·윤석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과학과의 해양영역에 관련된 용어 및 탐구의 연계성 분석」, 한국지구과학회지 Vol25 No 7, pp.576-585, 한국지구과학회(2004)
- 오민수, 「한국의료보험제도 관련 정책도구의 선택과 조합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2010)

- 오충용,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의 운영실태 분석 및 개선방향 탐색: 한국해양소년단 인천 연맹 초등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8)
- 윤기문, 「국민학교 해양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 인천지역 을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0)
- 윤성규·제종길·정수정, 「한국 해양환경교육의 역사와 도전」, 한국환경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No.2, pp.143-147, 한국환경교육학회(2006)
- 윤순동, 「해양레저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75-80, 해양환경안전학회(2008)
- 윤옥경, 「해양교육의 중요성과 지리교육의 역할」, 대한지리학회지 제41권 제 4호 통권 115호 pp.491-506, 대한지리학회(2006)
- 윤이중·배성완·윤기운, 「전남지역 관광개발과 연계한 해양레저스포츠의 활성화 방안」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제11호, pp.207-226 한국스포츠사회학회(1999)
- 윤재홍, 「교육용 해양 콘텐츠 활용 및 서비스 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12권, pp.480-486, 한국콘텐츠학회(2012)
- 이경엽, 「고전문학: 어부가, 표해록, 어로요에 나타난 해양 인식 태도」 한국언어문학 vol50, pp.113~136, 한국언어문학회(2003)
- 이경호, 「한국의 해양화와 부산의 전망」, 한국해양대학교 인문사회과학논총 Vol13 No1, pp.205-215,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연구소(2001)
- 이길래, 「21세기수, 해양교육의 새로운 지표설정에 의한 발전방향」, 수산해양교육연구 제 12호 pp.123-141,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2000)
- 이근모, 「"해양 도시 맞춤형 스포츠 교육 연계 모형" 탐색: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한국 스포츠사회학회지 Vol25, pp.1-17, 한국스포츠사회학회(2012)
- 이명제, 「6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수학습 개선 방향-지구과학 대기 해양분야를 중심으로-」, 1995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 pp.47-53, 한국지구과학회(1995)
- 이병걸·조인석, 「오소웨어를 이용한 해양학습교육매체의 제작에 관한 연구」, 韓國地球科學會誌 Vol21, No.6, pp.655-662, 한국지구과학회(2000)
- 이수호, 「우리나라 해양레저산업의 현황과 전망」, 한국해양대학교 해양체육학과 학술 발표회 (2001)
- 이인애, 「포커스: 미래 국가해양전략 국제포럼: 바다문제는 “상생(相生)”보다 상쟁(相爭)“ 가능성 높다.» 해양한국 2006권 10월호, pp.92~101, 한국해사문제연구소(2006)
- 이재우, 「바다의 뒷이야기 ⑦: ‘문학의 해’와 바다」 해양한국 1996권 7월호 pp.186~(1996)

- 이종열·김수열, 「해양레저의 활성화 요인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제48권 제 4호, pp.409~428, 행정논총(2010)
- 이한민, 「동해안에서의 해양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에 관한 연구,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04)
- 서은선, 「대학박물관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관람객 조사를 통하여」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09)
- 임경한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화」, 해양정책연구 Vol25, pp.47-8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0)
- 전영한, 「정책도구의 다양성: 도구 유형분류의 쟁점과 평가」, 정부학연구 제 13권 제 4호, pp.256~295,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2007)
- 전영한, 「정책도구연구의 의의와 과제」 정부학연구 제13권 제2호, pp.39~51,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2007)
- 전영한·이경희, 「정책수단연구: 기원, 전개, 그리고 미래」 행정논총 Vol48 No 2, pp.91~118,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2010)
- 정진우, 「제 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지구과학 II 교과서에서 해양단원 내용의 분석」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2009)
- 정화성, 「해양환경교육이 해안지역 초등학생들의 바다환경 인식에 미치는 영향」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09)
- 정화성·이정화·정연옥 「해안지역 초등학생을 위한 해양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및 적용」, 한국실과교육학회지 제 23권 제 2호 pp.27-40, 한국실과교육학회(2010)
- 정현주, 「부산지역 과학관 해양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중학교 과학 생물영역과의 연계성 분석」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2)
- 조서영, 「제7차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전문교과의 해양관련 내용 분석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08)
- 조윤애, 「환경의식 척도와 인구학적 변수의 영향」, 환경정책 제 13권 제1호, 환경정책학회(2005)
- 조선형·김귀선, 「초·중·고등학교 과학교과서의 해양교육 내용연계성에관한 연구」 과학과수학교육논문집 제 23집, pp.1-20, 청주교육대학교과학교육연구소(2002)
- 조현환, 해양 환경 보전 의식 함양을 위한 해안 생태 탐사 프로그램 구안 및 적용」, 한국환경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pp.3-11, 한국환경교육학회(2005)
- 최석진, 「환경교육진흥법 제정과 국가 환경교육종합발전 방안의 의미」, 한국환경교육학회 23권 1호, pp.112~120, 한국환경교육학회
- 최영호, 「글로벌시대의해양교육,그의미와구현」, 해양정책심포지엄 pp. 89-108,대한민

국해양연맹(2007)

최영호, 「국민해양의식 고취와 교육문제: 초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해양문화연구 제 3호, pp.39-56, 한국해양대학교 해양연구소(1998)

하연희·문명재, 「정책목표의 변화에 따른 정책도구의 전략적 선택과 효과: 우리나라 인구정책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제 13권 제2호, pp.75~106 고려대학교 정부학 연구소(2007)

홍순경, 「한국의 해양환경교육 분석과 활성화 방안」 부산대학교환경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05)

3. 자료 및 기타

국토해양부 「2011년도 해양교육 추진 실적 및 2012년 추진계획 자료」

박문진, 「중국 제 12차 5개년 계획(2011~2015)의 해양분야 중점사업 발표」

독도연구센터 독도, 해양영토 브리핑 08-41호

부산해양교육발전협의회 회의자료(2011)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 관한법률(법률 제8852호)

부산내성초등학교 해양교육시범학교 보고서(2010)

안면고등학교 해양교육시범학교 보고서(2008)

여수남산초등학교 해양교육시범학교 보고서 (2006)

인천공항중학교 해양교육시범학교 보고서(2011)

포항상대초등학교 해양교육시범학교 보고서(2011)

동아일보 2005.05.26 기사 [막 내린 KBS 드라마 ‘해신’ 인기비결은 …….]

II. 국외 문헌

- 社団法人 海洋産業研究会, 「海洋教育の現状に関する調査」報告書 (2010)
- 公益財団法人 日本海事センター, 「海に関する国民意識調査2012」 (2012)
- 일본해양정책연구재단, 「小学校における海洋教育の普及推進に関する提言」, (2008)
- Belden Russonello&Stewart and American Viewpoint, 「Communicating About Oceans」, The ocean Project (1999)
- OPRF, 「Grand Design for Ocean Education in the 21st Century」, OPRF (2011)
- U.S commission on Ocean Policy, 「An Ocean Blueprint for the 21st century」, Lingtning Source Inc (2004)
- The White house 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Final Recommendations of the interagency ocean policy task force」, (2010)
- The White house 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Interim report of The Interagency ocean Policy Task Force」 (2009)
- The White house 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Final Recommendations of The Interagency Ocean Policy Task force」 (2010)
- Vedung,Evert·Bemelmans-Videc·Marie-Louise·Rist, Ray C, 「Carrot, Strick and Sermons:Policy Instruments and Their Evaluation」 new Brunswick,Nj.,U.S.A (1998)

III. 인터넷 사이트

- 국토 해양부 (www.mltm.go.kr)
- 국립해양조사원 (<http://www.khoa.go.kr>)
- 미국 해양대기청 (www.noaa.gov)
- 미국 우수해양과학교육센터 (www.cosee.net)
- 일본 바다의 일海の仕事.com (<http://www.uminoshigoto.com/>)
- 일본 해양정책 연구재단 (www.sof.or.jp)
- 일본해사센터(<http://jpmac.or.jp>)
- 일본 B&G 홈페이지 (www.bgf.or.jp)
- 한국해양재단 (<http://koreamaritimefoundation.or.kr/>)
-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http://www.ckjorc.org>)

해양교육 정책도구가 해양의식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세요?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조사는 “해양교육 정책도구가 해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올바른 연구결과를 위해 설문내용을 잘 읽으신 후 각 문항에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 34조의 규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설문에 협조해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연구자: 한국해양대학교 해양행정학과 이초희

1. 응답자 특성

성 별	① 남성	② 여성			
연 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이상
학 령	① 고졸 및 그 이하 ② 전문대 재학~졸업 ③ 대학교 재학~졸업 ④ 대학원이상				
직 업	① 교사	② 교수(전공:)	③ 공무원(분야:)		
	④ 회사원	⑤ NGO(분야:)	⑥ 연구원(분야:)		
	⑦학생(전공:)	⑧ 기타()			

II. 해양의식에 관한 설문

※ 다음 질문에 귀하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설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편 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해양에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TV,신문 등에서 해양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관심을 가지고 본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해양에 관련된 책이나 영화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해양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한 경험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해양환경 보전 캠페인에 참여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해양 및 해양자원에 관한 지식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해양에 관한 지식을 많이 알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가족이나 친구등 가까운 사람에게 해양과 관련된 직업을 추천해주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미래에 해양에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0	해양과 관련된 직업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 질문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설문내용	맞다	틀리 다	모른 다
11	지구표면의 71%가 해양으로 덮여 있다.	①	②	③
12	지구의 산소는 바다보다 육지에서 더 많이 공급한다.	①	②	③
13	해양에는 전 지구 생물종의 약 80%가 서식하고 있다.	①	②	③
14	삼면이 바다로 둘러 싸이고 한면은 육지에 이어진 땅을 반도라고 한다.	①	②	③
15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가장 작을 때를 사리라고 한다.	①	②	③
16	오염된 물로 인하여 바다 속 플랑크톤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바다가 빨강게 보이는 현상은 적목현상이다.	①	②	③
17	바다를 이용하여 전기를 만드는 것으로 밀물과 썰물을 이용한 발전소는 수력발전소 이다.	①	②	③

Ⅲ. 해양정책도구 인지도에 관한 설문

※ 각 질문을 읽어 보시고 귀하의 생각에 가장 근접한 항목에 ✓해주세요.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해양에 관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해양 사상을 고취하고 투철한 국가관과 진취적인 기상을 함양하여 해양개발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84년도에 제정 공포한 것입니다.

문 항	설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편 이다	매우 그렇다
1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3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은 많이 알려져 있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에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은 잘 이루어 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해양교육시범학교는 학교에서의 해양교육을 통한 청소년 해양탐구능력함양을 목적으로 2002년부터 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 현재 지정된 해양교육시범학교는 20개학교로 각 학교당 연간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문 항	설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편 이다	매우 그렇다
6	해양교육시범학교 프로그램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해양교육시범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8	해양교육시범학교 프로그램은 많이 알려져 있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9	해양교육시범학교 프로그램에 대해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해양교육시범학교 프로그램은 잘 이루어 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해양교육동아리지원프로그램은 교사 및 학생들에게 해양교육의 학습효과 제고를 위하여 해양문화재단 (현 해양재단)에서 해양을 주제로 활동하는 동아리에 매년 약 200~25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 항	설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편 이다	매우 그렇다
11	해양교육동아리지원프로그램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해양교육동아리지원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13	해양교육동아리지원프로그램은 많이 알려져 있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해양교육동아리지원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해양교육동아리지원프로그램은 잘 이루어 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씨그랜트프로그램은 해양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가교로서 정부, 대학, 산업계 및 과학자와 일반 시민 사이에 해양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지역대학 사업단을 지정하면서 현재 6개의 센터 (영남,호남,경기,경북,충청,제주)가 있습니다.

문항	설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6	씨그랜트 프로그램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씨그랜트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18	씨그랜트 프로그램은 많이 알려져 있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9	씨그랜트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씨그랜트 프로그램은 잘 이루어 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해양포털사이트는 해양교육프로그램을 집적하여 체계적 관리 및 홍보를 강화하고, 다양한 해양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픈되었습니다. 포털사이트이름은 『바다야 사랑해』로 주소는 www.ilovesea.co.kr 입니다.

문항	설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21	해양포털사이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해양포털사이트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23	해양포털사이트는 많이 알려져 있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4	해양포털사이트에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5	해양포털사이트 콘텐츠 개발은 잘 이루어 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해양교육 교재는 해양의 다양한 분야를 쉽게 접할 수 있고, 현장에서 교재 활용도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2008년부터 국토해양부는 『바다는 내친구』, 『바닷가에 가 보아요』, 『바다야 친구하자』, 『직업으로 꿈꾸는 바다』 등을 제작하였습니다.

문항	설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26	해양교육 교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7	해양교육 교재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28	해양교육 교재는 많이 알려져 있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9	해양교육 교재에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0	해양교육 교재 개발은 잘 이루어 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소속기관별 해양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청소년 해양체험교육은 지방해양항만청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청소년들에게 바다현장 견학, 해양레포츠체험 등 생생한 학습기회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문항	설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31	소속기관별 해양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청소년 해양체험교육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2	소속기관별 해양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청소년 해양체험교육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33	소속기관별 해양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청소년 해양체험교육은 많이 알려져 있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4	소속기관별 해양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청소년 해양체험교육에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5	소속기관별 해양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청소년 해양체험교육은 잘 이루어 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해양교육관계자 워크숍은 해양교육 관계자들의 해양에 대한 이해 및 관심을 유도하여 해양교육 강화를 위한 기반 및 지원그룹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2008년부터 해양문화재단(현해양재단)에서 매년 1~2회 개최합니다.

문항	설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36	해양교육 관계자 워크숍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7	해양교육 관계자 워크숍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38	해양교육 관계자 워크숍은 많이 알려져 있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9	해양교육 관계자 워크숍에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0	해양교육 관계자 워크숍은 잘 이루어 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해양교육발전협의회는 해양교육 정보교환을 통해 교육프로그램 공동개발 등 해양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매년 1~2회 해양관련 유관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교환합니다.

문항	설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41	해양교육발전협의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2	해양교육발전협의회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43	해양교육발전협의회는 많이 알려져 있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4	해양교육발전협의회에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5	해양교육발전협의회는 잘 이루어 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